

세계 유기농산업 현황과 전망

서종혁* · 최동근** · 최용재** · 박종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설 친환경유기농업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적 요

1. 세계 유기농업 현황

○ 전세계적으로 유기농지는 3,720만 ha(전환기중인 토지 포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1,200만 ha)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어 유럽(930만 ha)과 남미(860만 ha)순이다. 유기농경지 측면에서 보면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순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전세계 농경지 중 약 0.9%가 유기농지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35.7%),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26.9%), 오스트리아(18.5%) 등이다. 유기농지 비중이 10%가 넘는 국가는 7개국이다.

○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기농지는 200만 ha, 약 6% 정도 증가하였다. 유럽에서 유기농지가 거의 100만 ha 정도 증가하여 큰 성장세를 보였다. 유기농지가 크게 증가한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터키, 스페인을 꼽을 수 있다. 농경지를 제외하고도 유기 면적이 크게 증

* 연구자는 친환경농업단체 유기농업연구소장으로 유기농업 정책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최신 해외 유기농업 자료 번역내용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유기농업 현황과 전망 조사와 국내 친환경농업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가하였다. 대부분, 야생식물 채취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약 4,190만 ha가 존재한다. 이는 2008년 이래 1,000만 ha 증가한 것이다.

○ 2009년에 유기농 생산자는 2008년보다 31% 증가한 180만 명이였다. 주로 인도에서 유기농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아시아가 전세계 유기농민의 약 40%를 차지하며, 뒤이어 아프리카(28%), 남미(16%) 순이다. 유기농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677,257)이며, 우간다(187,893), 멕시코(128,862) 순이다.

○ 2009년 전세계 3,720만 ha의 유기농지 중 2/3가 목초 및 방목지역이었다(2,300만 ha). 적어도 총면적 550만 ha에 달하는 경작용지(arable land)는 전체 유기면적의 15%를 차지한다. 이 또한 2008년과 비교하여 13.2% 증가한 것이다. 경작용지의 대부분은 쌀같은 곡식생산용(250만 ha), 가축사료용(green fodder)(180만 ha), 채소재배용(220만 ha)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년생 작물(permanent crops)이 240만 ha로 전체 유기농지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거의 50만 ha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유기작물은 커피(54만 ha, 다년생 유기작물 경작지의 1/5 차지)이며, 뒤이어 올리브(49만 ha), 코코아(26만 ha), 견과류(20만 ha), 포도(19만 ha)순이다.

2. 세계 유기농 시장

○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전세계 유기농 식음료 시장은 경제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다. 2009년 전세계 경제둔화로 인해 유기농 산업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자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처음으로 유기농 시장은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다. 2009년 유기농 식음료 판매는 약 4% 정도 성장하여 미화 549억 달러¹⁾에 달했다. 전세계적인 수익은 2000년 전 세계적 판매수익이 180억 달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실 2009년만 제외하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 여러 국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Amarjit Sahota 보고서 참조, 영문판 62페이지). 시장규모가 큰 국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들 수 있지만, 1인당 유기농 식품 소비가 큰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이다(유기농업에 관한 전세계적 조사(the global survey on organic agriculture) 참조, 영문판 33페이지).

1) 1 US dollar = 0.71895 Euros; 평균 환율 2009, 출처: <http://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표 1. 세계의 유기농업 현황

지 표		선도국가 2009년
유기 농경지(2009)	3,720만 ha (2008: 3,520만 ha / 1999: 1,100만 ha)	호주 (120만 ha), 아르헨티나(440만 ha), 미국 (190만 ha)
유기농경지 비율이 5% 이상인 국가	24개국(2008:22), 10% 이상인 국가: 7개국 (2008: 6개국)	포클랜드제도 (Malvinas)(35.7%), 리히텐슈타인(26.9%), 오스트리아(18.5%)
비농업 유기토지(2009) (유기 축산 등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4,190만 ha (2008: 3,100만 ha)	핀란드 (780만 ha), 브라질 (620만 ha), 카메룬 (600만 ha)
생산자(2009)	180만 생산자 (2008: 140만)	인도(677,257), 우간다(187,893), 멕시코(128,826)
유기농 시장규모(2009)	미화 549억 달러(400억 유로) (2008: 미화 509억 달러 / 1999: 미화 152억 달러)	미국(178억 유로), 독일(58억 유로), 프랑스(30억 유로)
유기농 규정 보유국가(2010)	74개국(2008: 73)	
유기농 인증기관(2010)	523개 인증기관(2008:489)	일본, 미국, 대한민국
IFOAM 회원 단체(2011)	2011년 1월 1일 현재: 757개 회원 단체 (2008: 734 / 2000:606)	독일: 회원단체 수 98, 미국: 45, 인도: 44

출처 : FiBL/ IFOAM, 전체 시장규모 : Organic Monitor, 인증기관 : Organic Standard / Grolink

3. 세계의 관련 표준과 규정

○ 2010년은 각종 표준과 규정들이 통합된 한 해였다²⁾. 유기농 생산에 관한 EU 규정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기농 표준이 발효된 해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 최초로 유기농 규정간에 완벽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려는 미국과 캐나다가 관련 내용들도 명확히 검토한 해였다. 새로 규정을 채택한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하지만, 특히 아프리카의 꽤 여러 국가에서 유기농업 법규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유기농 규정과 규칙에 관한 FiBL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표준을 보유한 국가의 수가 74개국으로 증가했고, 27개국에서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 대부분 지역에서 인증기관의 수도 완만히 증가했지만, 유럽의 경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왜냐하면 국제적 인증단체들이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EU 또는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총수는 2009년 489개에서 2010년 532개로 증가했다. 인증기관의 대부분은 EU, 미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에 있다.

○ 2009년에 FAO, IFOAM, UNCTAD는 공동으로 GOM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 유기농업에 관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개도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유기농 표준의 목적 및 관련 조건 등을 통합하는 활동을 펼쳤다.

○ 전세계적으로 유기 농민의 수가 증가하고, 현지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참여적 보증제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재 모든 대륙에서 PGS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남미 및 인도가 관련 농민의 숫자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2010년에는 PGS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증가라는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의 정부 인정은 주목할 만하다.

○ 현재 유기농 분야에선 여타 표준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시장을 둘러싼 친환경, 녹색, 농업의 윤리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맞고 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반면, 유기농 시장에 새로 진입한 주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새로운 도전 과제이다.

2) 유기농 표준과 규정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보려면 www.organic-world.net/rules.html 및 유기농업의 세계 이천호에 실린 표준과 규정 편들을 참고하고, www.organic-world.net/former-editions.html 에서 다운로드도 가능.

4.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업 현황과 전망

○ 연도별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0년 2,448호에서 2010년 183,918호로 75배 증가하였다가 2011년도에 16만여호로 줄었다. 인증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10년 194,006ha로 93배 증가, 2011년도에 172,674ha였다. 인증량은 2000년 35,406톤에서 2,215,521톤으로 63배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는 1,819,228톤이었다.

○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유기농산물이 크게 증가하여 그동안 저농약농산물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탈바꿈하고 있다. 2011년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13,376호이고, 재배면적은 19,312ha이며, 생산량은 190,912톤이었다.

○ 2004년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은 1,340톤이었다가, 2005년에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2008년 1,748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출하량은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우리나라는 2003년 처음으로 수입 유기농산물을 인증한 이래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10,138톤으로 2008년 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이는 환율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의 8.2%정도이다.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생산 및 수요증가로 인해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과 대형유통업체, 전문매장(프랜차이즈), 농협, 인터넷쇼핑몰 및 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 대면판매, 학교급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를 2011년도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6.5%인 5,364억원, 무농약이 47.9%인 1조 5,627억원, 저농약이 35.6%인 1조 1,61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3조 2,600억원 수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도에는 6조 60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류가 31.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채소류, 과일류 순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011년 대비 12.9%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3년에는 3조 9,845억원, 2015년에는 4조 8,3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기가공식품은 2011

년 3,777억 원, 2015년 5,781억 원, 2020년 6,81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생산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219억 원, 2015년 4,937억 원, 2020년 5,8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은 그동안 저농약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무농약 및 유기농 중심의 발전을 모색하여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가공 및 농자재까지 친환경농업의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 부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 소비량은 감소하나, 양분 잉여량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 2012년도의 친환경농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4,072억원(예산+기금)이다. 2011년도에 전년 대비 큰 폭(24.2%)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및 기금 대비 2.6%에 불과하다.

5. 시사점

○ 세계 유기농식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시장도 늘어나고 있으나, 세계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WTO/FTA 등 국제협정의 체결 및 발효와 함께 유기농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압력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실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현과 정착이 필요하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계획시장으로 농업·농촌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판로 및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고 지역농업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수질 및 토양,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이산화탄소 저감기능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업 대표조직 구성과 의무자조금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농업조직(단체: 생산, 소비, 가공, 유통, 소비 등)의 연합체의 위상을 가지며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협의체)에서 나아가 민간 환경농업단체(조직 등)의 중심 및 구심으로의 역할로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유기농식품 산업 등의 피해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속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서둘러 수립, 제시해야 한다.

I. 연구목적

○ WTO/FTA 추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9년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의 12.2%를 차지하는 정도로 증가하여 틈새시장(niche arket)에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 식품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수출 국가들의 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요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국내의 유기농업 및 가공식품 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대내외적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 등 세계 각 대륙별로 유기농산물 생산 및 시장규모,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유기농산물 생산·가공 실태의 객관적 정보, 또한 주요 나라의 유기농의 주요 관심사 및 동향 등을 올바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현황,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등 생산, 가공 유통의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세계 각 대륙 및 주요 나라별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현황 및 주요 동향(제도 등) 등을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 주로 IFOAM 및 FiBL에서 작성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 Emerging Trends 2011」 등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세계의 유기농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 다음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 실태 조사 관련 선행 연구 및 정부 관련 친환경인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소비,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및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기 및 친환경 농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각 대륙(유럽/아프리카/아시아/북미/남미/오세아니아)과 주요 나라의 유기농업 생산, 가공, 유통, 시장규모 등 각종 실태와 현황, 전망

○ 각 나라별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제도) 조사

○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결과 요약

○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농업 관련 각종 실태 및 현황

○ 시사점

Ⅲ. 연구결과 및 현장 적용사례

1. 서론

지난 30여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운동은 1994년 말 정부가 환경농업과를 신설하면서 정부정책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현재의 MB정부를 거치면서 농정의 중요한 틀로서 지형이 크게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유통 기반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근대화과정의 생산력 지상주의의 주술 속에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증산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핍박과 억압을 받아왔으나, 본격적인 시장개방 시대의 우리 농업의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과 유럽유기농업연구소(FiBL)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 Emerging Trends 2011)는 유기농업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는 미래의 녹색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유기농산물이 2007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기에도 지속적인 판매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550억불(한화 환산 약 63조원)이며 세계 금융위기 전체인 2006년에 비하여 약 3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 2000년대 전반기의 연간 증가율 30%에는 못 미치나, 불황기에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관행농업을 대체하는 성장농업이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다. 특히, EU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작면적 증가는 시장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세계 유기농 경작지는 1999년의 1천 1백만 ha에서 2009년에는 3.4배 증가한 약 3천 7백만 ha이며 이는 2006년 대비 23.6% 증가한 면적으로 동 기간중 시장규모 증가율 37%와 차이가 있다. 이는 유기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변화되면서 시장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아직도 유치산업단계로서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1%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전단계인 무농약 농산물을 합하면 총면적이 11만ha(2010년 기

준)에 달하고 이는 전체 농경지의 약 6%를 점하는 수치로 지난 10년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면적이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 추세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적인 유기 농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유기농산업, 새로운 유기 농산업 분야,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농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세계유기농산업 현황과 전망

가. 세계 유기농토지, 생산자 및 생산물

(1)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유기농 토지

(가) 일반적 현황

현재 3,720만ha의 농경지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³⁾. 유기 농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오세아니아로, 1,215만 ha가 존재한다. 그 뒤를 이어, 유럽(930만 ha), 남미(860만 ha), 아시아(360만 ha), 북미(270만 ha), 아프리카(10만 ha 이상)의 순서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이 전세계 유기 농경지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기농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수년동안 유기토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인 유럽이 전세계 유기 농경지의 1/4을 차지한다. 남미의 비중이 유럽보다 약간 적다(23%).

호주는 가장 많은 유기 농경지를 보유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 중 97%는 광활한 축산용 방목지이다. 아르헨티나가 2위이며, 미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을 합치면 2,750만 ha에 달하고, 이는 전세계 유기농 경작지의 3/4을 차지한다.

(나) 지역 및 국가별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농경지의 비중

전세계 농경지에서 유기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85%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중이 가

3) 몇몇 국가는 전환 과정이 완료된 지역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거나, 다른 지역들은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농경지의 정보만 제공하였다. 따라서, 전환기 중인 지역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예,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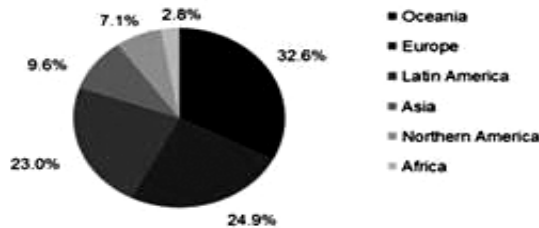
표 2. 유기 농경지(전환기 지역 포함)와 전체 유기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2009년)

지역	유기 농경지(ha)	전세계 유기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아프리카	1,026,632	2.8
아시아	3,581,918	9.6
유럽	9,259,934	24.9
남미	8,558,910	23.0
오세아니아	12,152,108	32.6
북미	2,652,624	7.1
총계	37,232,127	100.0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주의: 농경지는 전환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야생 채집 및 수산, 산림 비농업용 방목지는 제외.

Distribution of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regi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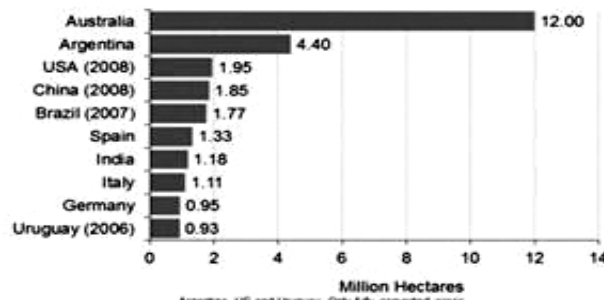
FiBL www.fibl.org

Source: FiBL & IFOAM Survey 2011

IFOAM

그림 1. 유기 농경지 지역별 분포도(2009년)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World: The ten countries with the most organic agricultural land 2009



FiBL www.fibl.org

Source: FiBL/IFOAM Survey 2011, based on data from governments, the private organic sector and certifiers.

IFOAM

그림 2. 유기농 경작지 보유 상위 10개국(2009년)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장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2.8%)이며, 유럽(1.9%), 남미(1.4%)의 순이다. EU 27개국의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비중은 4.7% 이상이다. 다른 지역은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비중이 1% 이하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며, 유기 농경지가 전체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도 7개국이나 되는데, 대부분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유기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클랜드 제도(Malvinas)이며, 이곳의 대부분이 양 사육 목장이다. 섬 국가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체 농경지중 유기농경지의 비중이 1% 이하인 국가가 전체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의 67%나 된다.

표 3. 유기 농경지(전환중 토지 포함) 및 전체 농경지에서 유기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2009년)

지역	유기농경지(ha)	전체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프리카	1,026,632	0.10%
아시아	3,581,918	0.25%
유럽	9,259,934	1.87%
남미	8,558,910	1.37%
오세아니아	12,152,108	2.82%
북미	2,652,624	0.68%
총계	37,232,127	0.85%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전체 농경지의 비중(당 조사에 포함된 국가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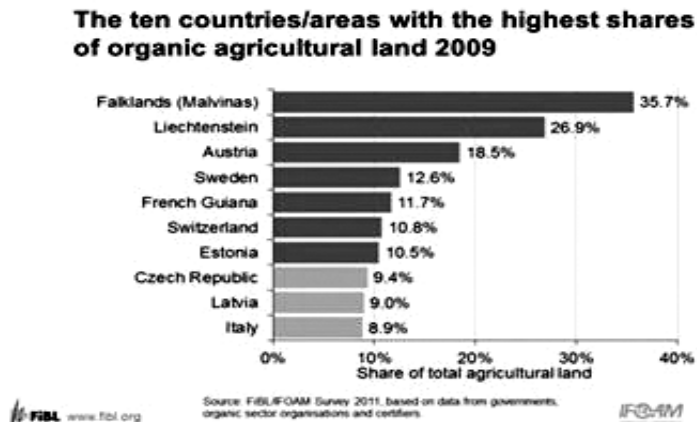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농경지에서 유기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국(2009년)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다) 유기 농경지의 증가

2009년에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는 약 6%, 200만 ha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9년과 비교하여 유기농업은 3배 이상 증가되었다. 2009년에 모든 지역에서 유기 농경지가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아프리카였다(20% 증가). 절대적 수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럽이다(100만 ha 이상 증가). 98개국에서 농경지가 증가했고, 농경지가 줄어든 국가는 41개국이다.

World: Development of organic agricultural land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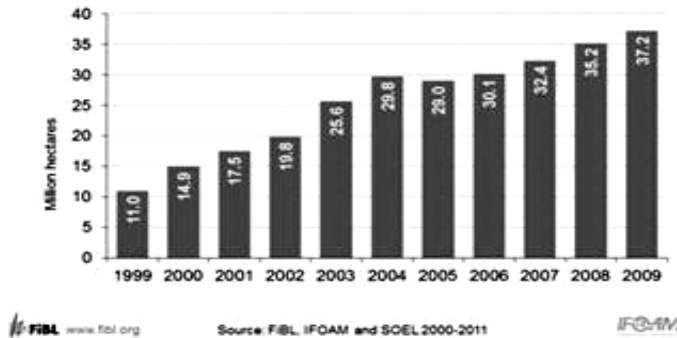


그림 4. 유기농경지 증가(1999년~2009년)
출처: FiBL, IFOAM, SOEL 2000-2011.

표 4. 지역별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농경지(2008년~2009년)

지역	유기농경지(ha) 2008년	유기농경지(ha) 2009년	면적 증감(ha)	비율 증감(%)
아프리카	857,662	1,026,632	168,971	19.7
아시아	3,351,068	3,581,918	230,850	6.9
유럽	8,263,740	9,259,934	996,194	12.1
남미	8,065,147	8,558,910	493,763	6.1
북미	2,577,502	2,652,624	75,112	2.9
오세아니아	12,046,784	12,152,108	105,324	0.9
총계	35,255,786	37,232,127	2,006,341	5.7

출처: FiBL/IFOAM Survey 2009-2011

(라) 기타 유기 지역

유기 농경지를 제외하곤, 유기 지역이 존재한다. 기타 유기 면적의 가장 큰 비중은 야생 채집지역이며, 양봉, 수산, 산림, 비농경지 중 유기 방목 토지 등이 포함된다. 다수 국가가 농경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면서도 기타 유기 면적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의 총 면적은 2008년부터 1,000만 ha 정도 증가한 4,190만 ha에 달한다. 카메룬과 러시아에서 야생채집과 양봉지역이 크게 증가했다.

IFOAM 기본 표준(IFOAM Basic Standards, 2006년)은 야생에서 수확한 작물을 채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농법에서도 야생 채집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009년 동안 채취 지역(양봉 포함) 면적은 4,100만 ha였고, 이는 2008년과 비교하여 1,000만 ha 정도 증가한 것이다. 유기식물 야생 채취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야생 채취 지역의 분포는 경작지 분포와 다르다. 캐나다에서도 야생 채취 작물이 약간 보고 되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보고된 것이 없다.

표 5. 유기 지역 지역별 농경지와 인증 받은 유기 지역(2009년)

	농경지	야생 채집*	수산양식	산림	비농경지 대상 방목지	총계
아프리카	1,026,632	16,429,557		185		17,456,374
아시아	3,581,918	4,224,787	428,852	94	6,000	8,241,652
유럽	9,259,934	12,183,100		4,532	20,261	21,467,647
남미	8,558,910	8,457,786	4,532	1,198		17,022,426
오세아니아	12,152,108	50				12,152,158
북미	2,652,624	210,231				2,862,855
총계	37,232,127	41,505,511	433,384	5,829	26,261	79,203,112

* 야생 채집과 양봉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유기농 야생 채취 면적이 큰 나라로는 핀란드(주로 딸기, 베리류), 브라질과 잠비아(양봉)의 순이다. 야생 채취 면적이 큰 상위 10개국 모두 합치면, 그 면적이 2,840만 ha에 달한다. 전세계 야생 채취 식물의 1/3 정도에 관해 채취된 작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야생 딸기, 머류(주로 핀란드), 약초 및 방향식물, 야생 견과류(예를 들어 아프리카 호두와 남미의 밤) 등이 주로 채취되는 식물이다.

표 6. 작물군별 야생 식물 채취와 양봉 지역(2009년)

작물 군	면적(ha)	작물 군	면적(ha)
야생 식물채취, 세부 정보 없음	14,763,197	산림 꿀 채취 (forest honey)	89,753
양봉	12,678,629	팔미토 (Palmito, 야생)	66,780
말기류, 베리	7,898,805	기타 야생 채취	64,680
약초 및 방향식물 (야생)	3,620,830	버섯 (야생)	14,194
견과류 (야생)	1,446,211	종려당 (palm sugar)	12,422
유지식물 (oil plant, 야생)	400,087	바오밥 (baobab)	1,232
해초	200,660	동물 생산 (animal products)	243
과일 (야생)	152,287	대나무 (야생)	230
산림 생산물 (forest products)	95,150	총계	41,505,511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2) 방목용 초원지대 중심인 유기농경지의 토지 활용

(가) 토지활용

2009년 세계 유기농경지(3,720만 ha)의 약 2/3은 방목용 초원지대이다(2,300만 ha). 경지(cropland area, 경작지와 다년생 작물지 포함)은 920만 ha에 달하며 이는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농경지의 거의 1/4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경지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 농경지 규모가 큰 몇몇 국가(예, 브라질, 인도, 캐나다)의 경우, 토지 활용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활용 관련 정보에 있어 유기농경지의 90% 정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⁴⁾.

토지사용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경작지, 다년생 작물,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지(cropland, 경작지+다년생 작물지), 다년생 목초지역/방목지역, 기타 농경지역(예를 들어 울타리),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농경지 등을 조사했다. 농업, 산림, 방목용 비 농경지는 농경지(agricultural land) 및 야생 유기식물 채취 지역과는 다르다⁵⁾.

4) 몇몇 국가의 경우, 주요 토지 활용 (경작지, 영구 작물지, 영구 초지)에 관한 정보만 이용 가능.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영구 방목지의 범위에 관한 대략적인 추산만 활용 가능한 정보임. 다른 나라의 경우, 토지 활용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통계 수치를 Eurostat statistics 에서 파악 가능; 예를 들어, 여러 국가의 각 야채 종류별 비교 정보 등.

5)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organic-world.net/databackground-general.html 에서 확인 가능

표 7. 토지 사용 용도 및 지역별 유기 농경지(전환 지역 포함, 2009년)

용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총계
농경지	348,969	1,491,973	129,851	2,369,394	12,321	384,250	4,736,759
경작가능토지	121,162	201,884	3,719,125	171,066	1,311,143		5,524,380
경지	24,459	1,105,254		5,401	97,561	6,661	1,150,012
기타 농경지	54,404	46	313,999	5,027	23,338	7,702	404,516
다년생 작물지	451,510	181,874	1,010,534	751,702	64,572	3,238	2,427,429
다년생 목초지 /방목지	26,128	600,887	4,175,747	5,292,321	1,143,689	11,750,258	22,989,031
총계	1,026,632	3,581,918	9,259,934	8,558,910	2,652,624	12,152,108	37,232,127

출처 : FiBL/IFOAM survey 2011

1년에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통계치는 수정하여 실음
농경지와 경지는 세부 정보 없음

(나) 작물별 경작지

최소 550만 ha에 달하는 경작지는 유기 농경지의 15%를 차지한다. 유기경작지는 전 세계 경작지의 0.4%를 차지하는데⁶⁾, 이는 13.2% 증가한 것이다. 유기경작지의 대부분은 유럽(370만 ha)에 존재하며, 뒤를 이어 북미(130만 ha 이상)와 남미(17만 ha)가 있다. 경작지로 분류되는 토지는 주로 쌀(250만 ha)같은 곡식 재배에 이용되며, 뒤를 이어 축산사료 재배(180만 ha)와 야채재배(22만 ha)로 구성된다.

(다) 다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지는 유기 농경지의 약 6%를 차지하며, 전세계 다년생 작물지(permanent cropland)의 1.7%에 해당하는 240만 ha에 달한다⁷⁾. 이전 조사에 비해 거의 50만 ha가 증가했다. 다년생 작물지는 전체 농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3%)보다 유기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6.5%)이 더 크다. 대부분의 다년생 작물지는 유럽(100만 ha)에 위치하며, 그

6) FAOSTAT, FAO, Rome. See the FAO Homepage: (faostat.fao.org > Resources > Resourcestat > <http://faostat.fao.org/site/377/default.aspx#ancor>)에 따르면, 2008년에 1,380,515,000ha

7) FAOSTAT, FAO, Rome. 에 따르면, 2008년 영구 경지는 146,242,120ha.

FAO Homepage: faostat.fao.org>Resources>Resourcestat Land at <http://faostat.fao.org/site/377/default.aspx#ancor> 참조

표 8. 유기 경작지 활용, 2008년과 2009년 비교

작물 분류	2008년 (ha)	2009년 (ha)	변화 (%)
경작지, 세부 정부 없음	68,935.3	39,432.1	-42.8
경작지, 기타	61,007.8	59,249.9	-7.5
곡식	2,203,092.8	2,438,465.3	10.7
화훼 및 장식용 식물	2,067.2	323.6	-84.3
호프(hop)	151.5	207.7	37.1
특용 작물(industrial crops)	24,001.1	23,222.4	-3.2
약초 및 방향 식물	46,872.7	71,782.3	53.1
버섯	55.4	106.0	91.3
종묘	340,870.3	445,707.4	30.8
경작지에서 가축 사료 재배	1,542,857.2	1,843,152.9	19.5
콩과 작물(protein crops)	178,633.8	204,093.4	14.3
근채 작물	42,791.7	44,445.3	3.9
종자 및 모종	12,733.3	293.3	-97.7*
딸기	3,033.9	3,048.8	0.5
사탕수수	54,218.4	51,287.9	-5.4
섬유 작물(textile crop)	89,866.2	77,131.9	-14.2
담배	85.0	197.1	131.9
야채	209,865.8	222,232.6	5.9
총계	4,881,139.0	5,524,380.0	+13.2

출처 : FiBL/IFOAM survey 2011

비고 : 전환중인 토지 및 전환이 끝난 토지 포함.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토지 활용 및 작물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님.

* 주의 : 종자 및 모종 뿐만 아니라 화훼 및 장식 식물의 감소는 2009년 이후 Eurostat가 이 범주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출처: FiBL/IFOAM 2011).

뒤를 이어 남미(75만 ha), 아프리카(45만 ha)가 있다. 재배되는 가장 중요한 작물로는 커피(54만 ha, 전체 다년생 유기 작물지의 1/5 차지), 올리브(49만 ha), 코코아(26만 ha), 견과류(20만 ha), 포도(19만 ha)를 들 수 있다.

(라) 지역별 주요 재배작물

아프리카 : 유기경작지의 약 1/3에 해당하는 토지 활용 정보가 존재한다. 농경지의 절반

표 9. 유기 다년생 경지 활용, 2008년과 2009년 비교

작물 분류	2008년 (ha)	2009년 (ha)	변화
베리 류	28,218.5	29,887.3	6%
감귤 류	56,637.8	64,696.1	12%
코코아	165,058.0	264,468.5	60%
코코넛	15,482.7	43,321.4	180%
커피	463,499.0	545,367.8	18%
화훼 및 장식용 식물, 다년생	64.9	75.3	16%
과일*	6,836.5	7,062.9	3%
과일, 온대성	100,593.9	91,022.1	-10%
과일, 열대성 및 아열대성	132,156.5	161,599.1	22%
과일/견과류/베리류*	30,387.5	20,710.3	-32%
포도	150,535.7	190,850.2	27%
아라비아 고무	19,978.0	6,849.0	-66%
약초 및 방향성 식물, 다년생	18,049.6	14,767.0	-18%
종묘(nursery)	1,059.4	1,070.7	1%
견과류	174,893.6	200,170.8	14%
올리브	432,189.1	493,841.4	14%
기타 다년생 작물	53,259.0	154,715.0	190%
다년생 작물*	48,007.9	82,257.8	71%
차/마테차(mate)	49,099.9	54,696.0	11%
총계	1,947,008.0	2,427,429.0	25%

출처 : FiBL/IFOAM survey 2011

비고 : 전환중인 토지 및 전환이 끝난 토지 포함.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토지 활용 및 작물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님.

* 은 세부정보가 없는 항목임

정도가 다년생 작물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 다년생 작물은 커피와 올리브 같은 현금성 작물이다.

아시아 :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약 2/3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작지는 주로 쌀 같은 곡물 재배에 사용된다. 더욱이 목화는 중요한 작물이며, 인도와 시리아가 최대 유기목화 생산국가이다.

유럽 :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고, 주요 작물 군에 대한

정보도 문서화되어 있다. 다년생 목초지와 경작지는 전체 유기 농경지에서 대략 같은 비율을 차지한다. 경작지는 주로 곡식재배에 활용되며(170만 ha), 가축사료 재배(140만 ha)가 2위를 차지한다. 다년생 작물지는 유기 농경지의 11%를 차지하며, 이중 1/3 이상이 올리브 재배에 활용된다. 뒤를 이어, 포도, 견과류, 과일의 순이다.

남미 :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 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는 대부분 다년생 목초지이다. 다년생 작물지가 전체 농경지의 약 1/10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년생 경지의 절반 정도가 커피 재배에 활용되고, 코코아와 열대 과일이 그 뒤를 따른다.

북미 : 유럽에서처럼 경작지와 다년생 초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경작지의 많은 부분이 곡식 생산에 이용된다(60만 ha).

오세아니아 : 호주의 토지 대부분은 광활한 초지/방목지이다. 기타 토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편이다.

(3) 수출국 중심의 유기농 생산자

(가) 유기농산물 생산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총 1,800만 명의 생산자가 보고되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하여 4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획득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유기 생산자의 3/4 이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분포해 있다. 유기농 생산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⁸⁾이며, 그 뒤를 이어 우간다와 멕시코가 있다. 인도에서 유기농 생산자 수는 2009년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나) 기타 운영자 형태

기타 운영자 형태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4,300명의 가공업자, 최소 2,700명의 수입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에 기반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유기농 가공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기타 형태의 운영자에 관한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데이터가 없지만, 가공업자 및 수입업자가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BL 및 IFOAM에 보고된 기타 운영자는 양봉업자, 수출업자, 소농 그룹, 농기업, 및 야생 식물 채취업자 등이 있다.

8) 인도의 생산자 수치는 야생 채취 종사자를 포함. 인도는 3백 4십만 ha의 야생채취/산림지역 보유

표 9. 유기농 생산자 증가(2008년~2009년)

대륙	2008년	2009년	증가(수치)	증가(%)
아프리카	468,761	511,661	42,900	9.2
아시아	404,733	731,315	326,582	80.7
유럽	222,470	257,545	35,075	15.8
남미	262,424	283,066	20,652	7.9
북미	18,844	17,069	225	1.3
오세아니아	7,960	8,466	506	6.4
총계	1,383,182	1,809,122	425,940	30.8

출처: FiBL / IFOAM Survey 2011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s of organic producer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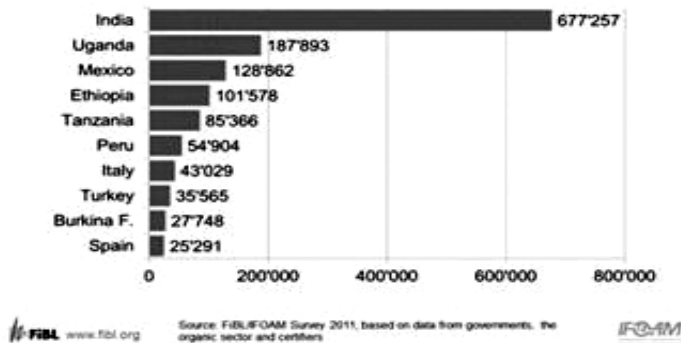


그림 5. 유기농 생산자 수 - 상위 9개국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나. 세계 유기농산업 시장

유기 식음료의 글로벌 시장은 재정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경제 침체로 인한 산업 투자 둔화와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인해 한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2009년 유기 식음료는 대략 5% 정도 확대되어 미화 549억 달러⁹⁾에 달했다.

9) 미화 1달러=0.71895 유로화; 2009년 평균 환율, 출처: <http://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2009년 성장 둔화세는 유기식품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적으로 수익은 2000년도의 미화 180억 달러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만 제외하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경제침체에서 빠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장세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두 지역이 전세계 매출의 96%를 차지한다. 현재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인식과 가처분 소득이 낮아 유기농 식품소비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 유기 식품료 산업의 가장 큰 장애는 수요의 지나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유기농산업의 두 가지 다른 과제는 ‘유기농 제품은 비싸다’ 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유기농업 전환기가 일반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기농 식품산업은 상품 부족에 직면하면서도 또한 다른 측면에선 과잉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가의 가격 프리미엄도 유기 농수산물 판매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유기농 식품이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이며, 건강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비싸 구입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1) 선진국 중심의 유기농식품 시장

유기식품의 규모가 큰 국가로는 미국이 1위이며, 그 뒤를 독일과 프랑스가 잇고 있다. 2009년에 유기식품의 1인당 소비가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이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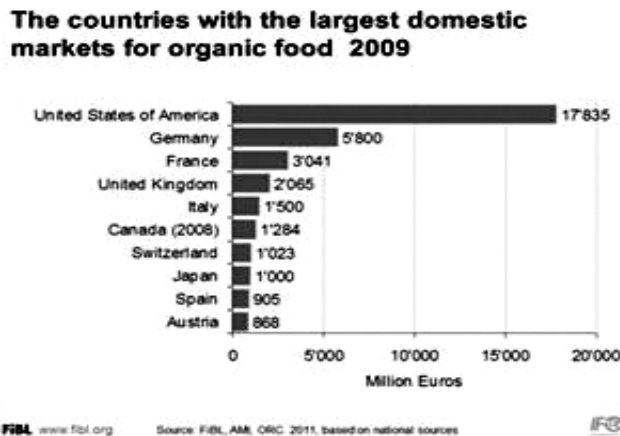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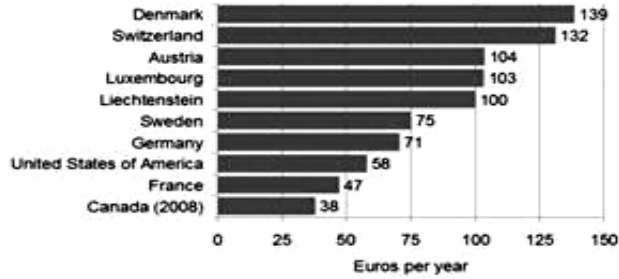


그림 6. 유기 식품의 시장규모가 큰 국가(2009년)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 capita consumption 2009



FIBL www.fibl.org

Source: FIBL, AM, ORC 2011, based on national sources

IFOAM

그림 7. 유기 식품의 1인당 소비가 높은 국가(2009년)

출처: FiBL/IFOAM Survey 2011.

표 10. 국가별 유기 식음료 총 매출액과 수출액(2009년)

국가	총 매출	인당 유로	수출
호주	536.0	25.2	123(2007)
오스트리아	867.6	103.8	66.0
아제르바이잔	0.7	0.1	
벨기에	350.0	32.3	
볼리비아(2006)			13.2
불가리아	4.5	0.6	
캐나다(2008)	1,283.8	38.0	106.4
칠레	1.8	0.4	
중국	790.8	0.6	
코스타리카	1.4	0.3	18.9
크로아티아	37.4	8.4	2.5
사이프러스	1.5	1.9	
체코 공화국	68.3	6.5	4.0
덴마크	765.0	138.6	99.7
에스토니아	11.8	8.8	
포클랜드(Malvinas)			2.1
핀란드	75.4	14.1	14.0
프랑스	3,041.0	47.2	
독일	5,800.0	70.7	

표 10. 계속

국가	총 매출	인당 유로	수출
그리스	58.0	5.2	
헝가리	25.0	2.5	20.0
인도			87.7
아일랜드	112.8	23.9	
이탈리아	1,500.0	25.0	
일본	999.7	7.8	
대한민국	226.2	7.8	
리히텐슈타인	3.4	100.0	
룩셈부르크	51.0	103.3	
멕시코(2008)	20.5	0.2	310.4
몬테네그로(2008)	0.1	0.1	
네덜란드	590.5	35.8	525.0(2007)
뉴질랜드	142.5	33.4	79.4
노르웨이	113.9	23.7	
페루			122.05
폴란드(2006)	50.0	1.3	
포르투갈(2006)	70.0	6.6	
루마니아(2006)	2.5	0.1	
러시아 연방	65.0	0.5	4.0
사모아	0.0	0.1	0.1
슬로바키아(2008)	4.3	0.8	
슬로베니아	34.4	17.0	0.1
스페인	905.0	19.5	454.0
스웨덴	697.9	75.4	
스위스	1,023.5	131.5	
튀니지			29.0
터키	3.6	0.1	
우간다			26.6
우크라이나	1.2	0.0	
영국	2,065.0	33.5	
미국	17,835.2	58.1	
우루과이(2006)	5.4	1.6	

출처 : FiBL / IFOAM Survey 2011a단위 : 총 매출(단위: 백만 유로), 인당 유로 (euro/person), 수출(단위: 백만 유로) 정부기관, 민간 유기 분야 및 시장 연구기관이 제시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AMI, ORC, IFOAM과 협력하여 FiBL이 데이터 취합.

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유기 식음료의 판매는 전세계적으로 2009년에 거의 미화 550억 달러에 달했다.

(2) 대륙별 시장 현황

(가) 유럽

미화 260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시장은 전세계 유기 식음료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유럽의 유기농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한 세계적 기업이 위치한 가장 발전된 시장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며,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기업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수 존재한다.

재정 위기는 유기 농수산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치분 소득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식음료의 소비자 지출 또한 줄었다. 영국의 유기농 식음료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14% 하락했다. 독일 시장은 유기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한 덕에 보합세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스웨덴 같은 국가의 유기농 식음료 시장은 2009년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유기농 식음료 판매는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의 가장 거대 소비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알프스 산에 인접한 국가이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유기농 식음료가 전체 식음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5%이상이다. 덴마크 소비자가 유기농 식품의 세계 최대 구매자로서 일인당 미화 202달러를 유기 농수산물에 지출한다.

남부 유럽의 경우 수출 위주 유기농 생산자가 다수 존재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중요한 생산국가이지만, 유기농 제품의 소비자가 많지 않다. 이 같은 나라의 유기 농산물의 대부분은 북부 유럽 국가로 수출된다. 수출 작물로는 유기농 과일, 야채, 허브, 향신료 및 올리브 오일이 있다.

유기농 식품생산은 중앙 유럽 및 동유럽에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남유럽처럼 대부분의 생산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기농 제품의 내부시장 또한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 폴란드, 헝가리 등이 중요 시장이다.

(나) 북미

북미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 식음료 시장이다. 미화로 263억 달러에 달하는 북미 시

장은 유럽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도에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유기농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미국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크며, 북미지역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유기 농산물의 선도적 생산국 및 수출국이지만, 많은 부분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적으로 생산되는 유기 식음료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서 많은 대륙으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다. 유기농 과일, 야채, 육류, 콩류, 씨앗류, 허브, 향신료, 식자재 같은 상품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북미의 최대 수입지역은 남미 국가들이다.

관행 식품을 판매하는 기존 식료품점 채널에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게 된 것이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유기 농수산물은 슈퍼마켓, 할인점, 대규모 상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선도적인 식품 유통업체는 모두 유기농 식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라벨(민간이 정한 라벨: private label)을 도입했다. “O Organics”는 세이프웨이(Safeway) 슈퍼마켓 체인에서 개발한 라벨로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유기농 식품 브랜드가 되고 있다. 롱로우(Loblaw)의 자체 라벨인 “PC Organics”는 이미 캐나다에서 선도적인 유기 식품 브랜드가 되었다.

북미 유기농 식품 산업은 유럽과 비교하여 더욱 집중되어 있다. 거대 기업들이 생산, 분배,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기존 거대 식품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강력하다. 이런 기업으로는 던푸드(Dean Foods), 펩시콜라, 다농(Danone)과 허쉬(Hersheys)가 있다. UNFI는 유기농수산물의 지배적 유통업체인 반면, Whole Foods Market과 Trader Joe’s가 자연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이다.

요식과 식품 서비스 부문(CFS, Catering and Foodservice Sector)은 유기 농수산물의 중요 거래 채널이 되고 있다. 유기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푸드서비스 업체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요식업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몇몇 기업은 CFS 부문을 구체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Organic To Go Food Corporation은 유기농 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요식업체에게 유기농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Pizza Fusion 같은 다른 푸드 서비스 업체들은 자신들의 피자레스토랑 매장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다) 아시아

아시아는 2단계(two-tier)의 유기농 식품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대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생산국들이다.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나라들은 수출을 위해 유기 농수산물 경작에 집중한다. 중요 유기농산물로는 과일, 야채, 허브, 향신료, 쌀, 차 및 기타 식재료가 해당된다.

두 번째 그룹은 중요한 생산국은 아니지만, 유기식품의 거대 소비국이다. 주로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해당되는데,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유기 농수산물의 수요가 이런 부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자는 소수이다.

유기농 식음료의 판매는 아시아에서 꾸준한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2009년에 아시아 시장은 미화 10억 달러를 약간 넘었다. 유기 식품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유통망의 개선이 시장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주류 유통업체 중에서 유기 생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일부는 자체 라벨을 부착하기도 한다. 식품안전과 생태적 이슈에 대한 아시아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식품 파동(특히 중국의 식품 안정성 문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시아의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많이 있다. 아시아 지역의 표준 부족으로 인해 유기 농수산물의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유기농업과 식품에 관한 의무 규정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표준이 없거나, 아니면 자발적 표준을 마련했을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정당한 유기농수산물과 경쟁제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시장에는 “화학비료 무사용(chemical-free)” 또는 “살충제 저투입(low pesticide)”같은 애매모호한 라벨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국가 표준간의 동등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신들이 재배한 유기 농수산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라)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이 전세계 유기 농경지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기 생산물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다. 2009년 오세아니아 유기 식음료의 소매 매출은 미화로 약 8억 달러에 달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경제둔화 때문에 시장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견고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유통망의 증가가 시장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유기 농수산물은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요식업 및 푸드서비스 업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 유기농 시장의 특성은 유기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 식음료가 주류 유통채널로 진입하고 있긴 하지만, 적은 범위의 유기농 제품만이 거래되고

있다. 유기 농수산물은 비싸다는 인식 또한 시장 성장의 장애물이다. 유기농 표준이 의무 규정이 아닌 자발적 규정이라는 점 때문에 유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기농산물의 중요 수출국가이지만, 유기농 쇠고기, 양고기, 키위(과일), 와인, 사과, 배, 야채 중 상당량을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와 마찬가지로, 거대 식품 기업과 유통업체가 유기 식품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Woolworths가 2009년 유기농 전문 매장체인인 Macro Wholefoods를 인수함으로써 최대 유통업체가 되었다. 합병 이후에 Thomas Dux Grocer라는 깃발아래 여러 매장을 통합하였다. Fonterra와 Sanitarium같은 거대 식품회사들은 취급 유기 농수산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마) 기타 지역

기타지역에서도 유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남미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수출용이지만, 내수 시장 또한 느리나마 발전하고 있다. 브라질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주력하는 생산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남미 최대 유기농 식품 시장이다. 거의 모든 남미국가에서 유기농을 재배하지만 소비자는 소수이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유기농 식품은 수출용이다. 남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시장이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지에서 내수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최대의 시장이다.

다. 세계 유기농 관련 표준과 규정

2010년은 여러 표준과 규정이 통합된 한 해였다¹⁰⁾. 유기농 생산에 관한 신 EU 규정과 캐나다 유기농 표준이 실행되었고, 캐나다와 미국(전세계 최초로 유기농 시스템간에 완벽한 상호협정 추진 중)도 여러 내용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규정을 마련한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하지만, 특히 아프리카의 꽤 많은 국가들이 유기농업에 관한 법규정을 개발하는 중이다.

10) 유기농 표준 및 규정의 간략한 역사를 확인하려면, www.organic-world.net/rules.html 과 '유기농의 세계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에서 설명한 논문의 이전 버전 확인. 본 자료는 www.organic-world.net/former-editions.html 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전세계 유기농업 법규정 상황

유기농 규정과 규칙에 관한 FiBL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표준을 마련한 국가의 수는 74개국으로 증가하였고, 법 초안을 작성중인 국가도 27개국에 달한다. 유기농 규정에 관한 데이터는 전세계 전문가와 책임 당국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터뷰 및 그 피드백에 기반하여 관련규정 등을 “완벽이행 아님(not fully implemented), 또는 완벽이행(fully implemented)”으로 범주화했다. 약 75% 정도 국가의 전문가 및 해당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응답을 하지 않은 25%의 국가 중 대다수는 유기농 생산에 관한 법규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클지도 모른다.

유기농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거나 또는 규정 초안을 개발중인 국가의 목록은 표 12와 13에 나와있다.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코멘트나 정보가 있으면, beate.hyber@fibl.org로 알려주길 바란다.

표 11. 유기농업 규정 보유 국가

지역	국가	비고
EU 가입 국가(27) ¹¹⁾	오스트리아	완벽이행
	벨기에	완벽이행
	불가리아	완벽이행
	키프러스	완벽이행
	체코 공화국	완벽이행
	덴마크	완벽이행
	에스토니아	완벽이행
	핀란드	완벽이행
	프랑스	완벽이행
	독일	완벽이행
	그리스	완벽이행
	헝가리	완벽이행
	아일랜드	완벽이행
	이탈리아	완벽이행
	라트비아	완벽이행
	리투아니아	완벽이행

11) Council Regulation(EC) No 834/2007(2007년 6월 28일)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라벨에 관한 규정. 기존의 Regulation(EEC) No 2092/92.는 철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7:189:0001:0023:EN:PDF>

표 11. 계속

지역	국가	비고
EU 비가입 국가(11)	룩셈베르크	완벽이행
	말타	완벽이행
	폴란드	완벽이행
	포르투갈	완벽이행
	루마니아	완벽이행
	슬로바키아 공화국	완벽이행
	슬로베니아	완벽이행
	스페인	완벽이행
	스웨덴	완벽이행
	네덜란드	완벽이행
	영국	완벽이행
	알바니아	완벽이행
	크로아티아	완벽이행
	아이슬란드	완벽이행
	코소보	완벽 이행 아님
	마케도니아 (FYROM)	완벽이행
	몰도바	완벽이행
	몬테네그로	완벽이행
	노르웨이	완벽이행
	세르비아	완벽이행
	스위스	완벽이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	터키	완벽이행
	아제르바이젠	완벽 이행 아님
	호주	완벽이행
	부탄	완벽 이행 아님
	중국	완벽이행
	그루지아	완벽이행
	인도	완벽이행
	인도네시아	완벽이행
	이스라엘	완벽이행
	일본	완벽이행
	말레이시아	완벽 이행 아님
	뉴질랜드	완벽이행
	필리핀	완벽이행
	대한민국	완벽이행
	사우디아라비아	완벽 이행 아님
	대만	완벽이행
	태국	완벽이행
UAE	완벽 이행 아님	

표 11. 계속

지역	국가	비고
북남미와 카리브해(18)	아르헨티나	완벽이행
	볼리비아	완벽이행
	브라질	완벽이행
	캐나다	완벽이행
	칠레	완벽이행
	코스타리카	완벽이행
	콜롬비아	완벽이행
	도미니카 공화국	완벽이행
	에콰도르	완벽이행
	엘살바도르	완벽 이행 아님
	과테말라	완벽 이행 아님
	온두라스	완벽이행
	멕시코	완벽 이행 아님
	파라과이	완벽 이행 아님
	페루	완벽이행
	우루과이	완벽 이행 아님
	미국	완벽이행
	베네수엘라	완벽 이행 아님
아프리카(1)	튀니지	완벽이행

출처 : Huber, Napo-Bitantem, 각 나라별 출처는 다음과 같다.

아이슬란드 : www.landbunadarraduneyti.is/log-og-reglugerdir/Reglugerdir/Allar_reglugerdir/nr/79

스위스 : www.admin.ch/ch/d/sr/c910_18.html

인도 : www.apeda.com/apedawebsite/organic/index.htm

일본 : JAS Standards for organic plants and organic processed foods:
www.maff.go.jp/e/jas/specific/organic.html

뉴질랜드 : 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NZFSA)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s: www.nzfsa.govt.nz/organics/index.htm

태국 : Homepage of the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www.acfs.go.th/eng/index.php

볼리비아 : www.aopeb.org/

브라질 : www.planetaorganico.com.br

코스타리카 : www.mag.go.cr/legislacion/

에콰도르 : www.magap.gob.ec/mag01/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56&Itemid=216

엘살바도르 : www.mag.gob.sv/phocadownload/Comunicaciones/OPPS/politica_agricultura_organica.pdf

온두라스 : www.senasa-sag.gob.hn/

파라과이 : www.senave.gov.py/index.php?pag=ampliamos&Cod_noticias=102

페루 : www.senasa.gob.pe/0/modulos/JER/JER_Interna.aspx?ARE=0&PFL=3&JER=134

미국 : www.ams.usda.gov/AMSV1.0/nop

표 12. 규정 초안을 개발중인 국가

지역	국가
유럽(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5)	아르메니아 홍콩 레바논 스리랑카 시리아
북남미 및 카리브해(5)	쿠바 자메이카 니카라과 솔로몬 제도 세인트루시아
아프리카 (14)	부룬디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말리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출처 : Huber, Napo-Bitantem

남아프리카 : www.afrisco.net/Html/Product_Standards.htm

(2)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최근 변화 현황¹²⁾

민간 기관, IFOAM 및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FAO, WHO, UNCTAD 같은 UN 기관들

12) Codex Alimentarius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index_en.jsp)에서 확인. 유기 식품의 생산, 가공, 라벨 및 마케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는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www.codexalimentarius.net/download/standards/360/cxg_032e.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도 분명하고 조화로운 규율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ttee)는 1999년 식물생산 가이드라인을, 2001년 7월 동물생산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동 위원회는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유기식품 국가 규정을 제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별첨 목록은 유기농 식품과 농업에 사용되는 물질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2005년 이후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물질 사용을 위한 기준과 식품가공용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후원하는 식품라벨 국제규격위원회(CCFL, Codex Committee for Food Labeling)의 실무그룹이 개정 작업을 책임졌다.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Committee)는 2009년 7월 CCFL의 제안을 받아들여 별첨 목록을 수정했고, 몇몇 물질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논의되었던 아질산염(nitrite)와 질산염(nitrate), 육류 가공용 아스코르브산염(ascorbate),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인산염(phosphate)등의 물질은 유기식품 코덱스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었다. 2010년, 해충관리를 위한 로테논(rotenone, 시내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 2010년 5월, 미국이 중재한 실무그룹이 결성되어, 코덱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물질에 관한 검토(아마 2년 주기로) 및 필요하다면 다른 규정에 준용될 수 있는 제안들이 예상된다.

현재 EU의 새로운 제안에는 스피노사드(spinosad), 중탄산칼륨(potassium bicarbonate) 및 동옥타산염(cooper octanoate) 등이 포함된다. 덧붙여 감귤류의 녹색을 없애거나, 파인애플 꽃의 발화를 유도하거나, 또 감자와 양파의 싹을 방지하기 위해 에탄올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EU는 새로운 업무의 범위뿐만 아니라 유기 생산물이 의심스러울 때 책임 당국간의 정보교류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토론용 의제를 제시했다. EU가 주창한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영역으로는 수산양식 및 해초생산이며, 이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다.

(3) 유기 생산에 관한 EU 규정

(가) 기본 규칙 개정

2007년 7월, EC 유럽위원회 규정 EC No 834/2007[ECC No 2092/91(유기 생산, 유기 생산물의 라벨 및 철회 규정)의 개정]이 채택되었고(2007년 6월 28일), 2009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¹³⁾. 본 규정은 유기농 생산규정의 목적, 원칙 및 기본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의 추가 집행 명령 등은 생산, 라벨링, 관리 및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2008년 12월 8일 EC No 1235/2008, 2008년 9월 5일 EC No 889/2008, 2008년 12월 15일 EC No 1254/2008). 2009년에 이러한 집행규칙들은 농업 표준 도입과 함께 통합되었다. EU 차원에서 유기와인 제조에 관한 규정이 제안되었으나, 회원국간에 논쟁 후에 EC(유럽 집행위원회)결정으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유기농 포도 이용 와인생산(wine produced from organic grapes)”는 여전히 적용된다.

(나) 개정된 수입 절차

2006년 12월 말에, EU는 유기농 제품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향후 EC가 인정하는 실사기관(inspection body) 또는 당국이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 제품으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EU는 곧 승인을 받은 실사기관(inspection bodies)과 당국뿐만 아니라, 승인을 거친 제3국(third countries) 목록을 발표할 것이다¹⁴⁾.

인증기관이 제3국(Third Countries, 예를 들어 EU 외 지역 국가)에서 자신들의 활동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시한은 2009년 10월 31일부로 만료되었다. 전세계 인증 단체로부터 72개 신청서가 EU로 접수되었다. 새로운 수입 규정에 따라 EU가 승인한 인증기관을 담은 첫 번째 목록이 2011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표가 있는 지 12개월 후 수입허가(Import authorization)가 승인될 것이다. 제3국 리스트(Third Country List)에 따른 기존의 국가 승인시스템은 유지될 것이다.

13) 개정 규정 834/2007과 그 집행 명령은 EUR-Lex website (lex.europa.eu.)에서 확인 가능. EU의 공식 언어들로 작성됨.

14) 세가지 다른 종류의 목록이 발표될 것이다:

1. 유기농 생산에 관한 EU 규정 요건과 동등한 감사 시스템 및 생산 표준을 준수하는 실사기관 목록(2011년 발표 예상).
2. EN 45011/ISO 65에 따라 승인을 받고, 유기농 생산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하는 감사 시스템과 생산 규칙에 준거한 실사기관. 유기농 생산에 관한 EU 규정 준수 조항은 신설된 것임(2013년 이후 발표 예상).
3. EU의 생산 및 실사 규정과 동등한 규칙을 준수하는 생산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목록(EU Regulation 1235/2008 참조). 여기서 말하는 준수(compliance)란 EU 규정을 완벽히 따르는 것을 의미. 예, 종자 데이터베이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생산자 그룹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등성을 통해 현지에서 채택된 접근방식은 인정.

옵션 1)과 2), 실사기관은 EU 가입국가 또는 비 가입국에 둘 수 있다. 옵션 2)와 3), 수입제품은 옵션 1)에 해당하지 않는 실사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옵션 2)와 3), Codex Alimentarius를 동등성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수입규정은 수입 상품에 관한 좀 더 일관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3국(Third Countries)에서 활동하는 실사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향후 승인한 실사기관의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EU 비가입 국가(non-EU countries)가 자체 결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무역관계가 개시되기 전 우선 승인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럽 이외의 국가,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실사기관에서 인증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위험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4) 주요 경제국의 수입 요건

유기 농수산물의 가장 중요한 수입시장은 EU, 미국, 일본이다. 이들 모두는 엄격한 유기 농수산물 수입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의 경우 믿을만한 책임당국이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에 한해 수입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승인에는 반드시 수입국가의 요건에 따라,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a) 수출국과 해당 수입국간에 양자 협정, (b) 해당 수입국가의 인증기관이 직접 수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가) 수출국과 주요 수입국간의 양자 협정

미국, EU, 일본 같은 대부분의 수입국은 양자 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i) 다른 국가의 관리 시스템과 그 표준이 국내 요건과 일치하는지, ii) 이러한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 농수산물을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확인, 선택할 수 있다). 양자 협정은 대부분 정부의 의지 및 정치적 협상에 따른 정치적 협약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기술적 평가에 따라 협정이 이루어진다.

과거 양자협정이 정제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미국과 캐나다간 양자협정 체결에 있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미국 NOP¹⁵⁾ 표준에 따라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생산자와 가공업체는 캐나다 유기 생산물 규정(COPR, Canada Organic Product Regulation) 표준에 따라, 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동등성 결정에 따라 캐나다의 유기 농수산물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CORP 인증을 받은 캐나다 유기농수산물은 미국에서 유기농 라

15) National Organic Programme (NOP) www.ams.usda.gov/AMSV1.0/NOP

벨을 붙이고 판매될 수 있다. 미국 농림부 유기농 씰(USDA Organic seal)과 캐나다 유기농 비오로지크 로고(Canada Organic Biologique logo)는 양국에서 모두 인증된 유기농 산물에 사용될 수 있다. 2009년 6월 30일, COPR은 발효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호주, EU, 인도, 일본과 동등성 협약을 협상 중에 있다.

EU는 현재 9개 국가¹⁶⁾를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인증기관이 미국의 요건에 따라 승인받았을 경우, 비록 미 농무부가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니라도 미국 NOP(국가유기농프로그램)에 따라 미 농무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준의 상호 표준 존중은 승인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NOP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국에서 통용되는 믿을 만한 인증기관이 되는 것이다.

(나) 수입국가의 인증기관 수용

미국, EU, 일본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증기관을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가입비도 꽤 비싸다. 승인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능력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NOP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기농 라벨이 부착된 농수산물은 수입 상품을 포함하여, 모두 US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에 따라 인증기관이 승인을 받으면 미국 인증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NOP 요건에 따라 교육받은 실사기관이 실사를 담당하고, NOP 기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미국 농무부가 승인하는 인증기관만이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미국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거의 100여 개 인증기관이 NOP 요건에 따라 USDA가 승인했다. 이러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5) GOMA 활성화(Facilitating Global Organic Market Access)

세계식량농업기구(UN FA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FOAM,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2001년부터 기준통일과 동등성을 통해 유기농수산물 무역촉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유기농업의 기준통일과 동등

15) National Organic Programme (NOP) www.ams.usda.gov/AMSV1.0/NOP

16)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일본,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튀니지

성에 관한 UNCTAD-FAO-IFOAM 국제 태스크포스(IFT, 2003-2009)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 프로젝트로 노르웨이 개발협력 기구(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가 지원하는 글로벌 유기농 시장 진입(GOMA, Global Organic Market Acc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OMA 프로젝트의 취지는 다양한 규정 및 민간 유기농 보증시스템 간의 유기 농수산물 무역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GOMA는 무역절차 매커니즘으로 유기표준 및 인증 요건의 통일과 동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실질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 대표로 구성된 유기농업의 통일과 동등성에 관한 국제 태스크포스(ITF, the International Task Force on Harmonization and Equivalence in Organic Agriculture)가 국제적 협의를 통해 이러한 틀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과 기술적 규정의 평등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EquiTool, the Guide for Assessing Equivalence of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와 유기 인증기관의 국제적 요건(IROCB,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Organic Certification Bodies)은 모든 정부 또는 라벨제도를 운영중인 민간 기구가 자신들의 요건과 동등한 유기농 표준 및 인증으로 통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 아시아와 중앙 아메리카 유기농업에 관한 남남 협력 촉진

① 아시아 경과보고

- 아시아 지역 유기표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과 통일을 위한 초기 가능성 연구(scoping study)를 준비, 협의 및 발표하였다(UNCTAD/DITC/TED/2010/7).

- 2010년 5월 7일 상해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당시 참여단체들은 아시아 지역 공통의 유기농업 표준 개발을 통해 아시아 유기 농수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천명하였다(언론배포용 UNCTAD Information Note 참조, UNCTAD/PRESS/IN/2010/018).

- 아시아 유기농 라벨 및 무역협력을 위한 제1회 실무그룹 회의(2010년 12월 9-10일 인도 뭄바이)에서 유기농 표준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관한 통일과 동등성 인정을 통한 미래 협력 프레임워크 계획하였다. 본 프레임워크에는 아시아 지역 유기표준 초안 작성그룹(Drafting Group for Asia Regional Organic Standards)의 TOR과 일정표를 작성했으며, 초안 그룹 1차 회의는 2011년 3월 마닐라에게 개최될 것이다.

② 중앙아메리카 경과보고

GOMA는 중앙아메리카 유기농업 규정(Central American Organic Agriculture Regulations) 초안의 개발과 국가간 협의(중앙아메리카 국가 및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원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은 2011년 초 GOMA가 지원하는 정부간 책임당국자 회의(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에 반영될 것이다.

(나) 유기 표준의 목표와 관련 실행요건 협의

Equitoil의 실질적 활용과 통용을 강화하기 위해 GOMA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유기표준의 공통 목표와 요건(Common Objectives and Requirements of Organic Standards)이라는 제하의 별첨 2(Annex 2)를 확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유기농 생산과 가공관련 표준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목표와 요건을 취합한 것이다.

유기농 표준의 핵심 목적과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에서 무역 규제당국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별첨이 개정된 것이다. 즉 개별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구체적 표준에서 자세히 기술한 모든 요건이 전세계 어디서나 100%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동등성은 정책과 연계된 일련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전체적 접근법은 다소 혁명적이다. 표준 준수를 강요하는 준수성과 반대로 동등성의 원칙이 국제무역(유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예는 아주 극소수이다. 따라서 동등성 달성의 영향력은 유기농 분야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개정 별첨에 관한 1차 회의가 2010년에 개최되었다. 2차 회의는 2011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다) 2012년 2월 국제적 통합 및 동등성에 관한 컨퍼런스

2002년 2월, FAO, IFOAM, UNCTAD는 유기농업의 국제적 통일과 동등성에 관한 컨퍼런스를 조직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를 통해 ITF 및 GOMA 프로젝트가 조직화 되었다. 10년 후, 2012년 2월 13~14일에, GOMA는 2012년 BioFach 바로 직전에 Nuremberg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다. 현재 '우수한 농수산물 플로우 구축: 2012년과 그 이후 GOMA(Let the Good Products Flow: Global Organic Market Access in 2012 and Beyond)'이라는 가제가 붙어 있다. 본 컨퍼런스는 세계적 규모로 핵심 정부기관, 민간분야 주체들이 한데 모여 유기농 보증 시스템에 관해 지난 10년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ITF와 GOMA의 결과를 논의하며, 유기농업 및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에 관한 향후 10년간 전략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다.

(6) 2010 전세계 유기농 인증기관 현황

유기농 인증자료집(the Organic Certification Directory)의 제8차 판이 2011년 2월에 출간될 것이다. 본 자료집에는 전세계 유기 인증기관이 기록되어 있다. 과거 본 자료집은 유기표준(the organic Standard)의 특별판으로 출간되었으나,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본 자료집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 특히 두 가지 개선된 점은 유기 표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본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참여적 보증 시스템 단체(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Organizers)의 목록이 포함될 것이다.

(가) 국가 지역별 인증기관의 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증기관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인증기관들이 EU 또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부를 이 지역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총 수는 2009년 489개에서 532개로 증가하였다. EU, 미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에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있다.

자국의 인증기관을 보유한 국가는 83개국이지만, 이외 국가의 생산자들이 인증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된 인증기관 중 다수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사무소를 두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극소수이다(예를 들어, 미국 NOP 하에서 승인이 필요할 때 조차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인증기관은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일부 또는 모든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소수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같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는 여전히 현지 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다. 아프리카에는 단지 12개 인증기관이 존재한다(이집트, 케냐,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와 잠비아에 위치). 아시아에는 165개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및 일본에 있다. 카리브해에 있는 인증기관은 극소수이다. 태평양 지역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에만 인증기관이 있지만, 태평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4. 인증기관이 많은 국가(2008~2009년까지)

국가	2010년	2009년	2008년
일본	59	59	60
UAE	57	55	57
대한민국	33	32	32
독일	32	31	32
스페인	28	28	27
중국(중화인민공화국)	27	29	29
캐나다	21	21	21
브라질	20	20	20
루마니아	18	2	3
인도	17	16	13
이탈리아	15	16	16
영국	12	9	10
폴란드	11	7	7

출처: Grolink 2010

(나) 인증기관 수

2003년 이후 인증기관의 수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빠르게 증가했고, 남미에서는 약간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다. 미국에서 NOP의 도입으로, 처음 몇 년 동안 인증기관의 수가 꽤 빠르게 줄어들지만, 몇 년 후 상황은 안정되었다. 몇몇 국가에서, 특히 중국, 일본, 대한민국에서 유기농 규정의 도입이 이러한 인증기관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 수가 몇 년 만에 떨어졌다.

2010년 동유럽에서 인증기관은 상당히 증가했고,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루마니아는 2009년보다 2곳 증가한 18개 관리기관(control bodies)이 있으며, 폴란드 4개, 영국 3개, 독일 1개가 있다. 덴마크는 정부 인증 시스템을 개혁하여 2개의 신규 인증기관을 창설했다. 아프리카 또한 2개의 신규 인증기관이 탄생했다.

(다) 인증받은 운영자 수

인증을 발행한 운영자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인증기관에게 요청했다. 231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이들이 인증한 운영자 수는 192,272명이었다. 농민의 수에 관해 응답한

표 15. 지역별 인증기관 수(2003년~2009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프리카	7	9	7	8	8	10	10
아시아	83	91	117	93	147	157	164
유럽	130	142	157	160	172	177	180
남미 & 카리브해	33	33	43	43	47	48	47
북미	101	97	85	80	83	78	76
오세아니아	10	11	11	11	11	11	12
총계	364	383	420	395	468	481	489

출처: Grolink 2010

인증기관은 202곳이었다. 인증을 받은 농민은 총 1,215,519명이었고, BCS는 342,000명의 농민에게 인증했다고 답했다. 시장생태학 연구소(IMO, the Institute for Marketecology) 본부에서만 120,000명 이상의 농민에게 인증했고, IMO의 남미 사무소에서는 36,000명의 농민에게 인증했다.

인도는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유기 농민이 가장 많은 국가로 보고되었다. 인도의 경우 인증받은 운영자를 보고한 인증기관이 전체의 절반도 안되지만, 그 수치는 다른 모든 국가보다 많아서 315,000명의 농민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도를 자세히 보면, OneCert India와 Apof Organic Certification Agency에서는 각각 100,000개 농장에 인증을 했고, USOCCA는 51,000개, 그리고 Natural Organic Certification Association에서는 27,000개 농장을 인증했다. Naturland는 50,000개 농장에, Certimax는 거의 30,000개 농장에 인증을 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한 농장이 2곳에서 인증을 받았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예를 들어, Naturland 인증을 받은 농민 중 다수는 IMO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이 두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중요 국가에서 정보제공이 미약했고, 인증기관의 절반 정도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인증 받은 농장의 수는 2백만 곳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라) 총 매출액

대부분의 유기농 인증단체는 자신들의 총 매출액에 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조사에 응한 기관은 단지 80곳에 불과하다. 많은 단체가 10만 유로에서 50만 유로 정도라고 보고했다. Ecocert France는 800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응답한 단체 중 최고액이다.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 CCPB ltd, Suolo e Salute s.r.l., DIO 유기생산물 인증조사기관 (Certification & Inspection Organization of Organic Products), BIOHELLAS SA, 유기 농수산물 조사연구소(IOP, Inspection Institute of Organic Products), Debio, IECA(Institute per la certificazione Etica e Ambientale), bio.inspecta AG, Stichting Skal, Ecocert SA(Ecocert의 국제부) 및 Qualite-France SA 같은 단체들의 매출액은 대략 200만 유로 정도이다. 분명한 것은 전세계 유기 인증분야 총 매출액은 2억 유로 이상인데, 아마 실제로는 이 수치의 두 배 이상일 것이다(4억 유로 정도면 전체 시장 추산 가치의 대략 1% 정도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아마 농민당 200 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임).

(마) 승인

EU에선 승인이 계속 증가하여 인증기관이 182곳에서 214곳으로 증가했다. EU 수입의 대부분은 11.6조(수입업자의 탈퇴 규정 등)에 따른 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6. 인증 기관: 지역별 수와 승인수(2010년)

지역	총계	IFOAM	일본	ISO 65	EU	미국
아프리카	12	3		6	4	1
아시아	165	7	60	20	30	12
유럽	214	11	13	93	184	35
남미 & 카리브해	51	6	4	18	12	10
북미	78	1	17	26	14	64
오세아니아	12	4	6	5	7	6
2010년 총계	532	32	100	168	251	128

출처: Grolink 2010

IFOAM의 경우, 인증기관 5곳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 이중 4곳은 미국, 1곳은 일본에 있다. NOP 승인을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 인증기관은 이집트에 있다. ISO 65 인증은 166개에서 168개로 증가했지만, ISO 65 인증을 취득한 단체는 여전히 전체의 1/3 이하이다. 일본에서 승인 받은 단체는 1곳이 증가했다. 미국 시스템의 경우 128개 단체를 승인했지만, 이중

72곳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단체이다. 5개의 승인(IFOAM, 일본 시스템, ISO 65, EU 시스템, 미국 시스템) 모두 획득한 단체는 단지 10개(이탈리아 4곳, 아르헨티나 2곳, 호주 2곳, 뉴질랜드 2곳)이다. 124개 인증기관은 자체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바) 2010년 참여적 보증 시스템에 대한 정부 인정

전세계에서 참여적 보증시스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검증 받은 유기농 생산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PGS는 지역적 상황에 맞춘 품질 보증 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이다. PGS는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에 따라 생산자에게 인증을 하고,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식 및 정보 교환의 토대 위에 구축된다(IFOAM 정의, 2008년). 몇몇 PGS 이니셔티브는 초기 유기농업 협회들만큼 오래되긴 했지만, PGS 이니셔티브의 창설 비율은 1998년 이래 특히 크게 증가했다. IFOAM과 남미 농생태학 운동(MAELA, the Latin America Agro-Ecology Movement)이 브라질 토레스(Torres)에서 제1회 대안적 인증시스템에 관한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Alternative Verification)을 주최한 직후인 2005년 이후 급증했다.

현재 모든 대륙에 PGS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미와 인도는 PGS 관련 농민의 수 및 중앙 정부의 인증, 지원 측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남미의 경우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PGS를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인도는 2007년 FAO 프로젝트의 내적 지원을 받아 민간분야(NGO)로 구성된 국가 PGS 위원회(national PGS council)을 설립하였다. 유기농업에 관한 인도의 법이 PGS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인도는 최근 내수시장을 위한 자발적 유기농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다른 검증 없이 PGS 검증으로 유기농이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PGS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인정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7) 지속가능 생산물 시장에서 유기농 표준

유기농 분야는 식품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우려 때문에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인증을 받은 상품의 판매가 성장하는 반면, 유기농 분야는 새로운 유기농 시장 진입 주체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례는 인증 받은 열대제품(tropical commodities)에서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Pottes et al. 2010). 본 기고문에선 유기농 라

벨과 기타 지속가능 농업관련 라벨의 경쟁관계는 어떠한지, 또 그 본질은 무엇인지 다루고, 유기농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니셔티브 및 전략적 대응책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 지속가능성 관련 시장의 성장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품질,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표준: 주로 식품 안정성 및 품질 관련 표준(예, ISO, GlobalGAP, 또는 HACCP)

-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표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예, 공정 무역, 유기농 또는 열대우림 동맹(Rainforest Alliance))

B2B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 2010년 전세계 식품 소매 판매의 22%를 차지했다(GFSI, 2010). B2C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경우, 바나나¹⁷⁾는 약 20% 대의 시장점유율을(2009년), 수입 커피 생원두(green coffee)¹⁸⁾는 8%(2009)를 보이고, 코코아¹⁹⁾는 전세계 판매 총액의 약 3%(2009)를 차지한다.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신들의 제품 브랜드에 지속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유통업자들의 전략 변화 때문에, B2C 표준의 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이 경쟁으로 치닫고 있긴 하지만 서로간의 경험을 벤치마킹²⁰⁾하고 표준설정기에 있어 모범사례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기반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또한 확대되고 있다(예, ISO, ISEAL Alliance).

지난 십 년 동안 B2C 표준은 2자리 성장율을 보여 왔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다.

17) The State of Sustainability Initiatives Review 2010: 지속가능성과 투명성(SSi Report). 본 수치는 수출 데이터에 기반

18) 2009년 원두 수출 데이터 기반(SSi Report). 이중 3중 인증의 경우 감안

19) Tropical Commodity Coalition(TCC) Cocoa Barometer 2010. 다중 인증의 경우 감안 안 함.

20) 벤치마킹이란 표준을 제정한 단체들이 다른 표준과 관련하여, 자신들 표준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각각의 표준을 비교하고 벤치마킹된 표준을 동등한 표준(equivalent standard)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친환경 인증 및 윤리적 검증을 자신들의 제품 차별화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개보고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요건을 준수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예,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 또는 크래프트 식품(Nestle or Kraft Foods)).
- 환경친화적 생산 프로세스 보장 및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나) 유기 식품 표준의 여러가지 도전 과제 및 그 대응

‘유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과는 다르다. 첫째, 코덱스 표준에 명시된 것처럼, 유기농이란 ‘총체적 생산관리 시스템’이며 생산 제품 범위에서 제한이 없다; 유기농 시스템은 전세계 160여 개 이상 민간 및 공공 단체가 실행,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유기농 표준은 EU 및 미국처럼 법과 같은 공공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표준은 열대우림 동맹(Rainforest Alliance), UTZ 인증, 또는 공정무역 같은 기타 지속가능성 표준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준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헌 측면에서 경쟁

유기농은 지속가능성 표준에 있어 오랫동안 시장의 리더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열대지역 생산품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절대적 측면에서 유기 농수축산물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표준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기농 라벨과 경쟁하고 있다(Pierrot et al. 2011). 유기농은 환경 표준들에 맞서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아마도 유기농이 환경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적 기여 측면에서 이제는 표준을 두고 경쟁하는 차원을 넘어 몇몇 기업은 자신들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친환경을 강조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²¹⁾, 기업이나 정부가 겉으로는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환경파괴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린워싱은 지속가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유기농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21) 그린워싱의 정의에 관해선, 그린피스의 홈페이지 www.stopgreenwash.org 참조.

② 지속가능성 이슈

‘지속가능한(sustainable)’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더 이상 유기농만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유기농인가 아닌가의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가 ‘윤리적(ethical)’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아동 노동은 배제가 되었는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동식물 보존에 기여하는지 등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농 표준 제정자들의 주요 대응은 유기 농수축산물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타 지속가능성 기준과 유기농 표준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4C 협회(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Association, 커피 생산자를 위한 공동규정협회)를 바탕으로 열대우림동맹 커피표준(the Rainforest Alliance standard for coffee)을 벤치마킹하여, 열대우림동맹 커피 표준을 4C 협회 표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생산자가 이중의 인증(열대우림동맹 인증과 4C 협회의 인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유기농 분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완책으로 이중삼중의 인증을 허용해 왔다. 코코아의 경우 유기농 및 공정무역 인증제품의 15%가 이중삼중으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²²⁾. 커피의 경우 공정무역 인증 받은 제품의 50%가 유기농 인증을 또한 획득했고²³⁾, 유기농 인증은 열대우림 인증과 또 이중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영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마크스앤스펜서(Marks and Spencer)는 세 가지 인증(공정무역, 유기농, 열대우림동맹)을 모두 받은 커피만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③ 프리미엄 라벨

몇몇 제조업체와 유통회사들은 유기농 표준을 활용하는 대신에 지속가능성과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프리미엄 라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커피산업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네스프레소(Nespresso)²⁴⁾라는 커피 브랜드는 유기농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organic)’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용어인 관계로 이들은 비슷한 개념인

22) Tropical Commodity Coalition, Cocoa Barometer 2010.

23) Tropical Commodity Coalition, Coffee Barometer 2009.

24) 네스프레소 지속가능한 품질(Nespresso Sustainable Quality)은 2005년 Nespresso와 열대 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이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다. 특수 커피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Potts et al., 2010).

‘천연(natural)’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Shelton²⁵⁾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과 ‘천연’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너무나 많으며, 심지어 천연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용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Shelton의 포커스 그룹은 또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소수 부자들의 것(elitist)’, 또는 유기농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④ 로컬푸드

‘지역(local)’ 먹을거리는 다양성, 신선함 및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가 낮다는 점에서 유통업체, 유명 요리사 및 정치가들이 널리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유기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의 소비자에게 대안인 것 같다. 몇몇 유기농 라벨은 지역 먹을거리를 중요시해서 항공운송을 금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음을 홍보한다(예. Bio Suisse).

(다) 표준 및 인증 관련 과제

유기농 분야는 수많은 기타 표준 및 브랜드가 생겨나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의 용어였던 지속가능성은 이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도입하고 있다. 유기농 분야는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 표준 제정자들은 서로 다르게 각개 전투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KRAV같은 단체와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은 단순히 유기농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표준은 유기적 생산 및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기는 하지만, 유기농 분야는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표준 및 브랜드와의 경쟁에 무관심한 편이다. EU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이 유기농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그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오히려 유기농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GMO 및 농화학산업을 선호하는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5) <http://www.foodnavigator-usa.com/Financial-Industry/US-consumers-think-natural-is-greener-than-organicsays-survey>

표 17. 기타 표준과 브랜드로 인한 유기 농수축산물의 도전과제

유기농의 도전과제	예	유기농에 대한 위협	유기농 분야의 대응
친환경 주장과의 경쟁	열대우림동맹, UTZ 인증	시장 점유율 하락, 특히 열대 농산물에서 점유율 하락	수동적; 다중 인증시스템 도입
기업의 그린워싱	소고기 생산 콩과 산림황폐화	친환경 주장에 대한 신뢰성 손실로 유기농 분야 성장을 저해	유기적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강조
	공정 노동행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생산물의 경우 위험성 높음	보완적 표준과의 이중/삼중 인증 (공정 무역)
지속가능성 이슈	탄소 배출	위기가 증가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함	윤송기준(KRAV)을 포함. 무역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유기농의 기후적 장점 강조
	동물 복지	낮음	동물 복지에 관한 기준 포함(토양협회, Soil Association)
프리미엄 라벨	넛스프레소 (Nespresso)	이러한 주장 이면에 기업의 힘을 고려할 때, 유기농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위험 존재	수동적 유기농의 장점 강조
로컬푸드	미국과 EU의 지역 먹을거리 운동	무역과 시장 성장을 제한	유럽과 미국에서 지역주의 강화(개발 도상국 수출업자들의 반발)

출처: Authors' elaboration

(라) 농업분야 인증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지속가능성 인증(sustainability certification)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인증을 통해, 약속했던 내용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

다. 어떤 형태의 제품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비즈니스 운영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바른 먹을거리 구매를 걱정하는 소비자,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생산자, 지속가능성 표준기관들 모두 자신들의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FiBL이 진행한 조사(Niggli et al 2011)를 보면, 농업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함께 조사한 다른 라벨들(공정무역, 열대우림동맹이 인증한 지속가능농업 표준, UTZ 인증, 지속가능 야자유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및 책임있는 콩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Responsible Soy))과 비교하여, 유기농 표준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논문의 편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 18. 농업부분에서 4개의 인증 제도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경험적 연구 조사 수(몇몇 표준을 다루는 연구를 각 레벨당 계산)

	공정무역	공정무역	지속 가능한 농업 표준 (열대우림 동맹)	UTZ 인증
환경적 영향력	213	9	8	4
사회적 영향력	22	38	5	4
경제적 영향력	29*	53	9	6
총	240	56	13	6
전문 잡지(peer-reviewed journals)에 실린 연구 논문 편수	213	28	4	2
자기네 표준만 다룬 연구 (몇 가지 표준 연구에 포함 안함)	228	44	2	2

*개발도상국 생산자 관련한 연구만 고려

영향력 조사 연구의 대부분은 유기농업의 환경적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몇몇 지역에선 국가에서 유기농을 지원하는 이유가 유기농 시스템의 환경적 편익이기 때문이며, 또 그 덕에 많은 연구비를 보조받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공정무역에 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중 대다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지속가능농업 표준(열대우림동맹)과 UTZ 인증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영향력 조사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들이 진정으로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결론을 내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가능 야자유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및 책임있는 콩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Responsible Soy)의 경우, 과학적인 영향평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

환경적 영향력에 대하여 관행농업에 비해 유기농업의 광범위한 편익에 관한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식물, 지렁이 및 절지동물 개체군에서 높은 생물다양성이 관찰되고(종은 30% 더 다양하고, 개체수도 50% 정도 더 많음), 공기 및 수질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고,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며, 토양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토양의 유기물질 함유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토양이 된다. 유기농업은 화학합성 투입물(제초제, 살충제 및 합성 비료)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 의약품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금지 조항들은 환경적 악영향을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자체규정 및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농장을 재 디자인함으로써, 유기농 표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을 해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운작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손실이 적은 퇴비를 이용하며, 순환농업을 강화하고, 멀칭, 피복작물, 관목, 야생화, 자연적 재생 토지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열대 및 아열대 생산시스템 하에서는 유기농업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며, 적절한 토양기후적 적응이 필요하다.

인증의 사회적 영향력(예, 농민의 만족 및 협동의 강화)은 계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사례 및 입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서방의 파트너들과 함께 직능별 생산자 그룹에 참여하는 것-종종 유급 트레이닝처럼 외부 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것-은 팀워크 강화, 동기부여, 만족감,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역량강화 같은 긍정적 영향력을 사회에 끼친다.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을 분석한 많은 자료에 따르면, 생산자의 자신감과 만족이 증대하고, 지식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며, 생산자 단체에서 민주적 운영과 참여가 보장된다.

남반구에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의 경우, 조사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이었던 인증 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 시장 접근성 및 무역 관계의 개선이다. 이 때문에 농장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끔은 부차적 한계효과(marginal effect)에 다다른다.

몇몇 주요 논문에서는 과연 극빈층이 유기농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인증제도가 같은 마을 또는 이웃 농촌 마을에서 유기농을 경작하지 않는 가난한 농민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인 공정무역은 시장가격이 좋을 때, 다른 제도에 비해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저가격이라는 것은 전세계 시장가격이 낮게 책정될 때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기농 인증에 있어 경제적인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2년간의 전환기간이다. 전환기간 동안 생산량은 줄고, 유기농 인증의 어떤 프리미엄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전환기가 끝나면,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유기농 인증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증획득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원(재정 및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의 경우 전환기간 내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유기농업의 환경적, 경제적 편익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그러나 서방세계만 강조하는 단점이 있음). 공정무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편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발도상국 농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 연구의 단지 절반 정도만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문 잡지에 게재되고, 대다수 연구는 구체적 프로젝트 참가 농민의 입을 통해 평가되고 있음은 극복해야 할 한계이다. 지속가능한 농업표준(열대우림동맹), UTZ 인증, 및 최근 증가하는 기타 자발적 표준의 경우, 실제 영향력에 관한 조사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라. 각 대륙별 유기농산업 현황과 전망

(1) 아프리카

생물학적 다양성 활용, 생태계 서비스 및 인적 자원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관행과 시스템은 현재 생산을 최적화하고, 농업시스템의 기후적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 IAASTD(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n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 과학, 기술 국제 평가원) 보고서는 GMO 작물을 비롯한 이른바 값비싼 ‘빠른 해결책(quick fix)’ 기술로는 소농 및 농업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IAASTD는 빠른 해결책 대신에 생태적 접근, 적절하고 저비용 기술의 활용, 여성을 포함한 소농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IAASTD 2008).

- 식량권리(Right to Food)에 관한 UN 특별보고서(the UN Special Rapporteur on

Africa: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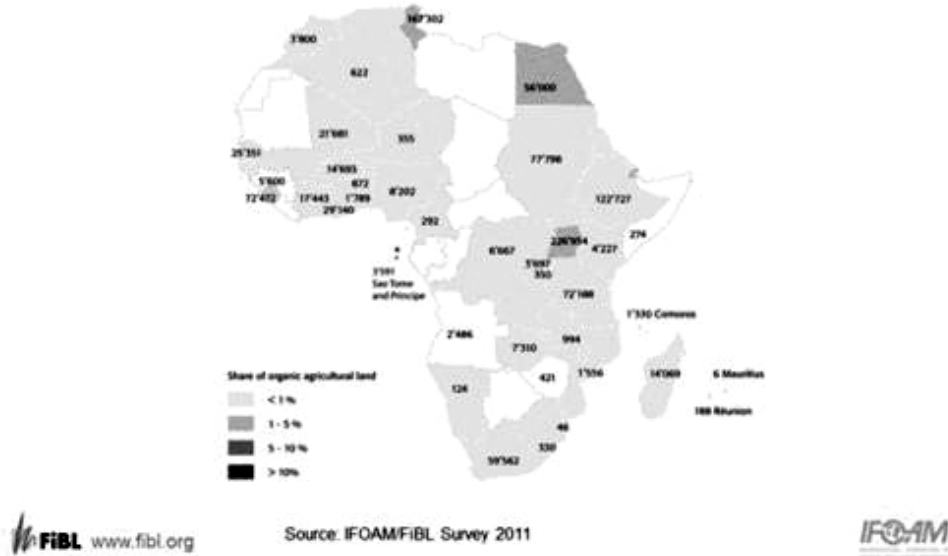


그림 8. 아프리카 국가별 유기농업(2009년)
 (Organic agriculture in the countries of Africa 2009)
 출처 : IFoAM과 FIBL이 정보 취함

the Right to Food)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하루 빨리 생태적 농업 기술을 활성화하여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²⁶⁾.

- UNEP는 글로벌 그린뉴딜(Global Green New Deal)²⁷⁾하에서 국제경제를 개혁하는 5대 제언 중 하나로 유기농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적 농업 시스템은 특히 아

26) 식량권리에 관한 UN 특별 보고서: “농생태학적 접근이 대규모 기업형 농업보다 식량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UN 식량 전문가가 말함(기자회견). 2010년 6월 22일, 브리셀 www.srfood.org/images/stories/pdf/press_releases/20100622_press_release_agroecology_en.pdf에서 내용 확인 가능

27) 글로벌 그린뉴딜(Global Green New Deal): 금융 및 경제 위기에 관한 대응책으로, UNEP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비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세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창설. 자세한 정보는 www.unep.org/greeneconomy/GlobalGreenNewDeal/tabid/1371/language/en-US/Default.aspx참조.

프리카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제시한 여러 해결책들이 아프리카 농업의 산업화 즉, 결국은 값비싸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화학 비료같은 투입물에 의존하는 농업 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은 아프리카에게 식량과 영양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현지 주민이 식량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황폐화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의 자생력이 강화된다. 특히 물 부족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함에 따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한다. 유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 외에도 유기농업은 특히 빈곤을 퇴치하고 농민들에게 국내외 고부가가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Badgley et al. 2006; EPOPA; FAO 2007; IAASTD2008; Ifejika Speranza 2010; Lyons and Burch, 2007; UNCTAD-UNEP, 2008).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유기농업이 가져다 줄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는 무수히 많은 예가 존재한다. 특히 빈농과 그들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케냐에서 현지 농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IRI(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국제 유기농 연구소, www.icipe.org)가 개발한 옥수수 경작의 푸시풀(push-pull) 방법을 통해 생산량이 최대 200% 증가한 반면 화학 살충제와 GMO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의 장점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은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⁸⁾.

- 지난 30여년동안 생물동역학적, 생태적 농업을 진행해온 이집트 SEKEM 그룹은 70ha의 사막을 생산지역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집트는 합성 살충제 사용을 95% 감축할 수 있었다²⁹⁾.

- 에티오피아, 티그리 지역에선 유기적 관리방식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생산 증진, 값비싼 합성비료 사용 감축, 작물 다양성 증진, 농장 자생력 개선, 지하수로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새로운 수입원 창출 등이 그것이다(Edwards et al. 2010).

- EPOPA(the Export Promotion of Organic Products from Africa, 아프리카 유

28) ICIPE(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곤충 생리 및 생태계에 관한 국제 센터): 푸시-풀(Push-Pull): 이남지역의 빈곤과 굶주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농업 기술. 자세한 내용은 www.push-pull.net/works.shtml에서 확인.

29) 자세한 내용은 the Egyptian Biodynamic Association(EBDA)의 웹사이트인 <http://www.sekem.com/english/cultural/EBDA.aspx?PageID=1>에서 확인

기능산물 수출촉진기구를 통해, 우간다와 탄자니아 6만명 이상의 농민들이 산업국의 고가 유기농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좀 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유기농업 관행은 자급자족용 작물 생산으로 변모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하게 되었다(EPOPA 2008).

이러한 프로젝트 중 두 가지가 2010년 원월드어워드(One World Award)의 심사단으로부터 상당한 갈채를 받았다³⁰⁾. 원월드어워드는 이것들이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고무적인 아이디어라고 격찬했다. 한스 루돌프 헤렌 박사(Dr. Hans Rudolf Herren), 레이첼 아골라(Rachel Agola) 및 케냐의 스위스 바이오비전 재단(푸시엔플 방법의 실행기관)이 2010년 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집트 SEKEM Group의 국장인 헬미 아블리쉬(Helmy Abouleish)가 최종 5명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헌신이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 아프리카 유기농업의 확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기농업 관련 데이터 수집이 부족한 관계로, 인증 받은 유기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및 이집트 같은 국가를 제외하곤, 아프리카 유기농업 관련 데이터는 전국유기농업단체연합체(national organic umbrella organizations) 및 인증기관(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같은 민간분야 단체들이 수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보의 가용성과 신뢰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은 대륙 전역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아프리카는 전체 인증받은 유기토지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영문판 234쪽)은 개별 아프리카 국가별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에 따르면, 38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증받은 유기농업에 관여하고 있다(2009년 최종 데이터).

최근(2009년 최종 데이터), 100만 ha 이상의 토지가 인증 받은 유기농 토지이며, 이는 이전 통계조사(2008년)와 비교하여 대략 17만 ha 증가한 것이다. 최소한 50만명의 농민들이 이러한 유기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농지에 주로 다년생 작물, 특히 커피, 올리브 같은 환금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30) 자세한 내용은 www.one-world-award.com. 참조.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농지 측면에서는 22만 7천 ha를 보유한 우간다가 1위이다. 그러나 유기 농지가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사오툼&프린스(Sao Tome and Prince)가 6.5%로 1위이다. 우간다(187,893개 농장)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유기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디오피아(100,000개 농장 이상) 및 탄자니아(85,366개 농장)가 있다.

전체 유기 농지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증가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감소한 국가도 있었다. 유기 농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국가는 시에라리온(Sierra Leone: 71,512ha)과 에티오피아(22,783ha)를 들 수 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마다가스카(Madagascar: 5,845ha)이다. 이러한 변화는 몇몇 프로젝트는 새로 시작되고 몇몇 프로젝트는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나) 유기농 야생채취 지역 및 양봉초지

인증받은 유기농지 100만 ha에 덧붙여, 1,640만 ha의 토지가 유기양봉, 산림 및 야생채취 지역이다. 최대 양봉국가는 카메룬(Cameroon, 600만 ha)이며 최대 야생채취 국가는 나미비아(Namibia, 300만 ha)와 모로코(Morocco, 61만 8천 ha)이다. 악마의 발톱(devil's claw Harpagophytum procumbens)같은 약초가 주로 야생에서 채취되는 식물이다.

① 시장

아프리카 농민들은 다양한 유기작물을 생산한다. 커피, 코코아, 차, 목화, 올리브 같은 현금작물부터 가공과일, 식물성 유지 및 신선과일과 야채 또는 꿀 같은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다.

② 수출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은 수출용이다. 이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농산물의 최대 시장인 EU로 수출이 되고 있다. 우간다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의 수출액은 2009년 미화 3,687만 달러³¹⁾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경우 아프리카는 소농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다수의 소농을 재배자로 조직화하여 충분

31) 미화 1 US 달러 = 0.71895 유로; 2009년 평균 환율. 출처: www.oanda.com

한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형적인 공급망 형태이다. 아니면, 농민들 스스로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협력하여 수출무역 기업에게 농산물을 포장,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우, 9대 주요 유기농산물 수출총액이 2009년 1000만 유로로 추산된다(Kledal & Kwai 2010). 주로 EU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량을 무게로 보면 코코아, 캐슈(cashew), 커피 같은 견과류가 최대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코코아, 캐슈(cashew), 바닐라 및 차가 가장 중요한 수품 품목으로 전체 유기농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③ 내수 시장

아프리카 유기농 시장이 비록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기농 시장은 주로 각국 수도 주변에서 형성된다.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및 유럽 유기농 소비자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중상층 시민들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유기농 신선과일, 야채, 낙농제품, 육류, 와인, 허브 및 퍼스널 케어 제품(personal care product)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선 유기농 전문점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메트로와 까르푸)이 매장 내 유기농 부문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남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및 가나에 유기농 판매점은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내수 시장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잠비아에선 유기농민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지역 농민시장(우리나라 5일장 같은)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도시 슈퍼마켓에 납품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내수시장에 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수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 국가는 거의 없다(예외 국가로는 튀니지의 국가 보고서 참조).

(다) 정부 지원

유기농업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정부로부터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농업 정책에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케냐,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튀니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유기농업이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선 유기농업 정책을 개발하는 중이며, 전국적 유기농업 운동 단체들이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일단 유기농업 정책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 같은

국가에서 유기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적 혜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기농업 정책을 마련하면, 재정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기 농민을 위한 시장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가나같은 여타 국가에선 유기농업의 다중적 혜택 및 국가에서 유기농 분야의 성장을 감안하여, 유기농업을 위한 담당 부서가 농무부 하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담당 부서는 유기농업의 연락처 역할을 하여, 정부와 유기농 산업간의 연계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담당 부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농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관리들은 유기농민의 이익을 좀 더 많이 충족하고 자국의 유기농업 분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유기농업의 비용효과 및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할 때,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국가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생산적인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라) 표준과 입법

EU의 제3국 지위(the Third Country Status)를 확보한 튀니지를 제외하곤 다른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외표준에 기반해 수출을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유기농 제품 수출을 위해 EU 규정을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가가 가장 많으며, 몇몇 농민은 EU 인증 외에도 미국의 NOP 인증 아니면, 일본의 JAS 및 나투어랜드 같은 민간 유기농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기도 한다.

내수시장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표준을 두고 있다. 국가 유기농 표준을 보유한 국가로는 이집트, 세네갈, 튀니지 및 동아프리카 국가들(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및 브루나이)이다. 유기농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과 참여적 보증 시스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을 들 수 있다. 브루키나파소(Burkina Faso), 말라위(Malawi), 잠비아, 짐바브웨 등은 현재 국가 표준을 개발 중이다.

(마) 연구, 확대 및 교육

아프리카에선 유기농업에 전념하는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그러나 연구소, 대학 및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혁신적 유기농 연구의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케냐 ICIPE(the International Center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곤충 생리 및 생태계에 관한 국제센터)
- 케냐 조모켄야타 농업기술대학(the Jomo Kenya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 탄자니아 SUA(the 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 소코인 농대)
- 우간다 마티 대학(Uganda Martyrs University), 아프리카 우수 유기농센터 (African Organic Center of Excellence)
- 튀니지 사우세(Sousses), 유기농업 기술센터(the Technical Center of Organic Agriculture)

아프리카의 경우 전문연구 이니셔티브의 부족이 아프리카 유기농 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장애물이다. 연구부족으로 아프리카 유기농민, 가공업자, 마케팅 담당자의 질문과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바) 전망

유기농업은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국가별, 지역별 정책은 유기농업이 제공하는 소중한 편익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세계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것에 덧붙여 아프리카 대륙 내 유기 농수산물 소비를 위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유기농업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인식증대, 공급망에서 생산자 및 이해 당사자의 협력 증진, 유기농업 연구에 투자 확대, PGS와 같이 소농이 현지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메커니즘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Sida(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청)로부터 자금을 받아 최근에 시작한 IFOAM OSEA II 프로젝트(Regional Cooperation for Organic Standards and Certification Capacity in East Asia, 동아시아 유기표준 및 인증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동아시아에서 유기농 제품의 거래를 촉진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 유기농업 매뉴얼(the African Organic Agriculture Manual)이 일단 완성되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고 아프리카의 유기농 교육관의 역량을 구축하고, 노동자 및 소농이 유기농업의 원칙을 이행하며, 유기농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기농업의 여러 가지 이익과 상대적인 비용 절감을 감안할 때, 유기농업 국가는 유기농업에 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생산적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확대할 있다. 제2차 아프리카 유기농 컨퍼런스(the second African Organic Conference)가 2012년 5월 15~19일 사이에 잠비아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될 것이며, 다양한 논의 및 경험을 공유하는 주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본 회의는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조직하고 유기농 의제를 아프리카 최고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 아시아

(가) 개요

아시아 지역은 초기 개발부터 잘 마련된 규제까지 유기농 분야 발전 시나리오의 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과거엔 유기농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그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출이 여전히 유기농 개발의 주요 특징이긴 하지만, 내수 시장 또한 부상하고 있으며,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발리에서부터 카트만두까지 설립되고 있다. 내수시장 체인 또한 유기농에 투자하고 있다. 내수시장 발전에 여전히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의 기반은 튼튼하다.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여전히 회의론이 있긴 하지만, 유기농 생산 시스템과 유기농 제품의 장점에 관한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유기농이 지역 공동체 및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능력 및 농업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논란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외화벌이라고 하는 틈새시장을 넘어 몇몇 정책 입안자들은 유기농업 원칙을 자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예, 부탄).

공개포럼의 장에서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토론은 현재로서는 아주 드문 편이다. 유기농업이 개발전략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리의 주지사는 오가닉 발리(Organic Bali)를 창설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유기농 섬 캠페인을 필리핀 네그로스(Negros) 섬 유기농 운동 및 인도의 유기농 지역과 연계하였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선 화학비료 사용을 중단하고, 화학비료 수입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

으로 유기농 비료를 개발,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논의와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우선 시장주도 분야에서 정부정책 덕분에 오늘날 유기농 분야가 부상하고, 중요한 개발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내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유기농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및 장점 때문에 시민사회(소비자)는 정부가 유기농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일반 시민이 유기농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유기농 개념에 대한 제도적 고찰이 확립되고 있다. 적어도 12개국의 국가표준이 발표되었고, 2개국 이상은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이다. 유기농 라벨 규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예,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이며, 스리랑카, 네팔 같은 국가들은 정부의 책임당국을 설립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또한 승인시스템을 마련했다.

FAO, UNCTAD, IFOAM의 공동 프로젝트인 GOMA(2010)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유기농

Asia: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FiBL www.fibl.org

Source: FIBLI/IFOAM Survey 2011

IFOAM
The World Organic Alliance

그림 9. 아시아 국가 유기농업(2009년)
출처 : FiBL 과 IFOAM 자료 취합 (2011)

의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의 통일을 위한 범위 연구(the Scoping Study for Harmonization and Equivalence of Organic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내수시장 또한 자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성분 및 완제품의 수입에 달려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기농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작된 정부 규제가 역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무역은 유기농 라벨 규정의 확립과 더불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동등성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자들은 북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한가지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된다. EU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운영자들은 EU와 북미에 수출하기 위해 두 개의 인증(EU용과 미국용)이 필요한 반면, 아시아 내에서 무역을 하려면, 그 이상의 인증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EU 및 미국과 상호 인정 협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내 합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시아가 추후 유기농 붐을 이끌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유기농 시장 및 발전을 위협에 빠뜨릴 여러 제약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역내 수입 규정, 관료주의, 유기농 무역의 높은 비용(이러한 요인은 유기농뿐만 아니라, 관행 농업의 장애 요인이기도 함) 등이다. 아시아 지역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FAO, UNCTAD, IFOAM의 공동 프로젝트인 GOMA가 아시아 지역 유기농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의 통일을 위한 범위 연구(the Scoping Study for Harmonization and Equivalence of Organic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를 시작했다.

(나) 생산 및 시장

① 유기 면적

2009년 유기적으로 관리된 토지는 360만 ha였다. 이는 2007년 290만 ha, 2008년 340만 ha에서 약간 증가한 것이다. 약 20만 ha가 증가하여 성장률을 보면 거의 6% 증가한 것이지만, 2007~2008년 사이에는 17% 증가했었다.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³²⁾.

32) 편집자 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데이터 취합을 잘 이루어지지 않음. 정보 출처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직접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로부터 결론을 내릴 때 주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데이터 정보는 본 책의 부록 참고.

전체적인 유기농 경작지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 NPOP(Indias' 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 유기농 생산을 위한 인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 당국인 APEDA(the 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 Product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농업 및 가공식품 수출개발기구)는 2010년 5월 NPOP 10주년을 축하했다. APEDA 보고에 따르면, 인도의 유기농 경작지는 2008년 거의 120만 ha에서 2009년 118만 ha로 증가했다. 산림지대 또한 279만 ha에서 336만 ha로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개정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기 경작지가 크게 증가한 국가는 필리핀(36,751 ha), 사우디아라비아(16,635 ha), 태국(7,361 ha), 인도네시아(10,000 ha) 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년 연속 큰 증가를 기록했다. 미얀마의 유기농 경작지는 555 ha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유기농 생산자 또한 405,000명에서 72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주로 인도에서 생산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340,000명에서 2009년 677,000명으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중국 제외)에서 생산과 인증의 대부분은 생산자 그룹(grower group)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시아 지역에서 야생 채취는 35개 지역 중 12곳에서 이루어진다. 유기 수산양식 관련 정보를 보고한 국가는 3개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지만, 태국과 미얀마에서도 유기 수산양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유기축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고 몇몇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예, 일본, 대한민국, 대만, 중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의 생산 및 수출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1차 상품(primary products)이다.

② 시장과 무역

대부분 지역의 생산과 무역규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보고에 따르면 인도의 총생산은 170만 메트릭 톤에 달하고, 이중 6만 메트릭 톤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미화로 11,200만 달러에 달한다(유기섭유 및 의류 생산 및 수출 포함). 총생산 성장률은 60%였으며, 수출량은 46%, 수출액은 36% 성장했다. 일본 유기농 시장가치는 2009년 현재 130억~140억 엔(대략 99,800만~11,000 유로로 환산됨³³⁾)였다. OMR(the Organic

33) 1엔 = 미화 0.01070 달러, 2009년 평균 환율;

출처 <http://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Market Research Project, 유기농시장연구 프로젝트)가 최근 일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영어번역본이 없다. 대한민국의 유기농 제품 내수시장의 가치는 2009년 현재 22,600만 유로³⁴⁾라고 보고했다. 비가공 유기농 제품은 10,600만 유로, 가공 유기농식품의 가치는 12,100만 유로였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2008년과 비교하여 각각 30.1% 및 23.3% 증가한 것이다.

표 19. 유기농식품의 아시아 지역 핵심 시장과 수입 지표

응답국가	아시아 지역내 주요 수출 시장	수입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없음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저 (<10%)
라오스	일본, 중국, 대한민국	없음
미얀마	일본, 가능하면 홍콩, 대한민국 및 대만	중하 (10~30%)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상 (>50%)
필리핀	일본, 중국, 대한민국	중하 (10~30%)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하 ((10~30%)
베트남	일본, 가능하면 홍콩, 대한민국 및 대만	중상 (>50%)
네팔	일본, 대한민국, 인도	저 (<10%)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정보 없음
일본	정보 없음	중상 (>50%)

출처: GOMA 2010

GOM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요약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의 성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 산업에 진입하는 중소기업과 새로운 생산라인의 수는 놀라울 정도이다(예를 들어, 발리의 유기농 버섯칩과 네팔의 유기농 아이스크림). 수평적 유기농 바자회, 중소규모 유통업체, 슈퍼마켓, 다양한 수준의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판매같은 다양한 유통경로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의 부국 및 개발도상국 시장의 대부분은 시

34) 1 원 = 0.00065 유로화; 2010년 평균 환율; 1 원 = 0.00056 유로화; 2009년 평균 환율;

출처: 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1 원 = 0.00086 미 달러, 2010년 평균 환율; 1 원 = 0.00079 미 달러, 2009년 평균 환율;

출처: <http://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유기농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라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무역이 성장하고 있지만, EU와 미국으로의 수출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아시아 지역에선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인도 등지에서 총 7차례의 연간 유기농관련 무역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③ 표준, 인증 및 규정

2010년 현재 아시아 지역 6개국(예,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대만)은 유기농 라벨 규정을 개발, 이행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유기농 표준 중 6개 표준은 동물 축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3개 표준은 수산양식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유기농 라벨을 붙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등이다. 말레이시아는 식품 라벨법을 개정하여, 2011년까지 그 이행을 연장했다. 수입인증 규정은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및 대한민국(가공식품의 경우)에서 국회 계류 중이다. 수출용 의무인증은 일본과 인도에서 필요하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은 수출요건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개국(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은 정부기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8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대만, 태국)은 인증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 등록제도를 확립했다. 인도와 일본은 EU와 제3국 인정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USDA의 승인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수립된 기타 시스템이 아직 수출을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인정 기관 및 EU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았거나, US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기관 등이 수출 인증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지 인증기관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국제 인증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다수 민간 및 정부연계 인증기관들이 팀을 구성하여 CA(Certification Alliance, 인증동맹: www.certificationalliance.org)를 통해 실사와 인증업무에서 협업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이러한 협업 시스템은 아시아 지역 9개국(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대한민국, 태국)의 파트너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20. 아시아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증

국가&지역	규제 응용	추가 범위	인정 (Accreditation)	인증기관	심사관	인정 수출/ 수입
인도	수출만, 내수 규제 계류중	축산	의무적(NAB)	국내 18 (외국 5)		EU 제 3국 리스트, USDA 등가
일본	내수/수입	축산 (선택적)	의무적 (ISO65)	국내 59 (40 외부)		EU 제 3국 리스트, USDA 등가
중국	내수/수입	축산/수산	의무적 (NAB)	국내 32 (외국 6)	국가 등록	
대한민국	내수/수입	축산/수산	의무적 (x2 NABs)	국내 32	국가 등록	
대만	내수/수입		의무적	국내 4		캐나다, NOP & 수입의 경우 뉴질랜드
필리핀	내수/수입		의무적	국내 1		
말레이시아	내수/수입		정보 없음	정부 프로그램 1, 국내 1		
인도네시아	국가/민간 표준		자발적	국내 7		
태국	국가/민간 표준	축산/수산	자발적	정부 프로그램 3, 국내 2		
네팔	국가/민간 표준		정보 없음	국내 1		
라오스	국가 표준		정보 없음	정부 프로그램 1		
베트남	국가 표준	축산/수산	정보 없음	국내 1(외국 1)		
스리랑카	민간 표준에 관한 정부 초안		정보 없음	국내 2 (외국 1)		
부탄	국가 표준 초안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캄보디아	민간 표준		정보 없음	국내 2		

출처: GOMA 2010

(다) 과제

아시아 지역 유기농 발전은 막 전환점을 돌고 있는 상태이다. 부국들은 유기농으로 전환

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유기농 발전은 시장기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요약보고에선, 아시아 지역 유기농 발전의 결정적 과제는 민간분야, 시민사회, 공공분야 파트너십의 개발과 그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협업은 정말로 중요하며 필요하다.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유기농 식음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가 유기농 라벨과 역내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력을 체결할 때만이 바뀔 수 있다. 유기농 발전은 유기농 주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GOMA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지역 유기농 시장 잠재력을 발휘할 때만이 가능하다. 시민사회, 비즈니스 및 공공 분야와 협력만이 유기농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규제차원에서 고도로 발전된 규제 프레임워크부터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개발시장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비규제 시장으로부터 제품의 인증을 확인하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 다자간 협의회가 아시아 지역 표준(AROS) 등 모든 규제 시장을 포함하고, EU가 수입시 이 AROS에 준거하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인증기관은 두 가지의 표준(AROS와 북미)에 대해 세 가지의 승인(아시아, EU, 북미)만 받으면 아시아, EU, 북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원스톱 인증(One Stop certification)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EU, 캐나다, 미국이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해당 지역 인증기관들이 단 한번의 승인만으로도 아시아, EU, 북미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기농 운영업자는 단지 자신들의 국가표준 또는 지역표준에 따라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3) 유럽

(가) 생산

① 유기 농경지 및 생산자

유럽 유기 농경지는 2009년에 900만 ha를 넘었다. 930만 ha가 유기농업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농경지의 1.9%를 차지한다. 2000년(450만 ha)와 비교하여, 유기토지는 두 배가 되었고, 2008년과 2009년 동안 전년도와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했다. 거의 백만 ha, 약 12% 증가한 것이다.

Europe: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FiBL www.fibl.org

Source: FiBL Survey 2011

IFOAM
The World Organic Alliance

그림 10. 유럽 국가별 유기농업(2009년)
(Organic agriculture in the countries of Europe 2009)
출처 : FiBL과 IFOAM 2011,

EU 가입국의 경우, 2009년 유기농경지는 840만 ha로 전체 농경지의 4.7%를 차지한다. 2000년(430만 ha)과 비교하면, 유기 면적 또한 두 배가 되었다(EU 27개 가입국 모두 포함). 신규 가입국은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유기면적은 2000년 34만 ha에서 2009년 170만 ha로 400% 증가한 것이다(FiBL 2010).

농경지 외에도 야생 채취, 수산 양식, 농경지 외부의 방목 초지와 산림 등도 인증 받은 지역에 해당한다(FiBL 2010). 핀란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기 야생채취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780만 ha의 면적에서 주로 야생 열매(berry류)를 채취한다. 유기 경작지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기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넘는 국가는 리히텐슈타인(26.9%), 오스트리아(18.5%), 스웨덴(12.6%), 스

위스(10.8%), 에스토니아(10.5%) 등 5개국이다. 유기농 시장규모면에서 세계 2위이자 유럽 1위인 독일은 유기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6%이다.

2009년 유럽 유기농 생산자는 대략 26만명이었던 것에 반해 2000년에는 15만명이였다. 유기농 생산자에 덧붙여, 대략 35,000명의 가공업자와 2,500명의 수입업자가 존재한다.

② 토지 활용

2009년에 모든 농토의 40%가 작물 경작지(arable crops)로 사용되었고(370만 ha), 45%는 목초지(grassland, 420만 ha), 11%(100만 ha)는 다년생작물(permanent crop) 재배에 활용되었다³⁵⁾. 모든 작물군에서 마찬가지로, 재배토지가 증가하였다.

스페인(76만 ha), 독일(51만 4천 ha), 영국(49만 6천 ha)은 많은 초지와 방목지를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면적의 초지를 유기농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생산 방식의 변화도 적으며, 적은 투자로도 충분하다. 초지는 전체 농경지의 약 1/3을 차지하는 관행 농경지보다는 유기 농경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Schaack 2010). 주요 경작작물(arable crop)은 곡물류(cereals)이다. 유럽 유기면적의 19%는 곡물 생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0만 ha에 달한다. 이탈리아(25만 천 ha), 독일(20만 9천 ha), 스페인(18만 4천 ha), 우크라이나(13만 4천 ha) 등이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국가들이다.

유기농 야채재배지는 2009년 10만 3천 ha였고, 주요 야채 생산국은 이탈리아(3만 ha), 영국(1만 6천 ha), 독일(1만 18백 ha)이다.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11%는 다년생 작물재배에 활용되었다(2009년). 주로 올리브(36만 6천 ha), 포도(16만 7천 ha) 및 견과류(16만 ha) 등이 재배되고 있다. 유기농 포도 재배지는 2008년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 주로 스페인에서 유기농 포도 재배지가 증가하여 스페인은 현재 유럽에서 유기농 포도 재배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과거에는 이탈리아였음).

(나) 유기농에 관한 EU 규정 및 정부지원과 연구

① 유기농에 관한 EU의 규정

유기농업은 1990년대 EC 규정(EEC) No. 2092/91이 발표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35) 본 수치는 반올림 한 것, 좀더 자세한 정보는 별첨 참조

시작했다. 2007년 7월 20일, 새로운 유기농 규정 EC(Council Regulation) No 834/2007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EEC No. 2092/91을 철회하고, 유기농 생산과 유기농 제품 라벨에 관한 EC(Council Regulation) No 834/2007을 2007년 6월 28일 상정한 후, 같은 해 7월 20일에 발표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포장된 유기농 제품에서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부가적으로 국가로고 또는 민간 로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010년 유럽 유기농 분야의 주요 발전 중 하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EU 로고의 개발이다. 2010년 1월 1일부로 EU 유기농 로고는 EU 회원국이 생산한 모든 유기농 포장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uro-leaf’ 디자인은 녹색 바탕에 EU를 상징하는 별이 잎 모양을 띄며, ‘자연과 유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정부의 지원

스위스와 덴마크는 1980년에 이미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1989년 독일은 소위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기농 지원책을 도입했다. EU의 환경농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이러한 지원책은 모든 EU 회원국까지 확대되었다(1992년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의 형태와 타입은 EU 회원국마다 다르다. 또한,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EU 비회원국도 유사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26개 국가는 활동계획(영문판 160쪽 Gonzalez et al. 참조)를 마련했고, 이 중 다수는 정량적 목표에 기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2010년 말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를 20%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목표는 2010년 중반 유기농경지가 전체 농지의 19.5%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달성되었다.

2004년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에 관한 유럽 활동계획(European Action Plan)이 처음 선보였다. 본 계획에서 제시한 정보활동(Action 1, EU 차원의 다중 정보의 연례 교류, 소비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학교 및 기타 주요 주체에게 정보 제공 활동 추진)은 2008년 7월 이행되었다. 본 활동의 홈페이지는 유기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농업과 다양한 방법 예, 그림, 유인물 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연구

오늘날 국가 연구 프로그램, 국가 유기농 활동 계획뿐만 아니라 유럽 프로젝트가 유기농

연구 기금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³⁶⁾. 필요한 수치가 전혀 없거나 또는 모든 유럽 국가의 통계 수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RA-Net project CORE Organic³⁷⁾을 구성하고 있는 11개국의 기금은 2006년에 연간 6천만 유로에 달했다(Lange et al. 2007).

1990년대 중반부터 몇몇 유기농 연구 프로젝트의 기금은 EC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에서 마련되었다. 유기농업에 집중하지 않는 몇몇 유럽 프로젝트도 개별 작업패키지(work package)에 따라 유기농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2008년 공표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the Seventh Framework Program)에 따르면, 기금을 받아 유기농업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5개가 있다³⁸⁾.

- CERTCOST(www.certcost.eu): 유기농과 유기농 식품에 관한 인증 시스템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 Low Input Breeds(www.lowinputbreeds.org): 가축 사육과 관리 전략 통합 개발하여, 동물 건강, 제품 품질제고 및 유럽 유기농 및 “저투입(low input)”우유, 고기, 및 달걀 생산 촉진

- OSIS(Organic Sensory Information System: www.ecropolis.eu):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과 소비자 연구를 통해 제품의 감각적 특성(sensory properties 식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특성)의 연구

- 유기농 및 저투입 농업의 생물학적 다양성 지수(BioBio, www.biobio-indicator.wur.nl/UK)

- CORE Organic II : 유럽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법 연구의 초국적 조율(www.coreorganic2.org)

2007년 성공적으로 끝난 제1차 CORE Organic에 기반하여 CORE Organic II가 2010

36) EC(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이 기금을 지원한 프로젝트 목록을 보시려면, www.organic-europe.net/europe_eu/researcheuprojects.asp. 참조

37) CORE Organic(Co-ordination of European Transnational Research in Organic Food and Farming 유기농업과 식품에 관한 유럽의 초국적 연구): 인터넷 주소- www.coreorganic.org. CORE Organic은 유기농업과 식품에 관한 3개년 조율 활동임(2004~2007년). 전반적인 목표는 유기농업과 식품에 관한 유럽의 연구 수준, 적절성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CORE Organic의 성공을 바탕으로, CORE Organic II 프로젝트가 출범

38) EU 기금지원 유기농업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는 the Organic-Research.org homepage at www.organic-research.org/european-projects.html. 참조

년 4월 출범했다. CORE Organic II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국적 연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며, 현재 21개 파트너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CORE Organic의 목표는 유기농 분야의 공동 연구 속성을 규명, 초국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적어도 여러 국가에게 최소 2회 이상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연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를 조직화한다. 또한 기금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2010년 늦은 여름에 시작되었다.

2010년 2월에 TP(Technology Platform) Organic(www.tporganics.eu)의 제2차 중요한 건인 SRA(Strategic Research Agenda, 전략적 연구 의제)가 완성되었다. 본 의제는 연구속성을 강조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제안을 담고 있다. 최근에 TP Organic³⁹⁾의 실행 이행계획(Implementation Action Plan)을 준비 중이다. 본 이행 활동계획은 SRA(Strategic Research Agenda)에서 규명한 연구 속성과 토픽을 어떻게 이행할지 밝히고, 특히 기금 마련 및 활용,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유럽 유기농 시장

2009년 유럽 유기농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성장 폭이 컸다. 전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유기농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일 및 체코 공화국 같은 국가들은 침체를, 영국 및 아일랜드 같은 국가는 쇠퇴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 자릿수 성장치를 기록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2010년 시장은 다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2009년 유럽 시장

2009년 유럽 유기농 시장의 총 가치는 대략 1,840만 유로로 추산되었다. 최대 시장으로 는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를 들 수 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는 유기농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가들이고, 유기농의 1인당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이다.

39) 2008년 12월 브리셀에서 발표된 TP Organics (Technology Platform Organics www.tporganics.eu)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본 플랫폼은 유기농업 연구속성을 규명하고 정책 결정자가 유기농 연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 2008년 12월 TP Organic의 비전이 발표되었고, 기후변화, 식량 안보 같은 전세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기농 생산의 지대한 공헌 및 가능성을 천명.

많은 국가에서 2009년 매출이 이전보다 약간 하락했다. 즉 어느 정도는 경제위기가 유기농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유기농 시장 가치는 12.9% 하락했고, 수요 또한 상당히 하락하고, 유통업체들도 취급 제품을 취소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시장이 침체되었지만, 프랑스, 스위스 및 스웨덴은 계속 증가했다. 2009년 내내 소비자들은 지출에 여전이 민감한 편이었다.

많은 유기농 제품의 가격 하락이 또한 시장가치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동시에 매출량은 증가했다. 유기농 제품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여러 제품에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격이 동시에 하락했고, 가공업체와 무역업체는 원료를 선택함에 있어 더 값싼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2008년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예측치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 데이터를 수정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탈리아 시장은 과대평가되어왔고, 이번에 이를 바로잡았다. 또한 데이터 이력도 수정하였다. 더욱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스페인 내수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장 규모(2009년)가 이전에 보고되었던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데이터를 상향조정하였다. 2008년 유럽의 전반적인 시장 예측치는 이전에 발표된 데이터보다 낮은 수치였다. 2008년 자료를 수정해 볼 때, 유럽의 시장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대략 4~5% 성장했다. 국가간 소매 판매 예측치 비교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 안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전역의 유기농 시장의 정확한 통계치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두고 예측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비록 한 국가차원에서라도).

② 2010년 경향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0년 들어 유기농 제품 시장의 현황이 매출면에서 다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다수 작물의 수확이 저조한 이후 2010년 하반기 들어서는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기농 시장의 제한 요인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몇몇 국가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곡물류, 몇몇 종류의 야채, 감자 낙농 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10년 유럽 전역에서 유기농 시장이 발전하여, 매출량은 한자리 성장을 달성하였다⁴⁰⁾. 시장 주체들은 2011년 유기농 시장에서 한자리 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40) 2010년 수치는 2011년 상반기에 수집 가능. 관련 내용은 www.organic-world.net에서 확인 가능

③ 국제무역 데이터

수출·입, 요식산업을 통한 매출 및 유럽 내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여전히 기록하지 않는다. EC(European Commissio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2010년), EU 회원국간 무역과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EU 대부분 회원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유기농 제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van OSO et al 2008 참조). 수입 의존도(EU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는 특히 EU 신규 가입국에서 높은 편(이 경우 추산치 이용가능)이지만,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은 예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증 받은 가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새로운 신규 EU 가입국에서 소비되는 유기농 가공식품은 종종 EU 초창기 멤버인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2006년 이후, 독일의 가금류, 과일, 야채, 감자 및 합성 사료는 공급이 부족하다. 낙농제품(버터), 곡물류(Hamm, 2009, 2010년 EC 인용)도 2007년부터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다. Agence Bio(2010)에 따르면, 2009년에 프랑스도 유기농 식품의 38%를 수입으로 충당했다. 이중 1/3은 열대 상품, 1/3은 프랑스가 경쟁력 우위를 가지지 못한 제품(양식 어류, 콩, 지중해산 제품 및 기타), 1/3은 프랑스가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제품(곡류, 우유, 육류, 과일, 야채)이 차지하고 있다.

표 21. 유럽 유기농 식품 시장(2009년)

국가	총 매출 (백만 유로)	성장률(2008 /2009(%))	1인 기준 (유로)	시장 점유율(%)	요식업 (백만 유로)	수출 (백만 유로)
오스트리아	868	5	104	6	51	66
벨기에	350	15	32	1.5		
불가리아(2008)	5		1			
크로아티아	37		8	0.8		3
키프러스(2006)	2		2			
체코 공화국	68		7	0.7		4
덴마크	765	6	139	7.2	67	100
에스토니아	12	1	9	1.0		
핀란드	75	1	14	1.0		14
프랑스	3,041	19	47	1.9		
독일	5,800	0	71	3.4	300	
그리스(2006)	58		5			

국가	총 매출 (백만 유로)	성장률(2008 /2009(%))	1인 기준 (유로)	시장 점유율(%)	요식업 (백만 유로)	수출 (백만 유로)
헝가리	25		3	0.3	0.1	20
아일랜드	113		24			
이탈리아	1,500	9	25			
리히텐슈타인	3		100			
룩셈부르크	51		103	3.3(2006)		
몬테네그로(2008)	0.01		0.1			
네덜란드	591	10	36	2.3	56	525(2007)
노르웨이	114	10	24	1.3		
폴란드(2006)	50		1	0.1(2006)		
포르투갈(2006)	70		7	0.5		
루마니아(2006)	3		0.1			
러시아 연방	65		0.5			4
슬로바키아(2008)	4		1			
슬로베니아	34		17	1.0	0.05	0.1
스페인	905		20	0.97		454
스웨덴	698	16	75	4.0		
스위스	1,023	7	132	5.2		
터키	4		0.1			20
우크라이나	1		0.03			
영국	2,065	-13	34		19	

출처 : FiBL, AMI, ORC 연구조사, 다수 데이터 원 중에서 발췌, 밑에 내용 참조
 본 도표 보충 설명: 공개된 데이터가 없는 국가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의 예측치를 활용. 그러나 이러한 예측 수치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는 없음, 따라서 가끔씩 초기 예측 수치를 활용 했음. 각국 화폐로 집계된 수치는 유럽 중앙은행 기준 2009 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유로로 환산⁴¹⁾.

오스트리아: ARGE Bioumsatze; 벨기에: 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불가리아(data 2008): Bioselena; 크로아티아: Darko Znaor/Ecologica; 싸이프러스(data 2006): Ekozept; 체코공화국: Green Marketing; 덴마크: Organic Denmark/ Statistics Denmark/LF; 에스토니아: Estonian Organic Farming Foundation EOFF; 핀란드: Organic Food Finland; 프랑스: Agence bio; Germany: AMI, averdis(for Catering); 그리스(data 2006): Ekozept; 헝가리: Survey of Biokorsar; 아일랜드: Bord Bia; 이탈리아: AssoBio; 리히텐슈타인: KBA; 룩셈부르크: BIOGROS; 몬테네그로(2006): Production of Organic Food; 네덜란드: Biologica, for export data(2007): LEI; 노르웨이: SLF; 폴란드(Data 2006): Ekozept; 포르투갈: Ekozept; 루마니아(data 2006): Ekoconnect; 러시아연방: Eco-Control survey; 슬로바키아(data 2008): Green Marketing; 슬로베니아: Institu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스페인: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Medio Rural y Marino; 스웨덴: SBC; 스위스: BIO SUISSE; 터키 : MARA; 우크라이나 : OFU; 영국: Soil Association. 더욱 세밀한 정보는 부록 참조

41) 유로 평균 환율은 <http://sdw.ecb.europa.eu/browse.do?node=2018794> 참조

(라) 2010년 유럽 유기농 활동계획

유기농 활동계획은 유기농 운동단체와 업계간 수년 간 논의와 회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유기농 발전에 대한 열망, 우려, 희망 및 다양하면서도 발전하는 커뮤니티간의 비전을 반영하는 국가적 지역적 활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유기농 활동계획은 과학적 계획이나 전문가 검토계획이 아니며, 오히려 유기농업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유기농 및 유기농 식품에 관한 발전 정도를 실제 측정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 벤치마크,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집단적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중요 도전과제는 유기농의 진정성을 보존하고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재구축하면서도 유기농업의 성장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① 배경

1980년대 후반 이후, EU에서 유기농업의 발전 동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서 견조한 소비자 수요 및 정책적 지원과 관련이 있다. 첫번째 요소로는 EU 규정 2092/91(현재는 EC 규정 834/2007 및 EC 규정 889/2008과 그 개정판으로 대체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유기농업에 대한 전 유럽 차원의 법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요인은 EU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틀(EC 규정 2078/92와 1257/1999) 안에서 경지면적 기준 직접지불을 들 수 있다.

유기농 활동계획은 유기농 분야발전을 위하여 정책과 여러 조치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활동계획은 각국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중 정책 분야(예를 들어 농업, 환경, 무역) 및 서로 다른 수준의 정책을 통합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 계획은 서로 다른 조치들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반면에 또한 상호 모순적인 정책을 배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활동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병목요인(장애요인)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가 정책 개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활동계획은 유기농 운동의 전략적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럼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행정기관이 마련한 유기농 활동계획이 모든 참여자들이 유기농분야 발전을 위해 해당 활동계획을 이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② 프레임워크

1990년대엔 유기농 활동계획을 마련한 국가가 소수(덴마크와 스웨덴)였던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선 여러 국가 특히 EU 회원국에서 활동계획을 개발했다. 2008년 12월

유럽에서는 27개의 활동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이중 17개는 각 국가차원의, 10개는 유럽차원의 계획이다(Gonzalvez 2009). 2009년 크로아티아에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유기농 활동계획들이 승인되었다(Dalmatia). 여타 국가에선 1차, 2차 유기농 활동계획을 완성 이행한 후에 새로운 활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포르투갈 같은 국가의 경우 활동계획은 마련했지만, 이행한 적이 없다. 이같은 일이 스페인 갈리치아(Galicia)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 발표된 유기농업을 위한 유럽 활동계획(the European Action Plan EC 2004)은 여전히 발효 중이지만, 그 효력이 연장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본 보고서에선 유럽이 기금을 마련한 ORGAP 프로젝트(www.orgap.org, Gonzalvez 2009)에서 취합한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던 도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여기에는 전문가들과 IFOAM EU Group(www.ifoam-eu.org.)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이후에는 IFOAM-EU 회원 중 일부를 선별하여 단문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보 수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표 30을 작성했다.

2008년 말 리뷰 당시보다, 유기농 활동계획의 수는 약간 줄어들었다. 2008년 당시 유럽에서 마련된 유기농 활동계획은 27개였지만, 현재는 26개이다. 주로 동유럽 및 EU 신규 가입국에서 유기농 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부 및 북유럽의 소수 국가들이 새로운 유기농 활동 계획을 마련하거나, 업데이트 하였다. 농촌개발 계획 및 시장의 힘을 통해 유기농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많은 경우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종의 유기농 활동계획을 마련해 왔다. 유기농 활동계획은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다. 영국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유기농 활동계획은 생산과 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

③ 종합

EU 유기농 활동계획(EU Organic Action Plan)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국가별 유기농 활동계획은 농촌 및 일반 공공정책을 조율함으로써, 여전히 유기농업과 식품을 개발하는데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특히 국가, 지역차원의 유기농 활동 계획을 몇몇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여러 조치들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제품의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유기농민이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기농 정책은 농촌 개발 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유럽 유기농 활동계획(2010년)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알바니아	알바니아 농업정책, 유기농 활동계획 및 두 가지 형태의 지원책 포함	2007~ 2013		인증비용의 50%까지 총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올리브 총해 트랩(olive fly trap) 설치 위한 재정 지원
오스트리아	유기농업 활동계획(Aktion sprogrammBiolo gische Landwirtschaft)	2011~ 2013	2013년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비중을 20%로 확대	기금 관련 언급 없음. 목표는 이전과 동일
벨기에 플레밍 지역	유기농업을 위한 플래탕 활동계획 2008~2012 (Strategisch Plan Biologi scheLandbouw 2008~2012)	2008~ 2012	정성적 목표 없음	새로운 정보 없음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현재로선 유기농 활동계획 마련 안됨			
불가리아	불가리아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2007~ 2013	2013년까지 유기토지면적을 8%로 확대	
크로아티아 달마치야 지역(2009년 8월 완성)	달마치야 유기농업 및 식량 생산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	2009~ 2013 (기금 확인 필요)	2013년까지 유기토지 비율을 5%로 확대. 2010년부터 달마치야 생산자의 유기농 실사 및 인증비용의 50% 총당	유기농 제품의 지역 시장 개발. 인터넷을 포함하여 정보 교류 및 판촉활동. 크로아티아 에코 투어리즘 로고를 사용하는 에코샵, 에코 레스토랑, 에코 주말농장 및/또는 에코 호텔 표준 개발. 유기농 제품을 도시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에 판매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체코 공화국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체코 공화국 활동 계획	2010~2015	유기 경작지 비중을 15%로 확대.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토지내 경작지 비율을 3%로 확대, 완전 가공 유기농 식품의 비율을 3%로 확대. 유기농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기농 제품을 60%로, 유기농 식품 소비 연간 20% 성장 달성.	장기적으로 잘 기능하고 경쟁력 있는 안정된 시장 구축, 유기농 생산의 증가, 농업과 가공의 효율적 연계
키프러스	현재 발효중인 계획 없음			
덴마크	현재로선, 유기농업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계획 개발중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유기농업 활동 계획 2007-2013	2007~2013	유기토지를 120'000ha로 확대. 유기농장 200개로 확대 국내 유기농 제품 비중 3%로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	6대 주제 모두에서 세부 대책 마련 (생산, 가공, 마케팅, 교육, 조언 및 정보, 연구, 법제화 및 인증)
핀란드	국가 유기농 전략	2007~2015	매장내 유기농 비중 6%,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로 확대. 민간 전문 식당에서 유기농 사용 비중 연간 15% 성장	
프랑스	2012년까지 유기농업: 유기 면적을 3배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AB: Horizon	2008~2012	2012년까지 유기토지 비율 6%로 확대.	정부기관 구내식당에서 유기농 제품 사용 비중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2012: De nouvelles mesures pour tripler les surfaces)			20%로 확대
독일	연방 유기농업 계획 (Bundesprogramm Ökologischer Landbau)	2단계: 2008~ 2015	유기토지 면적 20%로 확대,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달성 연 도 설정 안함	
그리스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아이슬란드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아일랜드	유기농 활동계획 2008~2012	2008~ 2012	2012년 까지 유기토지 비중 5%로 확대	
이탈리아	유기농업과 유기농 제품을 위한 이탈리아 국가 계획 (Piano d' Azione nazionale per l' AB ei Prodotti Biologici)	2005년 (향후 후 속조치 포함)	정량적 목표 없음	
라트비아	라트비아 유기농 협회 마련 유기농 계획 발전 프로그램	2007~ 2013		
리히텐슈타인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2007~ 2013		
리투아니아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후속 유 기농 활동계획 없음	2006	(이전 활동계획: 유 기농 생산토지 비 중을 5%로 확대)	
룩셈부르크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지만, 논의중			
마케도니아, FYROM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말타	현재로서는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몰도바	농업 및 식품 분야 개발 전략	2006~2015	유기농생산을두 배로증가&인증받은토지면적을 세배로증가	
몬테네그로	이용가능한 정보 없음			
네덜란드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 방안 (Beleidsnota biologische landbouwketen 2008-2011, Biologische in verbinding, perspectief op groei)	2008~2011 4,920만 유로 (이전 계획: 2005~2007 및 2001~2004)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지출비율 연간 10% 성장. 유기농 토지 연간 5% 성장. 유기농업 연구 할당 연구기금 5%로 확대	
노르웨이	2020년까지 유기농 비율 15% 확대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Handlingsplan for a na malet om 15 pst. Okologisk produksjonog forbruk I 2020Okonomisk, agronomisk-okologisk)	2010~2020	2020년까지 15% 달성	
폴란드	유기농업위한 폴란드 활동 계획 (Plan Działń dla Żywności Ekologicznej i Rolnictwa w Polsce na lata 2007~2013)	2007~2013, 구체적 기금 없음	유기농장은 100% 증가, 전체 농장 중 유기농장 비율은 EU 차원에서 3%	정성적 목표 없음
포르투갈	(초안)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활동 계획(여전히 이행되지 않음)	2004~2007 총 2천만 유로로 예측됨	유기면적(orgánicosur face)은 3.2%에서 7%로 증가 유기농민의 비중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유기농 제품의 비중을 증가 유기농 작물의 다변화와 종류 증가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0.25%에서 1%로 증가	제품생산 비용 및 최종 소비가격 감소 유기농 분야 참여 기업의 수 증가
러시아 연방	이용가능한 정보 없음			
세르비아	유기농 발전을 위한 국가 활동계획	2011~2014	2014년까지 50,000ha로 증가	
슬로바키아 공화국	유기농업을 위한 활동계획	2011~2013 (이전 2006~2010)	유기농 농지 5%, 인증 받은 유기농 제품 30% (국내 시장)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유기농업 발전 (Načrt dolgoročnega razvoja ekološkega kmetijstva Plan of Long-Term v Sloveniji)	2005~2015	유기토지 면적 20% 슬로베니아 자체 생산 유기농 소비 10% 유기농 시장점유율 10% 유기농장 비중 15% 유기농 관광 농장 3배로 확대	
스페인	유기농업을 위한 통합 활동 계획 2007-2010 (Plan Integral de Actuaciones para el Fomento de la AE)	이전 계획 2007~2010 3,580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음	지난 행동 계획이 2007년에 시작된 것처럼 2011년에 몇몇 활동 계획이 예상
스페인 앤달루시아	유기농업을 위한 앤달루시아 활동계획 II (II Plan Andaluz de AE)	2007~2013 38,410만 유로 (이전: 2002~2006)	정량적 목표 없음	정성적 목표 없음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유기농 활동계획II (Plan estrategico de Agricultura Ecologica)	2010~ 2013 2,400만 유로(이 전: 2007 ~2009/ 1,470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 음 (2011년 5백8 십만)	명확하진 않지만 2011년에 계획이 시작됨
스페인 카스티라 라만차	유기농업 활동계획 ((Plan estrategico de la Agricultura Ecologica 2007~2011)	2007~ 2011 2,91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음	
스페인 카탈루냐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을 위한 활동계획(Plan de accion de alimentacion y agricultura ecologicas)	2008~ 2012 3,680만 유로	2012년까지 유기 면적 30% 증가 유기농 소비 50% 증가	정성적 목표 없음
스페인 마드리드 공동체	농촌개발 계획과 유기농 생 산(Plan de Desarrollo Rural)	2007~ 2013 490만 유로	현재 유기 면적 을 10' 000ha로 두배 증가	RDP (농촌개발 프로 그램)을 재조정
스페인 에스트레 마두라	유기농 식품 및 제품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유기농 활동 계획(Plan estrategico de apoyo y fomento de productos agroaliment arios ecologicos)	2008~ 2013 310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행
스페인 갈리시아	유기농업을 위한 개발 계획 (Plan estrategico de apoyo y fomento de productos agroalimentarios ecologicos)	2008~ 2013 3,940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음	현재로선 이행 안됨
스페인 바스크 지방	유기농업을 위한 개발 계획 (Plan de Desenvolvimento da Agricultura Ecologica)	2009~ 2012 110 만 유로	정량적 목표 없음	

표 21. 계속

국가	활동계획 명칭	기간/기금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스웨덴	Action plan Regeringens skrivelse 2005/06:88: Ekologisk produktion och konsumtion - Mal och inriktning till 2010	2006~2010 연장에 관한 정보 없음	2010년까지 유기 토지 면적 20%로 확대 공공 기관 식당에서 유기농 식자재 사용을 25%로 확대	
스위스	현재로선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음			
터키	발효중인 유기농 활동계획 없지만, 유기농 분야의 제안은 존재		2013년까지 총 경작지의 3%를 유기토지로 전환	
우크라이나	이용가능한 정보 없음			
영국 잉글랜드	유기농업과 식품 개발을 위한 농식품 환경부(Defra) 2개년 활동계획. 본 계획이 2007년에 종료된 후,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 안됨	2010년 까지	2010년까지 전체 유기농 소비의 70%를 국내에서 생산	목표 달성
영국 웨일즈	웨일즈 지방 제2차 유기농 활동 계획 2005~2010	2005~2010	2010년까지 유기농 토지 비율 10~15%로 확대	새로운 계획이 현재 개발 중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신 유기농 활동 계획	2011~2017 (이전: 2007년에 연장)	논의중	
영국 북부아일랜드	북부 아일랜드: 행동계획 2006. 종료 후 새 계획으로 대체 안됨	이전 2006~2008	정량적 목표 없음	

- 알바니아 : E. Leksinaj, Tirana University, Tirana, Albania
- 오스트리아 : Thomas Fertl, BioAustria, Linz, Austria,
오스트리아 활동계획 : lebensmittel.lebensministerium.at/filemanager/download/15083/
- 벨기에 유기농업을 위한 플래망 활동계획 : <http://lv.vlaanderen.be/nlapps/docs/default.asp?fid=92>
- 불가리아 활동계획 : http://www.mzh.government.bg/Articles/661/Files/NOFAP_FINAL_en%5B1%5D633523253955781250.pdf
- 크로아티아 달마치야 지역 : Ranko Tadic, Eko Liburnia, Rijeka, Croatia
- 체코공화국 : K Dyrtrtova, Bioinstitut, Olomouc Czech Republic, www.bioinstitut.cz
체코 활동계획은 www.agronavigator.cz/ekozem/attachments/AP_angl.pdf에서 확인 가능
- 키프러스 : Glykerios Glykeriou, 이메일 glykerios@greennetwork.com.cy. 그린네트워크 무역상사 (Green Network Trading Ltd.) 4C Asfaleias, Lakatamia, POBox 12070, 2340 Lefkosia, Cyprus
- 덴마크 : Kirsten Lund Jensen, Landbrug & Fodevarer, Copenhagen, Denmark, www.lf.dk/Oekologi.aspx
덴마크의 경우, 현재 발표중인 활동계획은 없다. 그러나 EU농촌 개발 프로그램 틀 하에서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s), 연구 자금, 정부의 유기농 seal(세일) 보호 정책 등 다수의 유기농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로션, 유기농업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계획이 개발 중이다. 정부의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유기 농경지를 최소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생산의 증가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수요 및 공급 측 정책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에스토니아 : Merit Mikk, Estonian Organic Farming Foundation, Tartu, Estonia
- 핀란드 : Elisa Niemi, Finnish Organic Association <http://www.luomu-liitto.fi>
- 프랑스 활동계획 : <http://agriculture.gouv.fr/agriculture-biologique-horizon>에서 확인 가능
- 독일 활동계획 : <http://www.bundesprogramm.de>
- 그리스 활동계획 : staff of DIO, Athens, Greece, www.dionet.gr
- 아일랜드 활동계획 : <http://iofga.org/wp-content/uploads/OrganicFarmingActionPlan.pdf>
- 이탈리아 활동계획 : http://www.inea.it/statigeneralibio/normativa/Piano_Azione_nazionale.pdf
- 리투아니아 연락처: Gerda Abraityte, Sector of Organic Products, The center of Agricultural Information and Rural Business, LT-53361 Akademija, Kaunas district, Lithuania: see also paper by Gerda Abraityte on http://www.pesticidi.net/pdf/Organic_market_in_Lithuania.pdf
- 말타 : the Mediterranean Organic Network MOAN, c/o IAM Bari, Bari, Italy
- 몰도바 활동계획 : <http://www.worldbank.org/eca/pubs/envint/Volume%20II/English/Review%20MOL-final.pdf>
- 네덜란드 활동계획 : <http://library.wur.nl/WebQuery/biola/lang/1862044>
- 노르웨이 : Gerald Altena, Debio, Bjorkelangen, Norway, www.debio.no
노르웨이 활동계획 : http://www.regjeringen.no/upload/LMD/Vedlegg/Brosjyurer_veiledere_rapporter/Handlingsplan_okologisk_200109.pdf
- 폴란드 : Dorota Metera, BIOEKSPERT Sp. z o.o., Warszawa, Poland, www.bioekspert.waw.pl/
폴란드 활동계획 : www.minrol.gov.pl/pol/content/download/20815/109351/file/Plan_dzia%C5%82a%C5%84_dla_RE_2007-2013.pdf
- 포르투갈 연락처: Irina Maia, Interbio. Interprofesional Association of organic agriculture, (interbio.designetico.org)
- 세르비아 활동계획 : <http://www.minpolj.gov.rs/download/Organic%20Agriculture%20in%20Serbia1.pdf>
- 슬로바키아 활동계획 : <http://www.mpsr.sk/en/index.php?start&language=en&navID=27>
- 스페인 정보제공 :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 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스페인 활동계획 : http://www.mapa.es/es/alimentacion/pags/ecologica/plan_integral.htm
- 스페인 엔델루시아 정보제공: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 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앤델루시아 활동계획 : http://www.juntadeandalucia.es/agriculturaypesca/portal/export/sites/default/comun/galerias/galeriaDescargas/cap/produccion-ecologica/libro_plan_ae.pdf
-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정보제공: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 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카스틸라-라만차 정보제공: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 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카스틸라-라만차 활동계획 : <http://www.jccm.es/cs/ContentServer/index/plan1212675892212pl/1193045270019.html?site=CastillaLaMancha>
 - 스페인 카탈루냐 정보제공: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SEAE). Cami del Port, 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카탈루냐 활동계획 : http://www20.gencat.cat/portal/site/DAR/menuitem.eac543e46c6fe3edc9877a10b0c0e1a0/?vgnextoid=5deae99d7708110VgnVCM1000008d0c1e0aRCRD&vgnnextchannel=5deae99d7708110VgnVCM1000008d0c1e0aRCRD&newLang=es_ES
 - 스페인 마드리드 공동체 정보제공: v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마드리드 공동체 활동계획 : www.mapa.es/desarrollo/pags/programacion/programas/Madrid/PDR_madrid_v323nov09.pdf 참조
 -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 정보제공: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 활동계획 : <http://eci.juntaextremadura.net> 참조
 - 스페인 갈리시아 정보제공 :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 /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페인 바스크 지방 정보제공 : Victor Gonzalez,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 Cami del Port,S/N. Km 1. Edif ECA Pat Int 1, Apdo 397, 46470 Catarroja, Spain
 - 스웨덴 활동계획 : <http://www.regeringen.se/content/1/c6/06/04/96/07b5265d.pdf>
 - 스위스 : Hans Ramseier, Bio Suisse, Basel, Switzerland, www.bio-suisse.ch
 - 터키 활동계획 : organicconference.elkana.org.ge/files/conf/g/1.pdf and www.agr.hr/jcea/issues/jcea8-2/pdf/jcea82-12.pdf
 - 영국 잉글랜드 : Prof. Dr. Lampkin, Organic Research Centre Elm Farm, Newbury, Berkshire RG20 0HR, UK, www.organicresearchcentre.com
 - 영국 웨일즈 활동계획 : <http://www.organiccentrewales.org.uk/strategy-actionplans.php>
 - 영국 북부아일랜드 활동계획 : <http://www.dardni.gov.uk/minutes-of-organic-action-plan-group-northern-ireland-meetings>

(4) 증남미

(가) 유기농 토지의 증가

유기농 경작지가 2008년 약 810만 ha에서 2009년 약 860만 ha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남미 총 경작지의 1.4%를 차지한다. 유기토지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경제위기에도 많은 농민 생산자들이 유기농업을 대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유기농 토지가 크게 증가했다(30만 ha 이상 증가, 이런 유기토지는 주로 양방목용으로 활용).

Latin America/Caribbean: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그림 11. 중남미 국가들의 유기농업(2009년)
출처 : FiBL과 IFOAM 2011,

보고에 따르면, 남미 국가(칠레, 페루) 및 중앙아메리카 국가(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유기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유기 경작지 외에도 유기 수산양식에 4,500 ha, 야생채취에 850만 ha의 유기면적이 존재한다. 남미의 유기 경작지(야생채취/수산양식/산림지역 제외)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기농경지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Las Malvinas), 프랑스령 구아나(French Guyana)와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멕시코는 유기농장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뒤를 이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의 순이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국가들의 평균 농장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예, 멕시코 2.8ha), 남미 국가에서 특히 남미 공동시장(Mercosur)⁴²⁾ 무역 블록에 가입한 국가

에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수집된 토지 활용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면,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초지이다⁴³⁾. 이러한 토지의 8%가 바나나, 코코아, 사과 같은 다년생 작물 재배에 이용된다.

남미의 유기농 생산증가가 모든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성장률을 보면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유기농 표준이 열대우림동맹 표준 또는 조류보호표준 및 공정무역 표준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 중 일부는 합성물질 사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선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 생산방식을 약간만 수정해도 되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공정무역 또는 '지속가능한' 제품 가격보다 항상 높은 것도 아니다.

- 기후변화 영향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쿠바, 아이티, 자마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같은 국가의 경우, 허리케인, 홍수 및 신종 병충해의 피해가 심각하다.

- 병충해와 질병의 피해 또한 크며, 아직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Monilia Pod Rot(Moniliophthora roreri)는 코코아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균성 질병이다. 이 질병에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는 남미 북서쪽(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포함) 및 중앙아메리카 남부지역(니카라과에서 파나마까지, 코스타리카 포함)까지 광범위하다. 아시아 감귤류인 psyllid(Diaphorina citri)는 Huanglongbing(또는 감귤그린병: citrus greening)이라 불리는 박테리아성 질병을 야기한다. 이러한 질병은 쿠바 브라질 유기농 감귤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도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 제3자 인증의 품질은 서로 다른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기관마다 상당히 다르며, 몇몇 경우, 단작(monoculture)도 유기농으로 인증 받기도 한다.

42) Mercosul or Mercosur(포르투갈어: Mercado Comum do Sul, 스페인어: Mercado Comun del Sur, 영어: Southern Common Market)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의 지역 무역 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1991년 the Treaty of Asuncion(조약명)을 통해 설립되고, 1994년 Treaty of Ouro Preto(조약명)을 통해 업데이트 되었다

(출처: Wikipedia, en.wikipedia.org/wiki/Mercosur; 2010년 1월 18일)

43) 브라질과 볼리비아의 경우, 토지 활용에 관한 정보 취합 불가능.

- 유기농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농민들은 내부 관리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조직하고 여러 협회를 통해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농민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여전히 수출 위주의 유기농 시장

남미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 북미, 일본으로 수출된다.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특히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제철이 아닌 농산물이다. 작년에 공정 무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많은 남미 국가에서 농산물은 유기농과 공정무역의 라벨을 붙여 생산, 판매되고 있다. 건강한 국내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도전과제이다. 내수시장이 없으면, 유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 PGS가 내수 시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수 남미 국가에서 PGS의 성공사례(Joelle Katto 글 참조, 영문판 82쪽)가 있지만, 남미 내수 시장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 분야 조율의 부재(예, 많은 국가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음), 지속가능성 운동단체(예, 소비자 단체, 생물다양성 보호 단체)간의 조율 부족, 유기농 분야의 낮은 가시성, 특히 소비자의 낮은 인식, 국가 유기농 시장을 개발, 증진하는데 있어 중앙 정부의 무관심, 유기농 제품 라벨의 혼용(예, 자연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유기농 라벨 부착) 및 인증 시스템들이 장애 요인이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콜롬비아, 페루 같은 국가에서 국제 무역, 해외 투자, 정부, 협력기관 등이 앞장서서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커피, 카카오, 열대 과일 같은 농산물과 주스, 사탕수수, 꿀, 견과류 및 향신료 같은 가공식품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 수출 프로젝트는 대규모이고 기술적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자기 민족들이 구매시장을 구성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보통 현지회사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수출하는 유기농 제품의 대부분은 소농 그룹이 생산하고 있다.

소농그룹은 복잡성과 효과성에 따라 가치사슬에 맞춰 조직화되고 있다. 농민 조직(예, 협회, 협동조합, 마케팅 단체)의 힘과 역량이 남미 대륙 전역의 다수 성공 사례의 핵심 요소이다. 제3자 인증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충족하기 위해 조직화된 이러한 소농그룹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은 현지의 자연자원 관리, 행

정관리 인프라 개선 같은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 지역 국가적 수준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신선 과일과 채소(Fresh fruits and vegetables): 다수의 남미 국가들은 수확한 과일을 유럽과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 브라질은 사과와 포도를 수출한다. 칠레의 경우 키위 수출 시장이 번성하고 또한 랍스베리(Raspberries)와 딸기 같은 부드러운 과일(soft fruit)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멕시코, 콜롬비아, 온두라스 및 도미니카 공화국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및 기타 열대과일을 수출한다. 아르헨티나는 사과, 배, 감귤류 무역을 주로 하고, 멕시코는 사과, 감귤류, 아보카도 등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말린 채소 및 신선 채소 분야에서 막강한 수출국이다. 게다가 코스타리카 및 기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도 이보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신선채소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바나나(Bananas): 전세계에 바나나를 수출하는 주요 남미 국가로는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등도 바나나를 수출한다. 유기농 바나나 수출에 관한 최근 성공사례는 북부 페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선 농민 한 명당 평균 1ha 정도 경작하고 있는 소농들이 그룹을 결성하여,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고, 현지 중개인과 다국적 기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했다 (북부 페루의 사막지대 기후는 습한 열대 지역에선 창궐하는 심각한 병충해의 위협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커피(Coffee): FiBL/IFOAM 조상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커피 재배 국가이다. 전세계 최대 슈퍼마켓과 커피숍에 납품하고 있다. 생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멕시코 커피의 대부분은 소수의 토착 원주민 농민이 재배, 수확한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과테말라와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아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상당한 양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림 황폐화의 소중한 대안으로 부상한 생태적 산림 관리 시스템에 따라, 커피 생산이 일차적으로 정의된다.

파인애플(Pineapple): 유기농업에 관한 EU 규정과 미국 NOP가 파인애플 꽃을 피우기 위해 에틸렌(ethylene) 사용이 허용하였다. 따라서 여러 남미 국가에서 파인애플 재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기농 파인애플 생산의 장애 요소는 파인애플의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조악한 품질이다. 파인애플 주스의 공정 무역 시장 조사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부족하여, 시장이 늦게 개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견과류(Nuts): 남미에서 생산되는 중요 유기농 견과류는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에서 생산되는 브라질넛(Brazil nut)과 파라넛(Para nut)이다. 아마존 지역에서 이러한 견과류를

채취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역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국가에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같은 목적(야생 채취)으로 활용된다.

코코아(Cocoa): 코코아는 중앙아메리카 전역과 남미의 열대 지역 소농들의 중요 수입원이다. 유기농 코코아 및 공정무역 코코아와 관련된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온두라스와 니카라과 포함). 멕시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는 내수시장용 유기농 초콜릿(Pacari, Kallari, Kaoka 등)을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코코아 부가가치를 높였다. 카카오 생산의 75%는 ‘chocolates finos y de aroma’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코코아 생산은 기본적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가족형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커피의 경우에서처럼, 유기농 코코아의 생산과 수출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에서 불법 코코아잎 재배의 대안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와인과 주류(Wines and spirits):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유기농 와인 및 종종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의 주요 생산국가이다. 남미 유기농 주류시장 또한 형성되고 있다. 멕시코의 데킬라(tequila), 메즈칼(mescal), 쿠바의 럼주(rum)같은 전통주를 국내 및 수출시장에 판매하려는 마케팅 개발 이니셔티브들이 마련되어 있다. 페루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피스코(pisco, 포도주스를 증류한 전통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유기농 카차자(cachaza, 사탕수수로 생산)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술들은 인증 로고, 원산지 또는 지리적 정보 등을 함께 명시한다. 멕시코의 데킬라와 페루의 피스코도 마찬가지이다.

허브와 향신료(Herbs and spices): 오레가노(Oregano Origanum, Lippia 및 기타 속에 속하는 다양한 종을 총칭)는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식물이며, 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에서 생산된다. EU, 미국,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는 기타 유기농 식용식물로는 사향 장미(musk rose, 주로 칠레산)와 예바 마떼(yerba mate, 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에서 재배)가 있다. 수출되는 유기농 향신료로는 소두구(cardamom, 중앙아메리카 재배)와 칠리고추(chili pepper,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재배)가 있다.

곡식과 곡물(Grains and cereals): 파라과이는 유기농 대두의 막강한 생산국이며, 더불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유기농 옥수수와 밀을 생산 수출한다. 퀴노아(quinoa)와 아마란쓰(amaranth)같은 안데스 지방 곡식은 볼리비아와 페루의 소중한 유기농산물 수출원이다. 몇몇 남쪽 국가에서 유기농 곡식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GMO 콩과 옥수수 재배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설탕(Sugar):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기농 설탕 생산국이다. 소농들은 생협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제당시설을 보유, 관리한다. 브라질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수십만 ha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육류(Meats):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며 유기농 육류 내수시장 또한 탄탄하다. 우루과이와 브라질도 유기농 육류를 상당히 많이 생산한다. 심지어 브라질 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 육가공 공장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도 유기농 육류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주로 국내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남미 유기농 육류생산 발전의 한 가지 큰 장애물은 주요 소비자(유럽과 미국)가 맛 좋은 최고 부위(안심, 등심 및 엉덩이살 부분)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위는 유기농 육류가 아니라 일반 육류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밖에 없다.

영양제, 기능성 식품 및 약초(Nutraceuticals, functional food and medicinal plants): 중남미 지역에선 풍부한 이러한 제품들의 개발 및 수출 경향은 새로 도입된 EU 규정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둔화되었다.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로는 maca(페루산), guarana(브라질 산), stevia(파라과이 산), sacha inchi(페루산), una de gato(페루와 볼리비아 산), Aloe vera(멕시코산) 등이 있다.

(다) 유기농 보증 시스템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는 EU 제3국 지위(Third Country status)를 획득했다. 다른 남미국가들은 승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얻어야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구매자가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 또는 유럽 기업들이 남미의 많은 유기농 수출제품을 인증하고 있기도 한다.

미국의 OCIA(the 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유기농 작물증진 협회)와 FVO(Farm Verified Organic, 농장검증유기농), Naturland, BCS Oeko-Garantie, Control Union 및 시장생태계연구소(the Institute for Market Ecology)가 중남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이다. 또한 Ecocert, Bioagricert, Ceres 등도 중남미에서 인증 업무를 진행한다. 몇몇 국가에서 효과적인 국가규정의 제정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인증기관은 이러한 국가에 전국사무실을 설치하고,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

거의 모든 중남미 국가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언어권으로 현지 인증기관을 가지고 있

다. 몇몇 잘 발달된 국가 인증기관이 존재하는데, 예로는 아르헨티나의 Argencert, Letis, OIA(Organizacion Internacional Agropecuaria), 브라질의 Instituto Biodinamico, 볼리비아의 Bolicert, 페루 및 기타 국가의 Biolatina를 들 수 있다. 기타 인증기관으로는 Ecologica(코스타리카), Bio Nica(니카라과), Biotropico(콜롬비아), Maya Cert(과테말라), CertiMex(멕시코)가 있다. 우루과이에는 Urucert와 SCPB(Sociedad de Consumidores de Productos Biologicos)가 있다. 바이오라니타(Biolatina)는 중남미 지역 차원의 유일한 지역 인증기관으로 중앙 사무실은 페루에, 또 각국에 관리소를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현지 인증기관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은 유기농 생산에 관한 국가차원의 규정을 마련했다. 볼리비아는 유기농 생산에 관한 집행명령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는 1992년 국가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브라질은 유기농업에 관한 법과 규정을 가장 늦게 통과시킨 국가 중 하나로 장기간에 걸친 전국적인 토론과 참여적 프로세스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 현지 유기농 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금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유기농 관련 국가법 및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의 '식물보호' 장에서 책임당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인증기관은 현지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인증기관, 운영업자 및/또는 심사관의 국가등록이 시작되었다.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유기농 제품 국가 로고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EU의 제3국 리스트(EU's Third Country list) 등재 신청을 마쳤지만, 승인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엔 이러한 등재가 늦어짐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유기농 발전이 더뎠고 있다. 왜냐하면 몇몇 정부 당국은 EU 등재 후 기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남미는 제3자 인증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농산물이 유기농임을 입증하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을 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민간 기관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PGS의 다양한 예를 중남미 대륙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규정은 PGS를 수용하고, 페루, 멕시코, 우루과이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PGS는 현지 시장개발에 필수적이며 유기농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PGS에 관한 Joelle Katto의 보고 참조, 영문판 82쪽).

그러나 몇몇 국가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허용되지 않고 유기농 제품의 판매를 위해선 제3자 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중남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ISO-

65에 따른 제3자 인증기준이 중남미 생산자들에게 완전히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 방법이 추후에 개발·촉진될 필요가 있다.

(라) 정부 지원

남미 농업경제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 당국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여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기농업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미 국가에서는 유기농업의 발전부터 공식 수출기관을 통한 시장진입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존재한다. 몇몇 국가들은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여러 남미 국가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는 유기농 관련법을 제정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유기농 발전과 관련 규정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 절차를 시스템에 통합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농업 관련 법 규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기타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여, 신용, 연구, 확장, 농촌마을 개발 같은 핵심적 영역 개선에 애쓰고 있다. 동시에, 농민 조직이 중남미 지역 대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및 농민협회의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에 AECID(스페인)의 지원으로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⁴⁴⁾의 특별 프로젝트인 AFAC(Agricultura Familiar Agroecologica Campesina de la Comunidad Andina)가 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전략으로 소농을 위한 유기농업을 양성하는 것이다. 안데스 공동체 사무국에서 진행한 몇몇 활동들 중에는 농경제적 접근에 따른 생산적 프로젝트를 위한 공개모집(open call)이 있다.

IFOAM의 남미/카리브해 그룹인 GALCI를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보고서 작성을 위임했다. 본 보고서의 취지는 안데스 지방 국가 유기농업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소농의 성공사례를 발굴하며, 소농과 함께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및 정책통합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이

44)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스페인어(Comunidad Andina))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같은 남미 국가로 구성된 무역 블록이다. 1996년까지는 안데스 협정(Andean Pact)라고 불렸지만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Cartagena Agreement)이 조인되면서, 안데스 공동체가 되었다. 본부는 페루 리마에 위치한다.

며, 유기농 단체와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소농에 초점을 맞춘 유기농업 개발을 위한 정책결정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예, 좀 더 포괄적이고 국가가 채택한 유기농 규정, 연구, 기술지원, 데이터 정보 등을 위해 활용).

이러한 종류의 정부 지원은 또한 아르헨티나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무부(Ministry of Agriculture, SAGPyA)의 농산업시장국(the Agroindustry and Markets Sub Secretary, DNA: Direccion Nacional de Agroindustria)은 연구활동 및 부가가치 전략을 강조하면서 유기농업을 개발할 목적으로 PRODAO(Proyecto de Desarrollo de la Agricultura Organica Aregentina, 아르헨티나 유기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

IICA⁴⁵⁾와 정부협력 차원에서 100% 유기농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PROCISUR (Programa Cooperativo para el Desarrollo Tecnologico Agroalimentario y Agroindustrial del Cono Sur)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정부 연구기관을 통해 유기농 연구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Organic Platfor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활동으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훈련, 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 수단 강화 등이 있다.

칠레와 코스타리카 유기농 현황에 관한 정보 및 양국의 정부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Pilar Eguillor Recabarren의 칠레 국가보고서(영문판 191쪽)와 Roberto Azofeifa의 코스타리카 보고서(영문판 194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 교육, 유기농 확대, 연구 조사

남미의 여러 대학들, 농업학교 및 자문 서비스 기관에서 교육, 자문, 연구 서비스를 교육 시설 또는 직접 농업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Asociation Biodinamica는 농업 현장에서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Agruco와 Agrecol은 여러 해에 걸쳐 유기농 확대 활동을 펼치고 식량 안보와 농민 특히 안데스 지역 농민의 지식 축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유기농업에 대한 역량 구축과 교육은 주로 NGO, 농민단체, 교육기관, 농생태 (agro-ecological) 학교들이 담당하고 있다.

45) IICA(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on para la Agricultura, 영어는 The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농업에 관한 협력을 위한 아메리카 대륙내 연구소) : 아메리카 역내 시스템(the Inter-American System)의 특별기관으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회원국이 농촌개발과 농촌 주민의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몇몇 농업대학은 농생태학과 및 유기농 생산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페루의 라 몰리나 국립농업대학(La Molina National Agrarian University), 쿠바의 Las Vilas 또는 INCA(Instituto Nacional de Ciencias Agricolas), 멕시코의 Chapingo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은 유기농 기업관리(Organic Company Management)에 관한 학사학위 프로그램(degree program)을 시작했고, 멕시코 푸에블라(Puebla)의 아나하옥(Anahauac) 대학은 유기농 생산에 관한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in Organic Products)이라는 석박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남미와 카리브해 생산자 및 연구자 유기농 회의(the Producers and Researches Organic Meeting)는 이미 유기농 분야의 플랫폼을 마련했다. 2010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NPE(National Association of Organic Producers, 전국 유기농 생산자협회)가 조직한 지난번 회의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차기 회의는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며, 남미 유기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며,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회의와 더불어 남미와 카리브해 유기농 생산자박람회(Organic Producers Fair)가 개최되어, 약 250여개 전시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북미⁴⁶⁾

(가) 주요 발전 상황

2011년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유기농 제품의 목록에 대해 미국은 통상코드(trade code)를 채택했다. 2011년 1월 현재, 미국은 수출입된 유기농산물의 추적을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캐나다는 수입 유기농산물 추적을 해오고 있지만, 수출 농산물은 아니다.

새로운 미국 통상 코드에는 20개 수입품목과 23개 수출 품목이 포함된다. 유기농 수입 코드는 미국 국제통상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웹사이트, 미국 세관의 관세 분류번호(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기농 수출코드는 미국 인구조사 사무국(US Census Bureau)의 스

46) The Canadian information was sourced from Matthew Holmes, Executive Director of the Canada Organic Trade Association(COTA), www.ota.com/otacanada.html, and Anne Macey, Canadian Organic Growers, www.cog.ca

North America: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그림 12. 캐나다와 미국의 유기농업(2009년)
출처: COG(Canadian Organic Growers, 캐나다 유기농 재배자 연합)과 USDA

케줄 B(Schedule B)에 통합되어 있다.

캐나다는 2007년 초에 통상 분류 코드(harmonized trade codes)를 통해 수입 유기농산물의 추적을 시작했다. 수입 유기농산물의 경우 처음에는 41개 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코드⁴⁷⁾를 이용하여 추적하였으나, 현재는 65개 품목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EU와 동등성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EU와 미국과 캐나다 중 한 국가가 유기농 관련 동등성 합의를 하게 되면, 이는 북미와 유럽간 개방 및 무역, 접

47) 관세품목 분류표(tariff nomenclature)의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코드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기구)가 개발 보유해온 무역 품목을 분류하기 위해, 품목과 수치를 표준화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근성 증진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2010년 5월 초에, OTA(the Organic Trade Association, 유기농 무역협회)는 미국과 EU간의 동등성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였다. 본 태스크 포스의 임무는 두 무역 파트너간의 유기농 제품 동등성 토론회 제기되는 문제를 감시, 분석,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 및 유기농 시장 잠재력에 관한 업계의 입장을 미국 해외농업청(U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과 미 무역대표부 사무소(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 제공하는 것이다.

북미에선 캐나다 유기농사무소(Canada Organic Office)와 미국 NOP의 대표자들이 만나서 미국-캐나다 동등성 규정(the US-Canada Determination of Equivalency)에서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완료했다. 이는 미국-캐나다 동등성 협약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USDA의 NOP는 현재 2009년에 USDA로부터 승인받은 인증기관들이 발행한 인증 사례에 관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거의 32,000건이 담긴 리스트에는 해외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키워드 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운영자 이름, 인증기관, 인증서 발행 번호, 인증의 1차/2차 범위, 국가, 주 및 생산 농산물 및 제품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COTA(the Canada Organic Trade Association, 캐나다 유기농 무역협회)는 2010년 3월 캐나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적 장기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캐나다의 유기농 분야를 확대하고, COTA 국제 활동기금으로 대략 3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10년 9월 유기농 연구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는데, 정부기금 형태로 650만 캐나다 달러⁴⁸⁾와 업계 지원조로 미화 22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그 결과 마련될 '유기농 과학 클러스터(Organic Science Cluster)'에는 10개의 소주제로 캐나다 전역의 약 45개 연구기관에서 5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0여개 연구활동이 포함된다. 유기농 과학 클러스터는 연구 및 시험활동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유기농 작물생산에서 어떻게 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에너지 효율적인 유기농 온실 개발,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경운 생산, 유기작물 관리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의 개발 등을

48) 1 캐나다 달러 = 0.63046 유로, 2008년 평균 환율

출처: 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연구한다.

OACC(the Organic Agriculture Center of Canada, 캐나다 유기농업센터)가 유기농 과학 클러스터를 조율, 관리하고 있으며, 캐나다 유기농연맹(the Organic Federation of Canada)의 행정적 지원을 얻고 있다.

(나) 생산

가장 최근의 미국 경작지 면적에 관한 통계는 2008년 자료만 입수 가능하다. 2008년 공식적 통계 수치는 미국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경제연구청)에서 발표했는데, 전체 유기면적은 480만 에이커(109만 ha)에 12,941개의 인증 받은 유기농장이 있다. 미국 전체 경작지에 비해 유기농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08년 전체 경지의 0.7%, 전체 목초지와 방목지의 0.5%가 유기면적이었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Barbara Hauman이 작성한 미국 국가보고서 참조).

캐나다의 경우 2009년 1차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인증 받은 농장은 201개 증가하고, 총 유기농 운영자는 3,914명으로 증가해서 1,718,468 에이커(695,463 ha)를 경작하고 있다. 519,474에이커의 토지(210,231 ha)는 야생수확 및 목초지용으로 활용되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Matthew Holmes 와 Anne Macey가 작성한 캐나다 국가 보고서 참고).

북미의 일부로 여겨지는 버뮤다 제도(the island of Bermuda)는 대략 50에이커의 유기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증 받은 지역은 하나도 없다. 유기적으로 재배한 과일, 채소, 가축의 주요 생산업체는 버뮤다 사우스햄턴(Southampton) 소재 왓슨 농장(Wadson's farm)이다. 유기농법을 활용하는 소농이 또한 소수 존재한다.

그린랜드(Greenland)와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근처, 캐나다 동쪽 해안 근해 생피에르&미클롱(the Territorial Collectivity of Saint-Pierre and Miquelon) 또한 북미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러한 국가들에 유기농 생산에 관한 정보는 확인 불가능하다.

(다) 유기농 제품 판매

2009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무역협회의 2010년 유기농 산업 조사(the Organic Trade Association's 2010 Organic Industry Survey)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제품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사실 2009년 유기농 제품 매출은 전반적으로 5.3% 증가하

여, 미화 266억 달러⁴⁹⁾에 달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유기농 식품의 시장 가치는 미화 248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식품시장의 3.7%에 달했다. 나머지 18억 달러는 비식품분야 유기농 제품이 차지했다.

캐나다의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은 캐나다 유기농 시장 무역 및 소매 매출에 관한 201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기농 식품의 2008년에도 매출을 분석한 동 보고서는 캐나다 전체 유기농 시장이 20억 캐나다 달러⁵⁰⁾의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10년 이후에는 북미 유기농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라) 지지 노력

미국과 캐나다 모두 유기농 분야는 정부차원에서 유기농 인식확산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교육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TA는 2010년 1월에 의사당 및 청사 건물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워싱턴 사무소를 처음 개소했다. 또한 법조 및 홍보 매니저(Legislative and Advocacy Manager)를 고용하여 전국적인 차원에 OTA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4월에 OTA는 지금까지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 컨퍼런스와 의사당 방문의 날(Hill Visit Days)를 개최하여 최근의 유기농 정책 결정을 검토하고, 행정부에서 제공한 새로운 뉴스를 공유하며, 2010년 유기농 관련한 획기적 발전을 축하했다. 또한 의원 및 의사당 직원과 일대일 대담을 가졌다. 2011년에는 워싱턴 DC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것이다. OTA는 또한 소비자 웹사이트(www.OrganicItsWorthIt.org)를 통해 소비자 교육을 시작했다.

캐나다의 경우, COTA와 COG(Canadian Organic Growers, 캐나다 유기농 재배자연협)의 독창적 계획인 제1차 전국 유기농주간(National Organic Week)을 10월 중순에 개최했다. 여기에 약 250여개 지역 및 소매 파트너가 참여하여 매장 내 판촉행사, 입법리셉션, 영화상영, 수확 후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식사(community harvest meal), 공개강연, 유기농장 현장 답사, 유기농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레스토랑 및 유서 깊은 호텔에서 멋진 저녁 하기 등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전국 유기농 주간 동안에 COTA는 또한 'Globe

49) 미화 1 달러는 0.71895 유로(2009)였고, 2010년에는 0.75464 유로. www.oanda.com에 따른 평균 환율 기반

50) 1 캐나다 달러 = 0.63046 유로, 2008년 평균 환율;

출처: 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and Mail' 신문의 특별 기고란을 통해 웹사이트(www.OrganicBiologique.ca)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 표준관련 이슈

2010년 미국 유기농 표준의 큰 발전 중 하나는 USDA가 최종적으로 목초지 규정을 채택한 것이며, 이는 6월 중순에 발효되었다. 목초지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반추동물은 적절한 사료를 섭취하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쬐어야 하며, 또한 생활 조건이 쾌적해야 한다. 최종 규정에 따라 유기축산 운영자는 동물 방목 기반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즉, 동물은 잘 관리하고 방목시즌 동안 동물들을 목초지에서 능동적으로 방목하고, 이러한 확실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소 방목 기간은 적어도 120일이며, 날씨와 기타요인에 따라 가축 방목일자는 바뀔 수 있다.

한편, 매장에서 'organic'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퍼스널 케어 제품(care product)에 관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OT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퍼스널 케어 제품에 유기농 라벨에 관한 의무적 연방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NOP에게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 표준을 개발 채택할 것을 종용하면서도 OTA는 이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OTA는 '새로운'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표준은 기존의 민간표준의 장점과 몇몇 제품에 인증을 해온 NOP 유기농 표준의 장점만을 통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캐나다에선 유기 수산양식의 표준 초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2010년 10월 오타와에서 처음으로 표준 기술 위원회가 열려 수렴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전 기간, 사료, 항생제 사용, 버퍼 존, 수자원과 환경적 영향, 야생종과의 교잡, 사육두수 및 비율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기술위원회는 해양식물, 지느러미 물고기, 어패류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가 유기농협회, 소매채널협회, 소비자 단체, 정부 및 연구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 결국 유기농 수산양식규정은 캐나다 유기농 제품 규정 2009(Canada's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of 2009)를 통해 규제 시스템 하에서 도입될 것이다.

(바) 기타 이슈

2010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의 유기농업 및 유기농 제품은 유전자 변형 작물, 특히 GE(genetically engineered) 알팔파(alfalfa)와 사탕무(sugar beets)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기농 산물과 유전자 변형 작물간의 공존에 관한 논의가 강화되면서, 현재 USDA 정책 하에서 유기농 분야는 GE 작물 경작 때문에 유기농 작물이 오염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농업 및 응용경제학 협회(Agriculture &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가 발행하는 식품, 농장, 자원에 관한 전문가 검토 잡지인 Choices에 실린 논문에서 USDA 경제연구소(USDA's Economic Research)의 선임 경제학자인 Catherine Greene와 행정관 Katherine Smith는 유기농 작물과 GE 작물간의 공존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Greene과 Smith에 따르면, 'GE 작물의 생산은 우발적 오염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농 생산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GE 작물과 유기농 작물간의 공존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 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이 GE-작물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물리적으로 농장간의 거리를 두는 것과 농산물 선별이 유기농의 진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현재 모든 시장의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미국 유기농 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 비적절하게 초래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경우, GE가 유기농 및 비 GE 농업(non-GE agriculture)과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초, 의원 입법법안이 연방하원(House of Common)에 제출되었다. 법안 C-474(Bill C-474)은 새로운 GE 종자가 상업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캐나다 수출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요구한다. 본 법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고, 정부 결정을 기각하고,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추가 분석과 관련자 증언을 위해 농업과 농식품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House Standing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AgriFood)에게 필요작업을 위임했다.

(사) 전망

따라서 여러 예측에서 북미의 유기농 분야는 GE 작물과의 공존에서 오는 도전 과제에 계속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천연(natural) 라벨', 또는 수많은 기타 에코 라벨과 반대로 유기농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기농 산업 업계가 2011년에 다루게 될 이슈들이다. 북미에서 유기농 산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홍보에 능동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 유기농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 관해 소비자 및 관련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다.

(6) 오세아니아(호주를 중심으로)

(가) 산업 규모

1990년대 초반,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면적은 15만 ha, 생산자는 1,990명으로 추정되었다(Hassal과 Associates 1995). 2009년에 유기면적은 12,001,724 ha로 증가했다고(Mitchell et al. 2010) AQIS(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호주 검역 검사청)이 발표했다. 이는 2008년 호주 전체 농경지인 41,730만 ha의 2.9%를 차지했으며(FAO 2010), 인증 받은 유기농 생산자는 2,129명에 달했다. 2007년부터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면적은 약간 증가했고(2007년 11,988,044 ha), 생산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2007년

Oceania: Organic agricultural land by countr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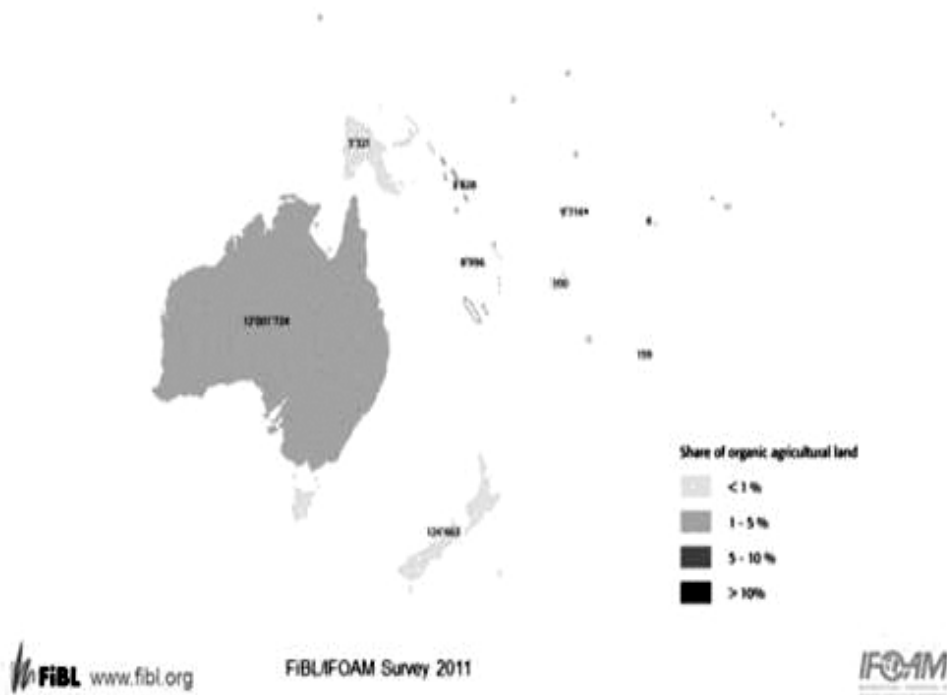


그림 13.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 유기농업(2009년)
출처: FIBL과 IFOAM이 정보 취함

1,776명이며, 지난 2년 동안 생산자 수는 거의 20% 증가)⁵¹⁾.

전체 인증 받은 면적 중 광활한 방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에 97%였다는 추정⁵²⁾ (Wynen, 2007)이 2009년에도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1,200만 ha가 방목지로 활용되며, 거의 36만 ha는 비목초지로서 전체 관행농업 면적의 대략 0.6%를 차지했다⁵³⁾. 목초지는 대부분 조방축산으로 활용된다. 좀 더 집약적인 농장에서 재배된 제품은 호주 유기농업 생산에서 항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런 집약식 농장이 호주 전체 유기농에서 적어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2001년까지 현황에 관한 전체 산업 분석데이터를 보면, 8,900만 호주달러⁵⁴⁾에 달하는(관행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산물 포함) 전체 농산물 판매 가치의 38%만이 소고기 및 양고기 제품(주로 목초지에서 생산되는)에서 발생되었고, 곡물과 원예작물이 각각 1/4씩 차지한다(Wynen 2003). 즉, 브로드에이커(broadacre, 곡물과 식용유지)와 원예 분야가 그 해 유기농 생산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⁵⁾. 2009년에 쇠고기 및 양고기 기업의 추산가치는 전체 농산물 매출 가치의 21%만을 차지했다(섹션 3 참고).

(나) 표준 및 인증

최근까지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품을 위한 호주 국가표준(Australia's 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ts, 1991년 채택)에 따른 인증은 호주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유기농 제품에만 필요했다. 이러한 수출품은 AQIS가 인정한 인증기관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관들은 자체 표준을 운영하거나,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준거로 국가표준을 활용하기도 한다.

2009년 10월,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품을 위한 호주 표준(Australian Standard

51) 2007년과 2009년 데이터는 OGW 조사 수치도 포함. 이전 보고서에선 2007년 제외.

52) 정보 제공에,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ustralia(www.nasaa.com.au) 와 the 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www.bfa.com.au) 가 도움을 줌.

53) 2003/2004년 동안 밀, 기타 작물, 혼합 브로드케어, 낙농 분야는 6천만ha. 원예 분야는 제외.

54) 2010년 11월 후반에,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와 거의 비슷한 가치였음.

55) 2003년 이후로 몇몇 조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전체 인구 분석보다 훨씬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업의 수입 측면에서 업계의 보충자료로서 2003년 데이터 기반한 계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ection 3 참조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ts)이 채택되어 Standards Australia(SA, 호주표준원)이 발표하였다(AS 6000).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표준은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호주 기업 및 소비자 위원회) 같은 호주의 규제당국이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법(무역관행법: Trade Practices Act 등)을 활용하여, 호주에서 유기농 또는 바이오다이나믹 라벨로 판매되는 제품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표준은 또한 수입 유기농산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의무 또는 자체 규제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표준은 일종의 공동 규제시스템으로서 유기농 분야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다.

호주표준(Australian Standard)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업계와 AQIS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증기관(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과 업계 전체 이해당사자들(호주표준: Australian Standard)의 두 가지 표준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두 배로 든다. 따라서 인증기관들과 AQIS는 임시방편으로 현재의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 사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 시장

유기농 제품의 매출은 2000년 초에 8,900만 호주달러인 것으로 추산되었다(Wynen 2003)⁵⁶⁾.

표 23. 호주의 유기농 생산 가치(2000년~2009년)

연도	총 (Mill ASD)	거래 농산물		소매 총 (Mill ASD)	
		쇠고기(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 %)	과일, 채소, 곡류(전체중 차지하는 비 중, %)		
Wynen (2003)	2000/1	89	36	51	106.5
Halpin (2004)	2003	140	40.9	49.5	
Kristansen et al. (2008)	2007	231.5	13.7	57.7	623
Mitchell et al. (2010)	2009	223.2	15.4	58.2	947

56) 전체 인구의 80% 이상 데이터 기반, 2000/2001년 관행 제품으로 판매된 유기농 제품도 포함.

2002년과 2010년 사이에 세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 조사(Mitchell et al. 2010)는 2009년 농산물 시장 가치가 22,320만 호주 달러⁵⁷⁾이며, 쇠고기 시장가치는 3,450만 호주 달러라고 추산했다⁵⁸⁾. 이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농산물 시장이 성장(또는 안정화)했음을 보여주지만, 소고기의 경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상당한 변수가 있다. 소고기만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 시장 가치는 2005년에 6천만 호주달러에 달했다(Wynen 2006). 과일, 채소 및 곡류가 전체 유기농 시장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러한 차이가 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변화인지, 아니면 샘플 선정방식이 달라서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예로 Wynen(2003) 연구는 전체 인구 대비 데이터 기반 추산치이며, Halpin(2004), Kristansen과 Smithson(2008), 및 Mitchell et al(2009)는 연구결과를 외삽(extrapolation)한 추산치이다⁵⁹⁾.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날씨의 변화(지난 5년 동안 호주 동부지역의 경우 심각한 가뭄의 피해)가 상대적 결과에 틀림없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호주에서 판매된 유기농 제품의 소매 가치는 상당히 증가했다. Wynen(2003)은 2000/2001년 유기농 소매시장 가치가 10,650만 호주달러⁶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Kristansen과 Smithson(2008)의 추산에 따르면, 그 가치는 2007년에 62,300만 호주달러였다. Mitchell et al.(2010)은 직접 소매업자들을 조사하여, 그 가치가 2009년에 94,700만 호주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수치에는 유기농 시장과 관행농산물 시장에서 팔린 유기농 제품의 매출액을 포함한다(2000/2001, 대략 1/3).

(라) 정책

유기농 식품이 국민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학교 유기농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수 학교들도 이에 동참하

57) 1 호주달러 = 0.56599 유로(2009년); 2009년 연평균 환율;

출처: <http://www.oanda.com/lang/de/currency/average>

58) Wynen(2003) 과 Halpin(2004)는 유기농과 관행 시장에서 판매된 유기농 제품 포함. 이후 두 연구는 관행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배제.

59) Halpin(2004)연구의 응답률은 26.3 % / Kristiansen 과 Smithson(2008)의 응답률은 25.4 % / Mitchell et al.(2009)의 응답률은 16.4 %.

60) 이는 아주 대략적인 추산치. 단지 농장 매출을 소매가로 환산하고, 가공업자의 입지가 아주 적고(가공업자가 가치를 증가할 것임), 수출이 수입을 능가한다는(이는 가치를 줄일 것임)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추산.

고 있다. 여러 주정부와 영연방 교육 및 보건부는 그러한 이니셔티브의 공동기금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인정은 보고되지 못한다.

호주에서 GMO 작물 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작물 재배에서 GM 기술사용을 결정에 관한 주법이 있다. 작물 재배에서 GM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타스매니아 모라토리엄(Tasmanian moratorium)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주들도 과학적 목적 하에서만, GM 작물 재배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몇몇 주(New South Wales와 Victoria)에서 식품생산을 위해 대규모 GM 작물 재배가 2010년에 시작되었다.

(마) 연구 및 확대

호주 유기농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은 OFA(the Organic Federation of Australia, 호주 유기농 연맹)⁶¹⁾이다. 유기농 산업, 비즈니스, 정부와 협력을 통해 호주 유기농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OFA의 회원은 1차 산업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도소매 판매인, 소비자, 인증기관, 지역단체, 교사, 연구자 등을 포함한다. 2010년 초에 OFA는 ERET(Environmental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환경연구 및 교육신탁)을 설치하여 유기농업 기금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호주 농민들이 고품질의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호주 유기농산물 시장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는 OFA의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RIRDC(Rural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농촌산업 연구 및 개발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유기농업 연구기금을 책임졌고(대략 연간 27만 호주달러), 현재는 이러한 기금을 다른 분야에 재할당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8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주 내 유기농 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호주 지방정부 최초로 유기농 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기금을 투자한 것이다. VOICe(Victorian Organic Industry Committee, 빅토리아 산업위원회)가 유기농 산업개발을 위한 활동 계획을 확인한 후에 투자했다.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빅토리아 주 유기농 산업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공급망 체인 개발, 유기농으로 전환,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및 파트너십 개발 등이다.

61) OFA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ofa.org.au 참조

마.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 결과

(1) 대회 개요

- 행사명 :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 주제 : “유기농은 생명이다!(Organic is Life!)”
- 목표
 - 민관협력으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세계유기농대회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아시아형 유기농업의 이념과 발전 모델 제시
 - 환경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세계유기농대회, 학술행사와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성과 극대화
- 기간 : 2011년 9월 26일(월) ~ 10월 5일(수)
- 장소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주행사장), 남양주 제2청사, 유기농박물관(IFOAM 총회)
- 주최 : IFOAM
- 주관 : 사)IFOAM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 협력기관 : 국제유기농학회(ISOFAR), 경기도, 남양주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양평군, 울진군, 제주특별자치도, 포천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흙살림

(2) 사전 컨퍼런스 주요 내용 : 도시농업 및 각종 유기산업

(가) 도시농업

도시농업 사전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경지면적의 감소 대응방안 논의와 도시화 지역내에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을 모색하고 도시농업이 먹거리 생산뿐 만 아니라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와 도시농업의 최근 연구와 실험 및 활동을 발표하고 논의함에 의의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청강연자로 독일 훔볼트대학 번드 가이어교수가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캐나다 도시농업 활동가인 조 나스르 박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논의’가 발표되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이어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 ‘도시농업의 실천사례, 그리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등 3개의 소주제별로 10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와 질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이튿날에는 남양주 일원의 도시농업 현장과 활동을 중심으로 바이오투어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을 탐방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참가한 유기농업 연구자와 활동가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유기수산

유기수산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울진이 너무 멀었지만 14개국 28명의 외국인과 140명의 국내 전문가(어업인등)가 참가할 정도로 유기수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기수산양식의 필요성과 동향(추세), 외국의 유기수산 경험 및 사례 등 컨퍼런스의 내용은 아직 초보적인 우리나라의 유기수산양식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중에 관한 법률(안)'에 수산 영역이 포함되어 유기수산 및 무항생제 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등의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유기 수산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유기섬유

본 대회를 통해 발표자들은 21세기형 유기 농업의 현주소, 염색 기술 등 유기 섬유 생산의 발전상, 각국의 관련 시장의 흐름과 전망, 유기 섬유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유기섬유의 인증 표준에 대한 각국의 사례들과 한국유기섬유표준(korea organic Textile Standard)과 인증제도 정착에 대한 주제발표로 한국시장의 발전하는 모습을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국, 한국의 유기섬유의 개발, 생산, 국내외 마켓에서 유기섬유가 어떤 부가가치로 경제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는지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천연염색에 관련하여 자료들을 검토해보며 현재 상황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유기섬유의 생산, 마케팅 분석 발표를 진행했다. 유기면화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유기농 코튼 인증 시장과 마켓 트렌드를 통해서 유기섬유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

(4) 유기종자

유기종자, 토종 종자는 유기농업 부문에서 다년간 논의되어온 핵심의제 중의 하나로, 국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흙살림은 유기·토종종자 부문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과 정책이슈 등을 공유하고, 실천적 부문에 대한 가능성을 공유하고자 주관하기로 하였다.

발표되는 논문으로는 유기·토종종자 정책과 현장연구에 관한 유럽연합의 논문과 사례 발표, 아시아권의 연구결과와 농가, 민간단체의 실천·성공사례, 국내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유기농업운동적인 측면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5) 유기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세계 12위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최근 웰빙트렌드의 확산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유기농 화장품 정의가 마련되어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유기화장품에 대한 최신의 기술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천연원료의 생산방식을 규명하고 유기화장품의 범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유기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나라별 인증제도 법제화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 KREI-유기상품 유통 국제심포지엄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하이케 키리스텐(독일 라폰젤사 이사)

- 라폰젤 회사는 자연 건강식품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이며 라폰젤 제품을 고객이 선호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음
- 당사의 품질기준 및 독립적 품질관리를 통해 많은 상업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직한 마케팅을 통한 개방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 라폰젤은 공급자와 긴밀하면서 직접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최고 품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직접 접촉을 통해 계속적으로 품질을 향상하도록 돕고 있음

- 1987년 이래 라폰젤은 전세계에서 생산된 유기농 원자재를 거래해 왔으며, 유기농 재배 상품의 채택 및 공급업체와의 장기적 및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 왔음
- 현재 라폰젤 제품의 80% 이상을 유기농 및 공정무역에 대한 표시 라벨(HAND IN HAND)를 부착하고 있음

□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주요 소비계층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40~50대 중산층과 20~30대의 고소득 계층이며,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이 45.8%, 농협계통 21.8%, 전문매장 10.8%, 직거래단체 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 45.5%, '생산·유통 등에 대한 신뢰성 저하' 31.0%로 나타나고 있고, 59.9%의 소비자는 브랜드를 고려하고, 40.1%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산 및 수입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 82.4%, '수입 유기농산물 신뢰' 4.3%, '모두 신뢰' 4.4% 등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철저한 인증제도 관리' 34.8%,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26.7%, '인증제도 개편' 23.8% 등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구매계층을 세분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신뢰도 제공, 브랜드와 준거가격 등의 포지셔닝,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증대, 가격프리미엄 인하 등이 필요

□ 김성훈(충남대학교 교수)

-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효율성 제고의 사각지대이며, 상대적 비효율로 인한 유통비용 상승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
- 산지부문의 경우 조직의 영세성, 단순 수탁위주의 조달체계, 차별화된 마케팅 미흡, 수확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대부분의 단순 포장 및 원물상태 판매, 효과적인 브랜드관리 미흡, 생산자의 교섭력 미흡으로 구매자 위주의 가격책정 등이 있음
- 도매부문은 기준 가격 및 가격 형성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격협상 및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매부문의 경우 소분 포장하거나 산지에 특정 포장형태를

요구하는 비율은 과일류 37.0%, 채소류 42.1%로 낮게 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의 PB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는 71.8%로 낮게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으로 산지출하조직 규모화, 신뢰성 개선, 상품성 개선, 마케팅 개선, 상류 및 물류 기능 개선 등이 있는데, 광역단지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조직 결성, 산지조직간 연합 판매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인증제도의 개선 및 생산이력제 등 강화, 상품성 개선, 마케팅 개선, 상류 및 물류 기능개선 필요

□ F. Blake(영국 유기화장품 표준 AISBL 대표)

- 전체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 시장의 비율은 유럽의 경우 65%, 미국의 경우 5%(반천연 제품 포함)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 화장품 기업들이 유기농화장품업체를 매입하고 생산개발 부문에서의 혁신이 일어나며, 표준의 통합(Harmonisation of standards)이 일어나게 될 것임
- 향후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자 인식이 향상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자가브랜드 창출, 아시아 및 BRICS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며, 연간 10~15%의 성장으로 일반화장품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 L. Pepper(미국 섬유거래소 이사)

- 미국 섬유거래소(Textile Exchange)는 당초 유기농 면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기농은 여전히 핵심적, 특징적 프로그램임. 중점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섬유를 포함시킴
- 섬유거래소의 미션으로 긍정적 혁신, 세계 섬유산업 전반에 지속 가능한 관행 가속화, 유기농 영농인 육성, 안정적 시장에의 접근성 촉진, 교육을 통한 사업역량 개발 등이 있음
- 2006년~2012년 유기농면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2006년~2012년 세계 유기농 면직물 소매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섬유거래소의 전략으로는 유기농을 특기프로그램으로 여기며, 공정무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면직물 생산 촉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이니셔티브가 상호 보완도록 조율하는 것 등이 있음
- 시장의 접근성 제고, 정보제공, 지역적 및 국제적 논의를 통해 유기농 면화생산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함

□ 마르코 솔티(IFOAM EU 대표)

- 유기농산업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소비채널이 중요함
- 정책적 의지가 중요함. 홍보프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함.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야 함
 - 예) 지역 당국이 학교에서 유기농 과일을 먹도록 하고 있음
- 유기농레이블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의무는 아닌 특정 유기농 로고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라짐.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 어떻게 레이블을 부칠 것인가, 식품전체에 사용할 것인가, 포장만 환경친화적이면 되는가 등의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음. 혼란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하인즈 쿨만(일본 바이오파흐 대표)

- 독일 바이오파흐(Biofach)가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인도, 일본, 중국 등으로 진출
- 중국, 일본 식품관련 사건사고 많았음. 그래서 안전식품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품, 안전한 식품이 가장 중요함.
- 2001년 일본에 바이오파흐가 설립됨. 일본 EU 기준 모두 맞추는 수준이 됨. 수출을 고려하여 생산
- 아직 자국 내 유기농산물시장이 없는 국가들이 있음. 이들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무역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접근가능하도록 해야함. 예를 들면 동남아국가들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 판단됨

□ 유덕기(동국대학교 교수)

- 생산, 유통, 소비시장의 특징 혹은 문제로 인증시스템 다양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였으며 소비자 신뢰도 역시 낮아짐. 품질저하된 것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음. 이러한 공급문제 때문에 잠재적 수요층을 끌어들이지 못함
- 대형마트에서 구입 선호하나 대형마트 마케팅이 빈약하고, 정보장애(정보의 비대칭), 가격장애(높은 가격), 신뢰장애, 장소문제 등이 나타남
- 소규모(1ha)이므로 유통이 매우 불안정함. 정책 제도 취약함. 우리나라 품목 다양하지 못함

- 극복방안으로 수평적·협력적 유통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함. 마케팅전략의 경우 소량, 고품질, 고가격 전략, 저가 대량 공급(가공) 등 두가지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 학교급식은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내식, 호텔 등으로 확대
-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생산 농가를 육성해야 함. 녹색성장 선순환으로 해주어야 함
- 80%가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투융자. 그러므로 마케팅 쪽에 집중해주어야 함.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needs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정형(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예정으로 생산자들은 신뢰, 소비자들은 환경, 건강의 가치 추구
- 유기상품 유통단계에서 가격지불의향과 수취의향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으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예정
- 생산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 동의 구하는 노력과 유통과정 발전방향 토대로 화장품, 의류, 건물, 개발하는데 노력이 필요

□ 서종혁(한경대학교 교수)

- 토론회를 통해 한국 유기상품 현황과 비유기식품 시장 현황, 구성, 트렌드를 알게 됨
- 소비자 잡는 전략에 있어 보다 정직해야 하고, 유기식품이 리더쉽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관행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품 판매의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임

(4) 대회 결과 종합

1977년 스위스에서 '지속농업을 위하여' 라는 구호로 처음 시작된 세계유기농대회는 이후 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유기산업 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 가공산업체, 학자, 행정가, 정치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와 정보를 나누는 자리이다.

'유기농은 생명이다!(Organic is Life!)' 라는 주제로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지에서 사전 학술회의, 유기농학술대회(OWC), 세계유기농운동

연맹(IFOAM) 총회, 부대/병행 행사 등으로 구성된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이하 ‘대회’라 약칭)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접수, 발표에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대회로서, 유럽 중심의 유기농업 영역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의 특성과 기대를 반영한 성과를 남겼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민관 공동협력에 의해서 치러진 대회로서, 종전 대회보다 더욱 풍성한 내용의 대회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일정한 과제를 남긴 대회이기도 하다. 종전 대회와 달리 다양한 부대행사에 24만5천명이라는 수많은 일반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유기농업의 발전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확인되었다.

사전학술행사의 진행에 있어서 관련 기업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로 반영된 유기농산업의 발전의 요구와 유기농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열의 그리고 그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구체화·지속화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기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한 직·간접적 홍보효과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200억원에 이르며,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위상이 격상하고, 친환경농업 발전과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의 진정한 의의 및 성공은 명실상부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및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라는 과제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현황과 전망

가. 생산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먼저,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품질경쟁력 향상 노력 및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과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추진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육성대책을 추진한 것도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⁶²⁾.

연도별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0년 2,448호에서 2010년 183,918호로 75배 증가하였다가 2011년도에 16만여호로 줄었다. 인증면적은 2000년 2,039 ha에서 2010년 194,006 ha로 93배 증가, 2011년도에 172,674였다. 인증량은 2000년 35,406톤에서 2,215,521톤으로 63배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는 1,819,228톤이었다. 201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인증물량이 전체농림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2010년부터 중단되어 09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농가수 비중은 15.6%, 면적 비중은 11.3%, 인증량 비중은 12.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틈새농업에서 주류농업으로 진입하고 있다⁶³⁾.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유기농산물이 크게 증가하여 그동안 저농약농산물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산물 위주 친환경농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1년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13,376호이고, 재배면적은 19,312 ha이며, 생산량은 190,912톤이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출하량을 보면(2011년 기준), 곡류 404,825톤, 과실류 433,346톤, 채소류 701,894톤으로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과실류, 곡류 순이었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 출하량 가운데 유기가 7.6%를 차지하고, 무농약 56.1%, 저농약 36.2%로 무농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 중 곡류의 유기인증 생산량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여건상 과실류는 저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기인증 생산량이 가장 적었다.

62) 김호, 2010, 한국의 유기농산물 유통 현황과 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63) 김창길, 2010,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이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률 (%)	
유 기	농가수(호)	353	7,167	7,507	8,460	9,403	10,790	13,376	39.1
	면적(ha)	296	8,559	9,729	12,033	13,343	15,517	19,312	46.2
	출하량(톤)	6,538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190,912	35.9
무 농 약	농가수(호)	1,060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49.7
	면적(ha)	876	18,066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53.2
	출하량(톤)	15,694	320,309	443,989	554,592	879,930	1,039,576	915,823	44.7
저 농 약	농가수(호)	1,035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44.1
	면적(ha)	867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9	46.6
	출하량(톤)	13,174	712,380	1,234,706	1,519,070	1,369,034	1,053,702	712,493	43.7
계	농가수(호)	2,44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46.3
	면적(ha)	2,039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4	49.7
	출하량(톤)	35,406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2,215,521	1,819,228	43.1
경지면적(ha)	1,888,765	1,800,470	1,781,579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0.9	

비고 :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약 73.5만 톤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으로서 18%(약 33만 톤)이며, 경남과 전북이 뒤를 잇고 있다.

표 24. 2011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별 생산 현황(단위 : 톤, %)

구 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전체
유 기	91,435 (22.6)	7,589 (1.8)	53,643 (7.6)	4,287 (7.6)	6,200 (3.30)	27,758 (74.7)	190,912 (10.5)
무농약	254,453 (62.9)	36,669 (8.5)	394,085 (56.1)	46,205 (82.0)	176,834 (95.2)	7,577 (20.4)	915,823 (50.3)
저농약	58,937 (14.6)	389,088 (89.8)	254,166 (36.2)	5,841 (10.4)	2,629 (1.4)	1,832 (4.9)	712,493 (39.2)
합 계	404,825 (100.0)	433,346 (100.0)	701,894 (100.0)	56,333 (100.0)	185,663 (100.0)	37,167 (100.0)	1,819,228 (10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6.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단위 : 천 톤,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경기	10.5	42.6	70.0	101.9	101.0	104.6	117.5	193.4	(10.6)
강원	11.7	36.6	56.0	79.5	89.3	74.1	79.1	65.7	(3.6)
충북	11.6	49.6	82.1	108.6	101.4	98.1	82.6	90.7	(5.0)
충남	13.6	38.6	86.9	120.4	110.4	106.4	117.7	104.0	(5.7)
전북	5.8	17.8	52.3	123.4	112.1	121.2	130.9	110.1	(6.1)
전남	6.4	40.7	135.5	691.0	996.3	1,275.3	1,120.9	734.7	(40.4)
경북	18.5	93.6	196.4	372.0	486.3	378.4	351.6	327.6	(18.0)
경남	5.6	23.2	79.4	126.7	126.1	130.6	129.7	126.8	(7.0)
제주	1.6	11.6	20.8	27.9	26.4	17.5	21.7	15.7	(0.9)
계	87.3	365.2	797.7	1,785.9	2,188.3	2,357.8	2,215.5	1,819.2	(100.0)

주 : 광역시는 합계에 포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 중 유기축산물 인 증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18농가, 300톤에서 2011년 도 103농가 20,695톤으로 약 7배 증가, 무항생제 인 증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7년도 664농가에서 2011년도 6,684농가, 480,067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친환경축 산 농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축산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외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이다.

(2) 유기가공품 인 증 현황

2004년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은 1,340톤이었다가, 2005년에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2008년 1,748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출하량은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생산

표 27.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 증 실적(단위 : 건, 개,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 증 건 수	38	99	194	187	231	199	283	302
품 목 수	-	-	-	100	125	250	378	399
출 하 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량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처음으로 수입 유기농산물을 인증한 이래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10,138톤으로 2008년 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이는 환율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의 8.2%정도이다.

표 28. 유기농(축)산물 수입 현황(단위 : 톤)

년도	03	04	05	06	07	08	09
중량	2,719	5,313	8,501	7,042	9,892	11,499	10,138

자료 : 2010 국감자료

수입국별 유기농산물 수입현황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수입의 43.4%인 4,406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 필리핀 2,670톤, 베트남 958톤, 호주 885톤, 뉴질랜드 464톤 등이다. 주요 유기농산물 수입 품목은 사료작물이 3,650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36%를 차지하고, 그밖에 바나나 3,047톤, 밀 1,282톤, 옥수수 922톤 등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 수입은 유기가공품의 원재료로 수입되고 있고 바나나, 키위, 야콘 등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9. 2009년 유기농(축)산물 품목별 국별 수입 현황(단위 : 톤)

품목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계
콩	340								340
녹두	100								100
옥수수	922								922
밀	300				198	784			1,282
참깨	72								72
도토리	160								160
사료작물	2,512		958	180					3,650
바나나		2,670						377	3,047
키위							464		464
쇠고기						101			101
합계	4,406	2,670	958	180	198	885	464	377	10,138

자료 : 2010 국감자료

유기 가공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액은 2007년까지 각각 연평균 83.2%, 81.6%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은 2008년보다 18.5% 감소한 14,699톤, 수입액은 3,14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수입품 위주의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표 30.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연도	물량(톤)	금액(만달러)	주요수입국
2001	746	181	미국,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2002	1,102	319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2003	1,819	519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2004	4,674	1,313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2005	7,469	3,287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2006	11,469	2,664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7	24,793	4,428	미국, 프랑스, 독일
2008	18,028	4,918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2009	14,699	3,145	브라질, 미국 호주, 중국, 파라과이

주 :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제품명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시장 및 전망

(1) 친환경농산물 유통량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생산 및 수요증가로 인해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과 대형유통업체, 전문장(프랜차이즈), 농협, 인터넷쇼핑몰 및 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 대면판매, 학교급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통경로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취급비중은 직거래 15%,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소비자 단체를 통한 거래(한살림, 생협 등)가 20%, 생산자조직과 대형마트 거래 50%, 전문매장 및 인터넷 거래가 1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⁴⁾.

64) 농림수산식품부, 2010, 친환경농업과 관련 자료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는 2010년 말 현재 약 2,000개소로 추정되며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매장 및 유기농 전문판매장의 확장세가 두드러진다. 기존의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대형할인매장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유통업체별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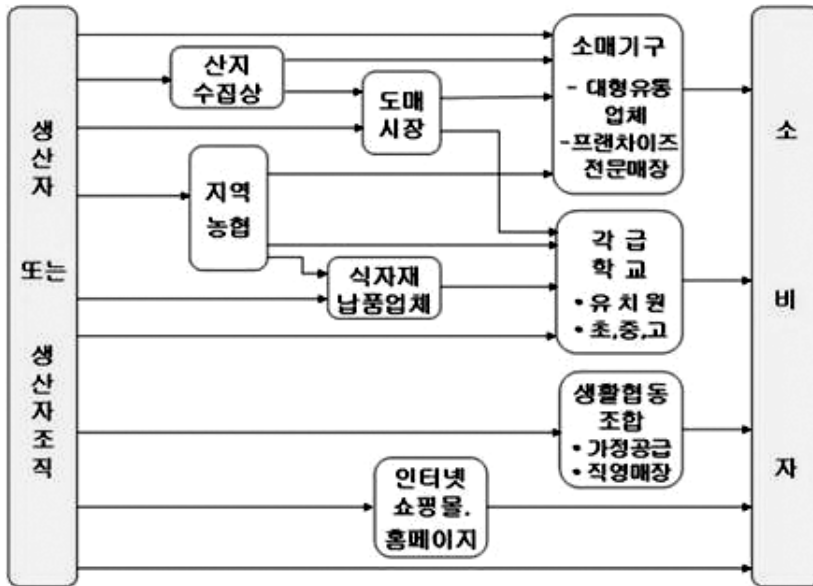


그림 14.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자료 : 김호, 2011.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변화추세와 전망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를 2011년도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6.5%인 5,364억원, 무농약이 47.9%인 1조 5,627억원, 저농약이 35.6%인 1조 1, 61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3조 2천 600억원 수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도에는 6조 6천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⁵⁾. 품목별로 살펴

65) 김창길, 2010.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면 곡류가 가장 많은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채소류, 과실류 순이다.

표 31.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시장유통규모(단위 : 억원, %)

구분	곡류	쌀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유통규모	10,336	7,546	9,364	7,152	1,390	4,360	32,602
비중(%)	31.7	23.1	28.7	21.9	4.3	13.4	100.0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2)

(2) 친환경농산물 시장 전망⁶⁶⁾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2012)에 의하면,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011년 대비 12.9%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3년에는 3조 9,845억 원, 2015년에는 4조 8,3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농약인증 농산물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유기와 무농약인증 농산물 시장규모의 증가속도가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2012년부터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직접지불금이 대폭 상승되어 이들 인증단계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적 변수가 고려되었기

표 32.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시장규모 전망(단위 : 억원)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곡류	7,751	9,216	10,336	12,180	14,116	18,785	23,712	29,684
쌀	7,218	7,998	7,546	8,844	10,163	13,381	16,724	20,936
기타	533	1,218	2,789	3,337	3,953	5,404	6,988	8,748
채소류	8,386	12,046	9,364	10,450	11,097	13,070	14,650	18,340
과실류	4,195	7,641	7,152	7,308	6,530	5,445	2,741	3,431
서류	1,144	1,005	1,390	1,644	1,915	2,566	3,262	4,084
특작·기타	3,143	3,966	4,360	5,218	6,185	8,464	10,949	13,706
총계	24,619	33,874	32,602	36,800	39,845	48,329	55,313	69,246

주 :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2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15% 내외, 2016년에는 20~35%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66) 김창길, 2011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증가세가 주춤하겠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20.2%인 6조 9,246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364억 원에서 2012년 6,754억 원, 2015년 1조 724억 원, 2020년 1조 7,536억 원이 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은 전망하고 있다. 무농약의 경우도 2011년 1조 5,627억 원에서 2012년 2조 177억 원, 2015년 3조 1,544억 원, 2020년 5조 1,70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농약의 경우는 2011년 1조 1,61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06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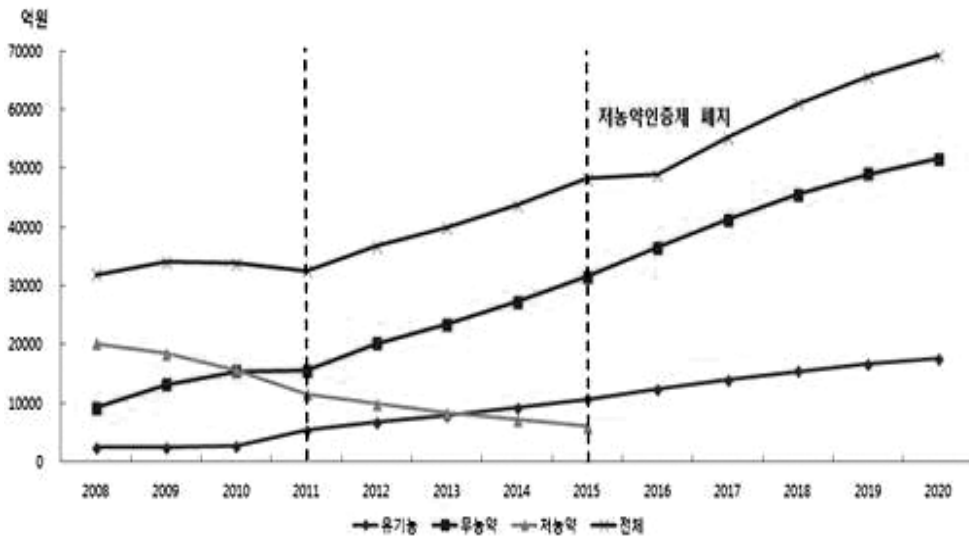


그림 15.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3) 유기 가공식품의 시장 전망⁶⁷⁾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는 국산 원료 국내생산 가공식품 시장 전망을 유기면적 재배

67) 김창길, 2011년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적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입산의 경우는 국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식품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777억 원, 2015년 5,781억 원, 2020년 6,81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국내생산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219억 원, 2015년 4,937억 원, 2020년 5,8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33.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단위 : 억원)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합계	2,158	3,167	3,777	4,355	4,908	5,781	6,355	6,817
국내생산	1,843	2,696	3,219	3,712	4,184	4,937	5,445	5,867
(국산원료 전체)	296	382	480	549	626	790	977	1,203
(수입원료 전체)	1,547	2,314	2,739	3,162	3,558	4,147	4,468	4,663
수입완제품	315	471	558	644	724	844	910	950

주 : 국내생산의 국산원료는 유기재배면적의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추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다. 정책

(1)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 의의

1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은 생산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차 계획은 확대된 생산에 의해 증가한 공급량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유통정책을 강화하였다. 3차 계획에서는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대된 유기식품 산업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은 그동안 저농약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무농약 및 유기농 중심의 발전을 모색하여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가공 및 농자재까지 친환경농업의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녹색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 크게 부각되는 배경 아래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이라는 비전 속에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비율 12%로 확대, 농약 사용량 매년 5% 이상 감축, 2조원까지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 확대를 목표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공·농자재, 농업환경자원 등 7대

전략 6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사업(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유기농 전문단지 확대 등)을 무농약 및 유기농중심으로 육성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급식 등 지속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해가는 한편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강한 농업의 한 축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이 1차 산업(생산)과 식품·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 미흡했는데 가공 및 연관산업(유기농식품)까지 친환경농업 영역을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은 확대가 되었으나,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 부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 소비량은 감소하나, 양분잉여량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 농업환경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 사업 실시 등의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통한 육성발전을 도모해왔으나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간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농업관련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폐지 등 민관 협력 추진 체계 상실, 농자재 산업(기업)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등은 개선해야 나갈 과제로 보인다. 아울러 유기농 가공품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육성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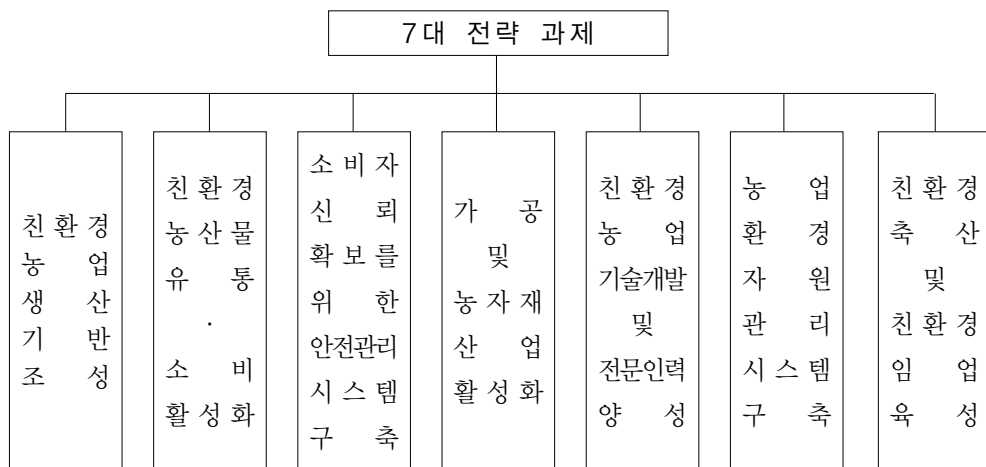


그림 15.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 과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11-15) 계획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칭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30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된 제도를 통합하여 인증의 체계화 도모함으로써 인증기관 지정 절차가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친환경수산물로 분산되어 있어 1개 인증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 지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절차를 통일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둘째, 친환경 인증대상 범위에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어·패류, 해조류 등), 자연채취농산물(야생 버섯, 나물 등)을 인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친환경농식품 취급자 인증의 범위를 저장, 포장, 소분, 운송, 수입, 판매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셋째, 유기 인증사업자(농업인, 식품업체 등)의 준수사항(GMO·방사선조사 금지 등 기본원칙 등 12가지)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을 강화하였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수입되는 유기식품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명 표시 의무화하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과의 동등성 인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유기농어업용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인증기준과 절차, 표시방법 등은 농식품부 장관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3) 2012년도 친환경농업 예산 검토

올해의 친환경농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4,072억원(예산+기금)이다. 2011년도에 전년 대비 큰 폭(24.2%)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및 기금 대비 2.6%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 예산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비료지원이 2,307억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104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06억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297억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50억원, 비료계정적자보전 480억원, 이외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등 농안기금이 312억원이다.

표 34. 2012년도 친환경농업 예산

사 업 명	'08년	'09년	'10년	'11(A)	'12(B)	증감(%)
합 계(예산 + 기금)	521,662	413,183	551,868	418,221	407,182	▽2.6
예산 계(농특 + 광특)	470,262	364,083	505,768	381,561	371,962	▽2.5
<농특회계>	437,262	348,940	467,559	333,705	340,244	2.0
○친환경농업직불제	26,305	42,309	52,018	37,912	50,595	33.5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3,471	15,038	12,200	10,400	▽18.9
○비료계정적자보전	228,377	100,000	91,000	45,731	47,977	4.9
○친환경비료지원	173,545	185,200	304,513	237,162	230,712	▽2.7
- 유기질비료	133,191	121,800	145,000	125,000	135,000	8.0
- 토양개량제	40,354	63,400	86,413	75,612	75,612	-
- 맞춤형비료지원			73,100	36,550	20,100	▽50.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960	1,440	1,025	700	560	▽20.0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폐비닐 수거비지원	3,595	2,030	-	-	-	
○생물학적병해충방제	4,480	4,490	4,490	-	-	
- 천적활용해충방제	4,480	3,650	3,650	-	-	
- 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	-	840	840	-	-	
<광특회계>	33,000	15,143	38,209	47,856	31,718	▽33.7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	843	6,309	11,356	4,968	▽56.3
○친환경농업기반구축	33,000	14,300	31,900	36,500	26,750	▽26.7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2,000	8,800	2,400	2,400	2,550	6.3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1,000	5,500	29,500	34,100	24,200	▽29.0
기금 계(농안+ FTA)	51,400	49,100	46,100	36,660	35,220	▽3.9
<농안기금(용자)>	48,400	42,400	42,400	36,660	31,220	▽13.5
○친환경농산물소비지 유통활성화	2,400	2,400	2,400	2,160	1,920	▽10.0
○친환경농산물직거래 매취자금	40,000	40,000	40,000	31,000	27,000	▽22.5
○친환경농산물산지 유통활성화	6,000	4,800	4,320	-	-	
○유기가공식품의명품화기반구축				3,500	2,300	▽34.3
<FTA이행지원기금>	3,000	6,700	3,700	0	4,000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00	6,700	3,700	0	4,000	순증
농식품부 총지출(단위: 억원)	124,242	146,363	146,738	148,644	154,083	
비 중	4.2	2.8	3.8	2.8	2.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2)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친환경농업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새롭게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유기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구축사업(2011년 35억, 2012년 23억)에 불과하다.

2005년부터 시설원에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천적방제 및 미생물 농약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 등 산지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농안기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조직 등에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활성화사업이 통합되었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친환경농업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IV. 결론 : 시사점

세계 유기농식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시장도 늘어나고 있으나, 세계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두 지역이 전세계 매출의 96%를 차지한다. 현재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인식과 가치분 소득이 낮아 유기농 식품소비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WTO/FTA 등 국제협정의 체결 및 발효와 함께 유기농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압력도 커지고 있다. 유기 동등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하여 EU, 캐나다,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등이다. 유기농식품 생산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EU는 관련 산업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외 나라들은 EU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유기농식품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증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미 외국 수입유기가공품에 잠식되어 있는 가공식품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무농약인증 생산물 등이 중심인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유기동등성 인증은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시장의 형성 이후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실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친환경무상급식의 올바른 실현과 정착이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및 확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친환경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학교급식은 안정적인 공공적인 계획시장으로 농업·농촌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판로 및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고 지역농업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안정적 식재료 공급 체계를 위한 계약재배 구축방안, 생산자들과 학교가 만족하는 안정적 공급가능,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농산물 가격,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수질 및 토양, 생물다양성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이산화탄소 저감기능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의 전환기간은 품목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나 대략 3~5년 정도 소요되므로, 최대 10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일반농가의 전환의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전으로 안심하고 친환경농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기재배로 정착되는 경우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유기농으로 정착한 경우 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업 대표조직 구성과 의무자조금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농업조직(생산, 소비, 가공, 유통, 소비 등)의 연합체의 위상을 가지며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협의체)에서 나아가 민간 환경농업 단체(조직 등)의 중심 및 구심으로의 역할로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환농연과 농협조직인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민간인증기관협회, 친환경농자재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연대체를 구성하여 환경농업 민간단체의 중심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친환경농

업인들과 직접 관계없이 환경농업 단체 및 농협들이 분담금처럼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기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된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수산물, 비식용유기제품, 유기농어업용자재 영역까지 확대하여 하나의 단일 법률을 만들었다. 또한, 이 법률에는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의 유기농식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동등성 추진으로 인한 국내 유기농식품 산업 등의 피해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속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서둘러 수립, 제시해야 한다.

VI. 기대효과

- 외국의 주요 유기농업 실천 사례 발굴
- 농식품 산업 외에 해외의 각종 유기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 국제유기농업 운동의 과제와 전망 공유
- 세계에서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유기농업 단체 및 연구소와 연대 확대
- 한국의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

참고문헌

1. 김창길 외 2인. 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창길 외 2인. 2007.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제41권.

3. 김창길 외 2인.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농업전망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창길 외 2인. 2009.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58권.
5. 김창길 외 2인. 2012.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 호. 2010. 「한국의 유기농산물 유통 현황과 과제」. 한국유기농업학회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
7. 농림수산식품부. 2011.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
8.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및 2012년도 친환경농업정책 관련자료
9. 정은미. 2006. 「친환경농산물의 거래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조완형. 2010.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둘러싼 시장동향과 대응전략」.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
11. IFOAM. 2010. 세계유기농대회 사전학술대회자료집 등
12. IFOAM.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각종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
13. IFOAM and FIBL. 2011.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

